
한일관계사학회

제225회 열례발표회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2~6시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610호관

차례

사회 : 이승민(국민대)

제1발표

태조 7년(1398)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수립배경

발표 : 송중호(방송대학교)

토론 : 윤성익(경희대학교)

제2발표

명칭교체기 서계(書契)의 변천과 조선의 대일
교섭 양상

발표 : 박지원(한국학대학원 석사)

토론 :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제3발표

『류큐오라이(琉球往來)』 하권의 내용과 성격
- 상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 허지은(서강대학교)

토론 : 이재훈(동의대학교)

제1발표

태조 7년(1398)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수립배경

발표 : 송종호(방송대학교)

토론 : 윤성익(경희대학교)

【제1주제】

태조 7년(1398)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수립배경

송종호(방송대학교)**

- | | |
|---|---|
| <p>I. 머리말</p> <p>II. 선행연구 검토</p> <p>1. 통교 관계 수립 배경에 관한 선행연구</p> <p>2. 통교 관계 수립 시기에 관한 선행연구</p> <p>3. 1397~1398년 통교수립설</p> | <p>III.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의 배경</p> <p>1. 이마가와 료순 체제 하의 대마도</p> <p>2. 료순 실각 이후 대마도의 정책 전환</p> <p>3. 통교 관계 수립을 위한 대마도의 노력</p> <p>IV. 맺음말</p> |
|---|---|

I. 머리말

대마도는 일본 열도 중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조선시대 내내 조선-일본 간 외교 관계에서 핵심적인 창구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많은 연구자의 관심이 있었고,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쌓여 있다.

조선시대 대마도와 통교 관계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기원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처음 수립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수백 년간 이어진 조선-일본 관계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아래 제2장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일본의 기존 통설은 대략적으로, 조선 조정이 왜구를 금압하고자 일본의 여러 세력에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대마도 소씨(宗氏)를 포함한 일본 각 세력과의 통교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에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 통설은 대마도를 포함한 여러 일본 세력을 아우르는 거시적·포괄적 시각에 머물고 있어서, 조선-대마도 간 양자 관계만의 특수성과 고유한 역학관계에는 제대로 눈을 돌리지 못했다.

이 점은 구체적인 의문들로 이어진다.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대마도가 왜 여타 서일본 세력보다 조선과의 통교가 늦어졌는지,¹⁾ 왜구 활동의 근거지였던 대마도가 어떻게 조선 조정에 입조할 수 있었고 조선은 무슨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여타 서일본 세력에 비해

* 본 발표문은 논문 최종본이 아니며 토론용으로 제한 배포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석사.

1) 대마도의 최초 조선 조정 입조는 1398년(태조7) 1월 1일에 있었다. 그 이전에 이미 조선 건국 직후부터 1397년(태조6)까지 규슈 단다이(7회), 오우치씨(大内氏)(4회), 남규슈(南九州)(5회), 이키(壱岐)(1회) 등 대마도를 제외한 여타 일본 세력들이 종종 조선에 사자를 파견해 오고 있었다(송종호, 「고려 말-조선초 대마도와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2, 2023b, 56쪽 참조).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던 대마도가 어떻게 조선-일본 간 외교의 핵심 창구가 될 수 있었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은 거시적·포괄적 서술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14세기 말 대마도'에 관한 미시적·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조선-대마도 통교 관계의 기원을 정확히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조선-일본 관계 전반의 성격을 새롭게 조명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14세기 말 시점에 대마도가 처해 있던 여러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이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그 시기 대마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외교 등 여러 환경을 서술하면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수립된 배경과 과정을 해명하기로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제2장에서는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 배경에 관하여, 통교 관계 수립에 관련된 동기·목적에 관한 선행연구(제1절) 및 그 시기에 관한 선행연구(제2절·제3절)를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 통교 관계 수립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조선과 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수립 동기에 관하여, 지금까지 통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왔다. 조선 조정이 건국 직후부터 왜구를 금압하고자 먼저 일본 측에게 통교를 청했고, 일본의 여러 세력이 이에 응하였는데, 대마도 소씨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이하 '조선주도설'). 시기적 흐름으로 보면, 조선 조정은 1392년(태조1) 사승 각추(覺龜)를 일본 막부에 파견하였고, 이어 규슈 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에게 사자를 보낸 뒤, 그 후에 대마도와 접촉한 것으로 서술한다. 이어서 통설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 조정이 과도한 '회유책'을 실시하여 그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이를 바로잡고자 이루어진 1443년(세종25) 계해약조 체결을 계기로 조선-일본 관계에서 대마도의 중심적 위상이 자리 잡혔다고 한다.²⁾

2) 菅沼貞風, 『大日本商業史』, 東邦協會, 1892, 239쪽; 田中義成, 「倭寇と李成桂」 『歴史地理』 朝鮮號, 1910, 190쪽; 幣原 坦, 「日韓交通の概要」, 日本歴史地理學會 編, 『日本海上史論』, 三省堂, 1911, 12쪽; 三浦周行, 「應永の外寇」 『日本史の研究』, 岩波書店, 1922, 815~816쪽 (初出: 『史林』 1(1), 1916); 秋山謙蔵, 「室町初期に於ける倭寇の跳梁と應永外寇事情」 『史學雜誌』 42(9), 1931, 985, 988, 991쪽; 中村榮孝, 「鮮初に於ける日本貿易に就いて」 『東亞經濟研究』 15(3), 1931, 430쪽;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163, 228~229쪽 (初出: 「應永の外寇を朝鮮から観る一朝鮮世宗己亥の東征一」 『朝鮮』 210・211, 1932; 『室町時代の日鮮關係(岩波講座日本歴史)』, 岩波書店, 1934); 高木眞太郎, 『應永外寇の前後一中世の日鮮交渉一』, 八木書店, 1942, 40쪽, 59쪽; 田中健夫, 「倭寇の変質と日鮮貿易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社, 1959, 13쪽 (初出: 「倭寇の変質と初期日鮮貿易」 『国史学』 53, 1950); 森 克己, 「中世末・近世初頭における対馬宗氏の朝鮮貿易」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1, 1951, 1쪽; 李鉉淙, 「朝鮮初期向化倭人考」 『歴史教育』 4, 1959, 340~342쪽;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 29쪽; 田村洋幸, 「対馬の対鮮貿易」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172쪽; 高橋公明, 「外交儀禮よりみた室町時代の日鮮關係」 『史学雜誌』 91(8), 1982, 1303쪽; 河宇胤, 「일본과의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탐구당, 1995, 375쪽; 韓文鍾, 「朝鮮前期 對馬島の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995, 130쪽; 関 周一, 「東アジア海域の交流と対馬・博多」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218쪽 (初出: 『歴史学研究』 703, 1997); 長 節子, 「対馬と朝鮮」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02, 5~6쪽; 村井章介, 「東アジア諸国と日本の相互認識—一五~一六世紀の絵地図を中心に

이러한 통설과는 달리, 서일본의 여러 호족 세력이 먼저 조선에 통교를 요청하고 조선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견해(이하 ‘일본주도설’)도 일부 있었다. 이 견해는 일찍이 1910년 와타나베 요스케(渡邊世祐)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³⁾ 그 이후로는 세노 우마쿠마(瀬野馬熊)(1919), 오사 마사노리(長 正統)(1969), 손승철(2005), 사에키 고지(佐伯弘次)(2006), 스다마키코(須田牧子)(2011) 등 일부 연구자의 견해에서만 드문드문 확인될 뿐이다.⁴⁾ 이 가운데 손승철(2005)은 “조선이 통교를 먼저 요청했고, 일본이 허락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실과 정반대이다. ... 조선에서 통교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막부가 이에 응했다는 기술은 역사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함으로써, 조선주도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필자 역시 여러 사료를 근거로 일본주도설을 따르지만,⁵⁾ 그 상세한 논증은 차후 기회로 미룬다.

그런데 조선주도설과 일본주도설은 모두 조선-일본 관계라는 거시적 논점에 대한 견해일

に『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 東京大学出版会, 2013, 100쪽 (初出 2003・2004) (무라이 쇼스케, 「한중 그림지도에 그려진 일본열도 주변」, 요시다 미쓰오 편, 김임숙 역, 『일 한 중의 교류: 사람·물건·문화』, 인문사, 2013, 141쪽); 佐伯弘次・松尾弘毅・荒木和憲, 「14~16世紀の三島地域と朝鮮」, 森川哲雄・佐伯弘次 編, 『内陸圏・海域圏交流ネットワークとイスラム』, 權歌書房, 2006, 136쪽 (荒木和憲 저술 부분);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전북사학』 35, 2009, 281쪽; 荒木和憲,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 4쪽; 木村 拓, 「朝鮮王朝の二つの対馬認識: 15世紀後半を中心として」, 森平雅彦など編, 『日韓の交流と共生: 多様性の過去・現在・未来』, 九州大学出版会, 2022, 37쪽 등 참조.

- 3) 渡邊世祐, 「足利季世に於ける朝鮮との交通」 『歴史地理』 朝鮮號, 1910, 193~195쪽 참조. “아시카가(足利) 시대 ... 계세(季世: 말기)에 이르러 기강이 문란해져 각지 호족이 다투어 [한]반도로 사자를 파견해 통교를 맺고 자신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모습은 우리[일본] 국민성의 일단을 보여줌과 함께 [한]반도가 확실히 우리나라[일본]에 합병될 운명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와타나베의 서술은 그 시기 한일병합 사건 및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진출을 정당화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에서의 통설이 확립되기 이전에 일본의 초기 연구자가 사료를 검토한 후 도출한 의견이 위와 같은 ‘일본주도설’이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이는 사료 문언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瀬野馬熊, 「大内義弘と朝鮮との關係に就いて」 『史學雜誌』 30(1), 1919, 100~101쪽; 長 正統, 「武家政權と朝鮮王朝」, 井上秀雄・上田正昭 編, 『日本と朝鮮の二千年1: 神話時代~近世』, 太平出版社, 1969, 226~227쪽; 손승철, 「중근세 한일관계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 2005, 283~285쪽; 佐伯弘次・松尾弘毅・荒木和憲, 앞의 논문, 2006, 129쪽 (佐伯弘次 저술 부분); 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2009, 424쪽; 須田牧子,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10~11쪽, 33쪽 등 참조. 이 중 ① 사에키 고지의 경우, 다른 논문에서는 조선주도설로 보이는 서술을 한 바도 있다(佐伯弘次, 「일본의 입장에서 본 동아시아 세계의 변용」, 『조선 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2010, 9쪽 참조). 따라서 그의 위 일본주도설 서술이 그의 지론을 정확히 표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② 이규철(2009)은 일본주도설 위주로 서술하면서도, 조선 역시 일본 측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 5) 필자가 조선-일본 측 간 통교에 관하여 일본주도설을 취하게 된 데에는 여러 사료적 근거가 있다. 그 중 중요한 첫째 근거로는, 조선 전기 내내 일본 측이 조선으로 파견한 사자의 수와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반대 방향의 사자는 드물었다는 점, 즉 양국 간 통교에서의 편향성·일방성을 들 수 있다(佐伯弘次・松尾弘毅・荒木和憲, 앞의 논문, 2006, 129쪽 (佐伯弘次 저술 부분); 佐伯弘次, 앞의 책, 2010, 9쪽; 荒木和憲, 「中世日朝通交貿易の基本構造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51, 2013, 87쪽 등 참조). 둘째로는, 조선 건국 직전부터 건국 초까지 거의 매년 이어진 대마도·이키에 대한 정벌 시도 및 구상을 들 수 있다(『고려사』 권137, 열전 권50, 창왕 원년 2월; 권116, 열전 권29, 제신, 박위; 『태조실록』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 태조 5년 12월 3일 정해; 태조 6년 12월 25일 계묘; 송종호,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藤時羅老) 왜구 집단의 투항과 오에이(応永)의 난-왜구 투항에 관한 ‘조선 조정의 회유책’ 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日關係史研究』 84, 2024, 58~61쪽 등 참조). 조선주도설에 따르면 조선 조정이 일본 막부, 규슈 단다이, 대마도 등과 통교하여 이들을 달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대마도·이키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벌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초 조선-일본 간 통교 수립의 동기는 일본주도설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뿐, 조선-대마도 관계라는 구체적 논점에 관한 견해는 아니다. 이 구체적 논점에 집중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던 탓에,⁶⁾ 거시적·포괄적 담론이 구체적 논점에 대한 답변으로 통용되어 온 셈이다. 두 견해 모두 일본 측 다양한 세력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결과 정작 당시 대마도가 당면했던 상황과 조선 통교에 나서게 된 동기·목적은 충분히 살펴지지 못했다. 이 문제는 비단 필자만의 지적이 아니다. 기존 통설의 입장을 따라 온 오사 세츠코(1966)도 일찍이 “중세 일선(日鮮) 관계사 연구는, ... 통교 제도화(通交制度化)의 동기를 오로지 조선측의 통제책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이를 받아들인 대마도의 내부 사정에 관해서는 거의 해명되지 않았다.”⁷⁾고 했는데, 이 역시 필자와 같은 맥락에서의 문제점 지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시기 일본의 정치 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시적·포괄적 시각은 한계를 지닌다. 14~15세기 무로마치 시대의 일본은 기본적으로 분권적 체제였다. 막부가 중앙에서 일정한 위상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각 지역 세력들은 저마다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점에서 각 세력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지 않고서는 그들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대마도 소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과의 통교를 일본 모든 세력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큰 흐름으로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마도가 처한 고유한 조건을 살피는 미시적·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요컨대 기존 통설은,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해명하기에 충분한 틀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통교 관계 수립 시기에 관한 선행연구

다음으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수립 시기를 서술하는 방식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에 관하여 그 동기를 해명하지 않은 채로, 수립 후의 전개 과정만을 서술해 왔다.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의 시기에 따라 ㉠ 1368년 설,⁸⁾ ㉡ 1397~1398년 설,⁹⁾ ㉢ 1399년 설¹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 1397~1398년 설은

6) 일찍이 다무라 히로유키(1967)가 미시적·구체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마도에서 소 요시시게(宗賀茂)의 난이 발생하였고,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 이를 토벌했음에도 요시시게의 세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조선-대마도 간 통교 수립의 배경에, 대마도 내 세력 통제 및 조선과의 통교를 통한 경제적 실권 장악이라는 소 사다시게의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田村洋幸, 「対朝鮮貿易における早田一族の特質」, 앞의 책, 1967, 225쪽 참조). 다무라의 견해는 통교 수립의 배경으로 대마도 내부의 구체적인 정치 상황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저서 출간 이후, 오사 세츠코 등에 의하여 소 요시시게의 붕기가 조선-대마도 간 통교 수립 이후인 1401년 겨울에 있었음이 밝혀졌으므로(長 節子, 「応永八年宗賀茂の政權奪取」 『中世日朝關係と対馬』, 吉川弘文館, 1987, 72~73쪽(初出: 「対馬島主の継承と宗氏系譜一朝鮮国議政府への宗貞茂呈書をめぐって」 『史学雑誌』 75(1), 1966); 荒木和憲, 「宗貞茂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2007, 26쪽 등 참조), 다무라의 서술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그가 기존 통설인 조선주도설에 따라 그 시기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7) 長 節子, 「対馬島宗氏領国支配の発展と朝鮮關係諸権益」 『朝鮮學報』 39·40, 1966, 182쪽.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오사 세츠코 자신도 조선-대마도 간 통교 배경으로서 대마도의 내부 사정을 명확히 해명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8) 幣原 坦, 『日韓關係よりの對州研究』, 廣島高等師範學校地理歴史學會, 1913, 6쪽; 高木眞太郎, 앞의 책, 1942, 54~55쪽; 長 節子, 앞의 책, 2002, 5쪽 등 참조.

9) 菅沼貞風, 앞의 책, 1892, 239쪽; 高木眞太郎, 앞의 책, 1942, 55~56쪽; 田中健夫, 앞의 책, 1961, 71쪽;

다음 절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와 ㉡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우선 ㉠1368년설은, 1368년(공민왕17) 7월에 고려와 대마도가 사자를 교환하고, 그해 11월에 고려 조정이 대마도주 송종경(崇宗慶; 소 츠네시게(宗經茂))에게 쌀 1천 석을 지급함¹¹⁾으로써 양자 간 통교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맨 앞에 서술하는 방식이다.

위 1368년 통교가 고려-대마도 간 관계에서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통교 관계 수립 이듬해인 1369년(공민왕18)부터 조선 건국 후인 1397년(태조6)까지 고려·조선과 대마도 간에는 30년간의 통교 공백기가 이어졌다.¹²⁾ 이 통교 공백기를 무시하고 마치 1368년 이래로 양자 간 통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것처럼 서술한다면, 조선 건국 후 양자 간 통교 관계가 새로 수립된 사건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¹³⁾

다음으로 ㉡1399년설은, 1399년(정종1) 7월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조선 조정에 서계를 보내 대마도주 취임을 알리면서 왜구 금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사실¹⁴⁾을 부각하는 서술 방식이다. 그러나 소 사다시게가 서계를 보내온 1399년 이전에 이미 대마도는 1398년 1월, 4월 등 두 차례 이상 조선에 사자를 보내 입조한 바 있다.¹⁵⁾ 즉 1399년 소 사다시게 서계로써 양자 간 통교 관계에 관한 서술을 시작하면, 그 이전 통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고찰을 빠뜨리게 된다. 따라서 이 역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에 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선행연구 중 ㉠1368년설과 ㉡1399년설에 따른 서술 방식은,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이라는 미해결의 논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접근방식은 앞에서 검토한 조선주도설의 거시적 관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오히려 조선주도설에 충실한 서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대마도 간 교섭 및 대마도의 조선 조정 입조에 관한 기록이 1398년 1월에 처음 나타난다. 그 시기 전후 상황에 집중해야만 비로소 통교 관계 수립의 올바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1397~1398년설에 공감한다. 다만 이 ㉠1397~1398년설에 따른 선행연구들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유의할 점이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田村洋幸, 앞의 책, 1967, 172~173쪽; 田中健夫, 「朝鮮との通交關係の成立」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75, 110~111쪽; 長 節子, 「十四世紀後半の二度の政變一定宗元年朝鮮國議政府宛宗貞茂書契を中心」, 앞의 책, 1987, 43~44쪽 (初出: 「對馬島主の繼承と宗氏系譜—朝鮮國議政府への宗貞茂呈書をめぐって—」 『史學雜誌』 75(1), 1966); 羅鐘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56~157쪽; 韓文鍾, 앞의 논문, 1995, 136쪽; 佐伯弘次·松尾弘毅·荒木和憲, 앞의 논문, 2006, 137쪽 (荒木和憲 서술 부분); 木村 拓, 앞의 논문, 2022, 37쪽 등 참조.

10) 秋山謙蔵, 앞의 논문, 1931, 992~993쪽; 長 正統, 앞의 논문, 1969, 227쪽; 関 周一, 앞의 책, 2002, 218쪽; 윤승희, 「15세기 대마도 물품 수여에 담긴 조선의 의도」 『한국학논총』 63, 2025, 254쪽 등 참조.

11)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7월 11일 기묘; 윤7월; 11월 9일 병오.

12) 高木眞太郎, 앞의 책, 1942, 55쪽; 孫弘烈, 「麗木·鮮初의 對馬島征伐」 『역사와 담론』 6, 1978, 116쪽; 韓文鍾, 앞의 논문, 1995, 138~139쪽; 송종호, 앞의 논문, 2023b, 51~97쪽; 윤승희, 앞의 논문, 2025, 254쪽 등 참조.

13) 다카기 신타로도 1368년 통교를 언급하면서 조선-대마도 간 통교에 관한 서술을 시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후 이어진 통교 공백기 및 고려 말-조선초 조정의 대마도 정벌에 관해서도 언급하였고, 1397년 박인귀의 대마도 사행 및 조준의 서한에 관해서도 서술하였다(高木眞太郎, 앞의 책, 1942, 54~56쪽). 따라서 위 본문에서의 1368년설 비판은 다카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의 견해가 제기된 1940년대는 조선주도설이 일본 학계에서 아직 통설로서 자리 잡기 이전이었다. 그런 만큼 그의 서술은 조선주도설의 영향을 적게 받은 채로, 관련 연구자 중 조선-대마도 간 통교 수립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14) 『정종실록』 정종 1년 7월 1일 기사.

15) 『태조실록』 태조 7년 1월 1일 기유; 4월 17일 기사.

3. 1397~1398년 통교수립설

1397~1398년설을 취한 선행연구들은 그 근거 자료로서 1397년(태조6) 5월 조선 문하좌정승 조준(趙浚)이 대마도주에게 보낸 서한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 사료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사료1> “조선국 문하좌정승 조준 등은 일본국 대마도 수호(守護) 이대경(李大卿) 족하(足下)에게 서신을 보낸다. 우리나라는 그대 나라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며 본래 서로 좋은 이웃으로 통했다. 경인년 이래로 그대가 다스리는 섬[대마도]과 이키 섬(一岐) 두 섬의 무리한 자들이 서로 모여 도적이 되어 변경으로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니, 해를 끼친 것이 적지 않았다. 생각건대 우리 임금께서 즉위하시어 우리 백성들이 무고하게 피해 입는 것을 불쌍히 여겨, 완악한 흉적들을 섬멸하여 변방 백성을 구제하고자 뜻하셨다. 이에 연해(沿海) 주군(州郡)에 명하시어 전함을 수리하게 하고 날을 정해 실행하려 하셨다. 그런데 지난해에 도적 우두머리들이 영해부(寧海府) 축산도(丑山島)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임금께서 그들이 내부(來附)한 것을 가상히 여기고 예전의 죄악에 과녁치 않으시면서, 울주(蔚州)에 머무르게 하고 양식을 주어 함께 모여 지내게 하셨다. 뜻밖에 그들 스스로 의심을 품고 우리 수신(守臣)을 겁박하여 달아났다. 금년 봄에 다시 와서 항복을 청하자, 임금께서는 그들의 지난 죄를 용서하고 변장(邊將)에게 명하여 예우하게 하셨다. 그 부만호(副萬戶)·삼만호(三萬戶)라고 칭하는 자들은 지금 서울에 있고 집과 의식을 주어 예로 대접하고 있지만, 그 상만호(上萬戶)라는 자는 밀양에 이르자 호궤(犒饋)[수고를 치하하는 음식 대접] 잔치를 더욱 후하게 베풀었고 그가 배로 돌아가기를 청하기에 사람을 보내 호송했는데, 도리어 또 갑자기 의심을 품고 군선(軍船)을 겁박 약탈하고 다시 도망하여 달아났다. ㉔얼마 뒤에 변장이 족하의 글을 올렸으므로, 임금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셔서 지금 전 사재소감(司宰少監) 박인귀(朴仁貴)를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다. 그 ㉕상만호란 자는 이미 우리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또 토주(土主)의 뜻을 저버렸으니, 이는 우리에게만 죄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족하의 죄인이다. 마땅히 익히 이해(利害)를 따져 죄인을 쳐 없애고 화호(和好)를 통하면 매우 다행이겠다.”¹⁶⁾

1396년(태조5) 12월 9일 나가온(羅可溫)·구륙(庾六) 등 5명의 왜구 우두머리가 이끄는 대규모 왜구 집단(이하 “나가온 왜구 집단”)이 조선 조정에 투항하였다. 이들은 12월 말에 울주 지사 이은(李殷)을 사로잡아 대마도로 달아났다. 이듬해 1397년이 되어 조선 조정은 즉시 박인귀를 대마도로 보내 2월 9일 이은을 송환하게 하였다. 3월에도 박인귀는 대마도에 다녀왔고, 4월 1일 나가온은 다시 조선 조정에 투항해 왔다. 4월 6일 나가온은 임금 알현을 위하여 상경길에 올랐으나, 조선 군관이 ‘상만호(上萬戶)’ 등 나머지 항왜를 기습해 토벌하려 하자 이 ‘상만호’ 무리는 다시 대마도로 도주하였다.¹⁷⁾ <사료1>의 서한은 위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16) 『태조실록』 태조 6년 5월 6일 정사. 「朝鮮國門下左政丞趙浚等，寄書日本國對馬島守護李大卿足下。本國與貴邦，隔海相望，素通隣好。自庚寅以來，貴治及一岐兩島無賴之人，相聚爲寇，侵掠邊境，爲害不小。惟我主上卽位，憫念吾民無辜被害，志欲殄滅頑兇，拯濟邊民，命沿海州郡，修葺戰艦，刻日以行。年前寇魁等，到寧海府 丑山島請降，主上嘉其來附，不念舊惡，處以蔚州，給糧完聚。不意自懷疑貳，劫我守臣以走。今年春，又來請降，主上宥其前罪，命邊將待以厚禮。其稱副萬戶、三萬戶者，卽今見在京城，給以第宅衣食，以禮待之。其稱上萬戶者，到密陽，宴犒加厚。彼請還船所，遣人護送，乃又忽生疑貳，劫掠軍船，又復逃走。㉔既而邊將以足下書上聞，主上嘉之，今遣前司宰少監朴仁貴知會。彼㉕上萬戶者，既與我背約，又背土主之意，是不惟稔惡於我，乃足下之罪人也。是宜熟計利害，討除罪人，以通和好，幸甚。」

17) 『태조실록』 태조 5년 12월 9일 계사; 태조 6년 1월 3일 병진; 1월 28일 신사; 2월 9일 임진; 2월 27일 경술; 3월 25일 무인; 4월 1일 계미; 4월 6일 무자; 『세종실록』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송중호,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1396년(태조 5년)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다음인 5월 6일 대마도로 보내진 것으로서, 그 마지막 문장에 대마도로 다시 도주한 ‘상만호’에 대한 처벌을 대마도주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사료1> ㉞문장).

위 <사료1>의 취지에 유의하면서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¹⁸⁾ 이하에서는 <표1>에서 구분한 3개 시기로 나누어 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표1>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 관련 선행연구 (1397~1398년설)

연구자	연도	조선 서한 관련 서술	통교 관계 수립 시기	1398년 통교 내용
(1) 제1기: 1940~1970년대				
高木眞太郎	1942	울주지사를 잡아갔던 일본인에 대한 체포 요청	1397년 5월 무렵 시작	4월 사자 파견, 5월 피로인 송환
田中健夫	1961·1975	반란한 ‘상만호’에 대한 단속 요청	1397년 이후	5월 피로인 송환
田村洋幸	1967	여적(餘賊) 토벌 요청	1397년 5월	1월 조하(朝賀) 참석, 4월 사자 파견
(2) 제2기: 1980~1990년대				
長 節子	1987	해적 금압 요청	1397년 5월 이전	[언급 없음]
나종우	1992	[조선 서한 언급 없이, 항왜의 이은 송환만 언급]	1397년 2월 이은 송환이 계기임.	1월 조하 참석
한문종	1995	군선을 약탈하여 도망간 항왜 ‘상만호’에 대한 처벌 요청	1397년 5월 무렵	1월 조하 참석, 4월 단독 사자 파견
(3) 제3기: 2000년대 이후				
荒木和憲	2006	[언급 없음]	1398년 소 사다시계가 통교 개시	[언급 없음]
木村 拓	2022	왜구 금압 요청	1398년 소 사다시계가 도주가 되었고, 그 이후 통교가 본격화	[언급 없음]

(1) 제1기: 1940~1970년대

1970년대 이전까지로 구분한 제1기에는 다카기 신타로(高木眞太郎)(1942),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1961·1975),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1967) 등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 중 다나카 다케오의 견해(1975)를 아래 <인용문1>을 통해 살펴보자.

<인용문1> ㉞**소씨와 조선 간에 정식 통교관계가 생긴 것은 오에이(応永) 4년(1397) 이후인 듯하다.** 오에이 4년 정월 조선에 있던 왜구가 울주 지주사(蔚州知州事) 이은을 잡아 대마로 도망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2월에 ... 박인귀...를 대마에 파견하여 이은의 송환을 요구했다. 같은해 4월 박인귀는 다시 대마에 이르러, 조선국 문하좌정승 조준 등의 문서를 일본국 대마도 수호 이대경에게 보냈다. ... [<사료1> 인용] ... 당시 대마의 지배자는 소 요리시계(宗頼茂)였다. ... 소 요리시계는 박인귀의 첫 번째 내방에 응하여 오에이 4년 4월 이전에 조선에 서한을 보냈던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그 지난해 12월에 왜선 60척이 투항했[는데.] 그 항왜 중 ㉞**상만호라 했던 자가 반란했으므로 [조선 조정은] 그 단속을 소씨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㉟**이듬해 오에이 5년[1398] 5월 대마에서 피로인 8명과 함께 왜인 9명이 조선에 보내져서, 왜인은 각 주에 분치되었다.**¹⁹⁾

『韓日關係史研究』 78, 2022, 284~287쪽 등 참조.

18) 위 각주 9번 참조.

19) 田中健夫, 앞의 책, 1975, 110~111쪽.

우선 <인용문1>에서 보듯이, 제1기 연구자들은 근거 사료인 <사료1> 조준 서한의 취지를 충실히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 조정이 대마도로 도주한 왜구 ‘상만호’의 처벌을 요구한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㉔문장), 제1기 연구 성과는 일정 부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나카 다케오는 조준 서한의 발송 시기를 근거로 조선-대마도 간 ‘통교’ 수립 시기를 “1397년 이후”라고 추정하였고(㉕문장), 다카기 신타로 및 다무라 히로유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기를 조준 서한이 있었던 1397년 5월로 확정적으로 지목하였다(<표1>). 그러나 조준 서한은 조선 조정이 대마도주에게 ‘상만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였을 뿐이다. 반면 ‘통교(通交)’ 내지 ‘통호(通好)’는 그 사전적 어의(語義)에 모두 ‘사이좋게 교류함’이라는 개념을 내포한다.²⁰⁾ 이러한 ‘통교’의 어의를 고려할 때, 단지 위 조준 서한을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의 직접적 근거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²¹⁾

따라서 제1기 선행연구들은 근거 사료를 충실히 해석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 시기 조선-대마도 간 통교 수립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그 통교 수립에 이르게 된 배경 서술 등 심층적인 고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인다.

(2) 제2기: 1980~1990년대

필자가 1980~1990년대로 구분한 제2기에는 오사 세츠코(1987), 나종우(1992), 한문종(1995) 등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우선 한국의 나종우·한문종은 제1기 연구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관련 사료에 충실한 서술에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나종우는 ‘1397년 2월 박인귀가 대마도에서 이은 등을 송환해 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마도가 1398년 1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서술하였다.²²⁾ 이는 ‘통교’의 어의에 충실하게 관련 사료를 해석하려 한 시도로 보이며, 그 이전보다 한 걸음 진전된 성과로 생각된다. 다만 그 역시 1398년 통교 수립의 배경에 관한 심층 고찰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의 오사 세츠코의 견해는 아래 <인용문2>와 같았다.

<인용문2> ㉔『태조실록』 6년(1397) 5월 정사 조에, 조선에서 ‘대마도 수호 이대경’에게 문서를 보내 해적 금압을 요구한 사실이 보이는데, 이 문서는 그 이전에 대마도에서 보냈던 문서에 대한 답서라는 점에서, 이 시기 이전에 대마도주가 조선에 통교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 도주는 연대로 보아 요리시게일 것이다. ... 대마도주의 조선 통교로서 사료로 알려진 한, ... 조선이 되어서는 최초이다.²³⁾

20) ‘통교’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하여 선행연구에서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었던 듯하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국가나 개인이 서로 사이좋게 지냄’, 일본어 사전에는 ‘서로 사이좋게 하고, 교류를 맺는 것. 흔히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한다.’로 풀이되어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네이버 국어사전); 『デジタル大辞泉』(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互いに仲よくし、交わりを結ぶこと。多く国家間の関係にいう。」。 또한 일본에서는 「通交」와 「通好」라는 한자가 모두 ‘츠우코우(つこう)’로 발음이 같아서, 일본어 사전은 물론 한 일관계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 두 한자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사이좋게’라는 개념이 ‘통교’라는 단어의 뜻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1) 한편 다나카 다케오는 조선-대마도 간 통교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모습으로서, 이듬해인 1398년 5월에 있었던 대마도인의 피로인 송환을 거론하였다(㉕문장). 그의 서술은 해당 사료 내용에 충실하기는 하지만, 이때 대마도인은 대마도주가 조선에 파견한 사자로 보이지는 않는다(『태조실록』 태조 7년 5월 25일 신미 참조). 즉 1398년 5월 피로인 송환 사건은 조선-대마도 간 통교 내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다무라 히로유키는 이 1398년 5월 사료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해 1월 및 4월 대마도 사자의 조선 조정 입조 사실만을 거론하였는데(<표1>), 그것이 적절한 서술이었다고 생각한다.

22) 羅鐘宇, 앞의 논문, 1992, 157쪽.

오사 세츠코는 <사료1> 조준 서한의 취지를 “해적 금압을 요구”한 것이라고 요약하였다 (<인용문2> ㉔문장). 그러나 이는 ‘상만호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였던 조준 서한에 대한 정확한 요약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1>을 특정하여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 설명은 사료 문언에 따르지 않고, ‘왜구 금압을 위하여 조선 조정이 일본 측에 먼저 접촉해 왔다.’는 기존 통설, 즉 ‘조선주도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료1>을 직접 읽은 바 없이 오사 세츠코의 견해에만 접한 독자들은, 조준 서한이 왜구 금압 요청의 취지였고 그에 따라 조선-대마도 간 통교가 성립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요컨대, 제2기의 한국 연구자들은 제1기 선행연구들을 이어받아 일부 진전된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통교 관계 수립 배경의 고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반면 일본의 오사 세츠코의 견해에는 위와 같이 사료 해석에서의 오류가 보인다.

(3) 제3기: 2000년대 이후

필자가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한 제3기에는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2006), 기무라 다쿠(木村 拓)(2022)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우선 아라키 가즈노리는 (필자가 알고 있는 한) 대마도의 조선 통교 수립에 관해서는 상세한 서술을 거의 남기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 논점과 관련하여 필자가 확인한 그의 서술은 <인용문3> 정도이다. 여기에서 그는 예전 연구자들과는 달리 1397년 조준 서한을 인용하지 않고, “1398년에 소 사다시게가 조선통교를 시작”했다고만 간략히 서술하였다.

<인용문3> 1398년에 도주 소 사다시게가 조선통교를 시작했다.²⁴⁾

그러나 <인용문3>은 그의 다른 논문에서 “사다시게의 조선통교는 1399년 7월부터 1418년 3월까지 약 19년 간에 총 77회가 검출된다.”²⁵⁾라고 한 서술과 시작 연도에 차이가 있다. 또한 실제 사료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대마도가 조선 조정에 최초로 입조한 것은 1398년 1월과 4월이었고, 소 사다시게가 대마도주가 된 것은 1398년 5월부터 11월 사이였기 때문이다.²⁶⁾ 즉 1398년 초에 조선에 사자를 보낸 사람은 전임 도주 소 요리시게(宗 頼茂)였고, 소 사다시게는 아니었다. 요컨대 <인용문3>은 1397년 조준 서한 및 1398년 초의 실제 통교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료 문언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무라 다쿠의 견해를 아래 <인용문4>를 통해 살펴 보자.

<인용문4> ㉔조선왕조는 1397년 왜구 소굴로 지목된 대마도주 소 요리시게에 대하여 최초로 서간을 보내, 왜구 금압을 요청했다. 대마에서는 ㉑그 이듬해 소 사다시게가 정변을 일으켜 도주가 되었는데, 사다시게는 대마도 지배 강화를 위하여, 조선측 왜구 금압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조선과의 통교관계를 구축해 갔다.²⁷⁾

23) 長 節子, 앞의 책, 1987, 43~44쪽.

24) 佐伯弘次·松尾弘毅·荒木和憲, 앞의 논문, 2006, 137쪽 (荒木和憲 저술 부분).

25) 荒木和憲, 앞의 책, 2007, 29쪽.

26) 長 節子, 앞의 책, 1987, 43, 44쪽;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43쪽 등 참조. 오사 세츠코는 “오에이(応永) 5년(1398) 12월부터 이듬해에 걸쳐서 ... 이 무렵 그가 도주에 취임했던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長 節子, 앞의 책, 1987, 44쪽).

27) 木村 拓, 앞의 논문, 2022, 37쪽.

기무라 다쿠는 <인용문4>에서 1397년 조준 서한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취지를 단순히 '왜구 금압 요청'이라고만 했다(㉔문장). 앞서 제2기의 오사 세츠코와 마찬가지로, 사료 내용을 정확히 서술하지 않고 기존 통설인 조선주도설만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398년 조선-대마도 간 통교 내용에 대해서도 서술하지 않은 채 바로 소 사다시게의 통교 관계 구축에 관해서만 서술함으로써(㉕문장), 앞서 검토했던 1399년설과 비슷한 서술이 되었다. 아라키 가즈노리와 마찬가지로, 소 사다시게 집권 이전의 조선-대마도 통교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보인다.

아라키 가즈노리와 기무라 다쿠는 오늘날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일본 연구자의 대표적 면면이다. 그런데 조선-대마도 통교 수립에 관한 이들의 서술은 예전 선행연구들이 다루어 왔던 1397~1398년의 사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거시적 시각에서의 기존 통설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서술만으로는 조선-대마도 통교 수립이라는 사건의 동기, 배경, 과정, 중요성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토대를 제대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제에 관한 한, 앞서 선행연구들의 성과에서 오히려 뒷걸음친 면도 없지 않다. 앞으로 관련 연구자들의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연구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1397~1398년 무렵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수립된 배경 및 과정에 관하여,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III.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의 배경

1. 이마가와 료순 체제 하의 대마도²⁸⁾

일찍이 고려 조정과 대마도 간에는 12세기 후반 무렵부터 진봉(進奉) 관계가 성립해 있었다. 이 통교 관계는 1274년(원종15)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으로 중단되었다가, 1368년(공민왕17) 다시 이어진다. 1368년 통교 관계는, 고려 조정이 대마도주에게 쌀 1천 석을 지급하고 대마도주는 그 대가로 왜구 금압 활동을 이행한다는 쌍무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²⁹⁾ 그러나 이 역시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듬해 1369년(공민왕18) 초에 단절되었다. 이때부터 1397년(태조6)까지 약 30년 동안 고려·조선 조정과 대마도 간에는 통교 관계가 없는 통교 공백기 상태가 이어진다.

고려·조선-대마도 간 통교 공백기 대부분 동안, 일본 측에서 고려·조선과의 통교 관계를 실질적으로 독점한 세력은 당시 규슈 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었다. 1370년대 일본 막부는 '명과의 국교 수립, 규슈 남조 토벌, 왜구 금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성취해야 했다. 그리고 이 세 과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과제였다.³⁰⁾ 이를 위하여 일본 막

28) 본 제1절의 내용은 송종호, 앞의 논문, 2023b, 51~90쪽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9) 中村榮孝, 앞의 책, 1965, 145쪽; 田中健夫, 앞의 책, 1961, 27쪽; 田村洋幸, 앞의 책, 1967, 172쪽; 孫弘烈, 앞의 논문, 1978, 116쪽; 申基碩, 「韓日通交와 對馬島」 『國際政治論叢』 26(1), 1986, 109쪽; 陳鍾根, 「朝鮮朝初期의 對日關係—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石堂論叢』 15, 1989, 337쪽; 韓文鍾, 「朝鮮前期 對日 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32쪽;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2008, 82쪽 등 참조.

30) 川添昭二, 「九州探題今川了俊の対外交渉」 『対外關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163쪽 (初出 (1982),

부가 규슈 현지에 파견했던 사람이 이마가와 료순이다.³¹⁾ 실제로 그는 규슈 남조 토벌과 왜구 금압에 힘을 쏟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과 고려·조선 간 외교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마가와 료순은 이러한 자신의 역할 및 위상을 활용하여 일본 여타 세력들이 고려와 직접 통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³²⁾ 대마도는 료순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이었으므로, 그는 대마도가 고려·조선 조정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그 대신 고려·조선과 대마도 간에 현안이 있는 경우, 그가 직접 일본 막부의 '왜구 금압' 의지를 고려·조선 조정에 일관되게 전달하였다. 그 일례로서 1389년(창왕원) 고려 박위의 정벌군이 대마도를 공격한 때에는, 대마도는 물론, 이마가와 료순도 고려에 아무런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료순은 1391년(공양왕3) 고려 조정에 피로인 68명을 돌려보내면서, “제가 도리어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분한 마음이 있어 여러 섬에 사신을 보내 해적을 붙잡아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규슈 여러 도서 지방에서의 왜구 소탕 실적을 고려 조정에 보고한 바 있다.³³⁾

한편 조선은 1389년 대마도 정벌 이후에도 대마도·이키에 대한 재차 정벌 의지를 늦추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 건국 후 1394년(태조3), 1395년(태조4), 1396년(태조5) 등 거의 해마다 실제로 정벌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였다. 그때마다 료순은 적극적으로 왜구 금압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조선의 정벌 시도를 막곤 했다.³⁴⁾

이렇게 대마도가 이마가와 료순의 영향력 아래 있던 기간 동안, 대마도 지배층은 그의 지시에 따라 왜구 활동을 내부적으로 통제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북규슈 지역에서의 영지 경영 등 경제적 지원³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1392년 일본에서 남북조 합일, 한반도에서 조선 건국이라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무렵 전후로는, 수년 동안 대규모 왜구 집단의 침구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³⁶⁾ 이에 이마가와 료순도 1395년(태조4) 7월 조선 조정에 대하여

今川了俊の対外交渉, 九州史学 75); 村井章介, 「日明交渉史の序幕—幕府最初の遣使にいたるまで—」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267~268쪽; 이영, 「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6, 2010, 199~201, 223~224쪽 (재게재; 『한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등 참조.

31) 이영, 「우왕 원년(1375) 나흥유의 일본 사행 당시의 규슈 정세와 규슈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왜구 대응의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60, 2020, 385~386쪽; 이영, 「고려 우왕 원(1375) 나흥유의 일본 사행과 미즈시마의 변(水島の變)—규슈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왜구 대응」 『일본역사연구』 52, 2020, 39쪽 등 참조. 이영의 연구 이전에, 가와조에 쇼지(1996)가 이마가와 료순의 외교교섭, 남조토벌, 왜구금압 활동을 연결 지어 서술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川添昭二,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 앞의 책, 1996, 85~86쪽 (初出: 『福岡大学総合研究所報』 147·156, 1992·1994) 참조).

32) 이마가와 료순은 1395년(태조4) 윤7월 막부에 의하여 교토로 소환되어 실각한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까지 료순에 의하여 독점되던 조선-일본 간 통교는 통교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다(羅鐘宇, 앞의 논문, 1992, 145쪽; 須田牧子, 앞의 책, 2011, 52쪽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료순의 규슈 단다이 재임 시 여타 세력들의 고려·조선 통교가 곤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다 마키코(2011) 역시 이 사건이 조선-일본 관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 바 있다(위의 책, 52쪽 참조).

33) 『고려사』 권137, 열전 권50, 창왕 원년 2월; 권116, 열전 권29, 제신, 박위; 권46, 공양왕 3년 8월 9일 계해; 송종호, 앞의 논문, 2023b, 86쪽 등 참조.

34) 『태조실록』 태조 3년 10월 11일 정축;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 태조 5년 6월 1일 정해; 12월 3일 정해; 송종호, 앞의 논문, 2024, 58~60쪽 등 참조. 료순은 1395년 윤7월 교토로 소환되어 부재 상태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조선 조정의 대마도 정벌 시도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396년 12월 조선의 이키·대마도 정벌 시도는 실제 착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5) 예컨대, 松尾大輝, 「南北朝期宗氏による対馬支配と少武氏」 『古文書研究』 92, 2021, 31~32쪽 등 참조.

36) 1388년(우왕14) 5월 왜선 80여 척이 진포에 침구한 이후(『고려사』 권137, 열전 권50, 우왕 14년 5월), 대규모 왜구의 침입은 보이지 않는다. 1389년(창왕1) 2월 박위의 대마도 정벌 후 『고려사』 기록상으로는 침구한 왜구 대부분을 고려군이 격퇴하거나 포획하고 있다(『고려사』 권137, 열전 권50, 창왕 1년 4월; 6월; 7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여, 도적의 무리가 열 중 여덟, 아홉은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³⁷⁾ 이 시기 왜구 활동 감소 현상을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은 조선의 적극적인 정벌 정책이었지만, 당시 료순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도 이러한 현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 료순 실각 이후 대마도의 정책 전환

가. 대마도 대외 정책의 두 갈래 방향

이마가와 료순은 1395년(태조4) 윤7월 막부에 의하여 교토로 소환되어 실각하였다. 이듬해 1396년(태조5) 3월에는 그를 대신하여 시부카와 미츠요리(渋川満頼)가 새로운 규슈 단다이로 규슈에 부임하였다. 대마도 지배층도 1396년 초에 이르러서는 료순의 복귀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마도는 조선과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첫째는 조선과의 직접 통교를 재개하는 방안이다. 이마가와 료순의 부재는 대마도 입장에서 조선과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였다. 이는 단순히 조선-대마도 간 통교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위 제1절에서 보았듯이, 이 시기 조선은 왜구 근거지로 파악된 대마도·이키에 거의 해마다 정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를 막아 줄 든든한 중개자가 없어진 것이다. 실제로 1396년 12월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이 출정한 일은 료순의 부재가 대마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따라서 대마도로서는 조선의 정벌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선과의 직접 통교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이다. 대마도로서는 왜구 활동을 통하여 고려 말에서와 같은 경제적 이득도 기대하였을 것이지만, 또 다른 경제적 필요성도 있었다. 신임 단다이 시부카와 미츠요리는, 규슈 치쿠젠(筑前; 후쿠오카 현에서 그 서부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 지역에서 대마도 지배층이 섬기고 있던 쇼니씨(少弐氏)와 결합하고 있었다. 이 체제 아래에서 쇼니씨와 대마도 지배층은, 치쿠젠 지역에서 이마가와 료순이 대마도에 부여했던 경제적 이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임 단다이가 규슈에 부임한 1396년에, 쇼니씨 등은 이에 맞서 군사를 일으켰고 치쿠젠 등 북규슈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때 쇼니씨의 주력 부대는 대마도 군세였다.³⁸⁾

따라서 대마도로서는, 치쿠젠 지역에서 상실하게 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는 것 이외에도 북규슈에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필요에서 대마도는 그동안 자제해 왔던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을 재개할 유혹에 놓였을 것이다. 더욱이 그 이전까지 왜구 활동을 통제하던 이마가와 료순이 사라졌으므로, 왜구 활동 재개를 가로막던 정치적 장애물도 없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과의 통교 재개라는 선택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

월: 9월; 11월; 권45, 공양왕 1년 12월 19일 계축; 공양왕 2년 윤4월 1일 계해; 6월 19일 경진; 8월 11일 경오; 권46, 공양왕 3년 9월 1일 을유; 공양왕 4년 2월 26일 정축; 3월 21일 임인 등 참조). 또한 조선 건국 이후 1396년까지는, 1393년(태조2) 4월 왜선 30여 척이 양광도에 나타난 일(『태조실록』 태조 2년 4월 20일 갑오)을 제외하고는, 왜선 10척 미만의 소규모 침구만이 보인다. 이후에도 1396년(태조5) 8월 왜선 120척 규모의 침구(『태조실록』 태조 5년 8월 9일 갑오)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침구 양상이 이어진다.

37) 『태조실록』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

38) 本田美穂, 「室町時代における少弐氏の動向一貞頼 満貞期一」 『九州史学』 91, 1988, 29쪽;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43쪽 등 참조.

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마가와 료순이 사라진 뒤 대마도는, 조선과의 직접 통교 수립과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 재개라는 상충된 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대규모 왜구 활동의 좌절

1396년 대마도가 위 두 가지 방안 중 먼저 선택한 것은 한반도로의 대규모 왜구 활동 재개였다. 그해 8월 초부터 왜선 120척 규모의 왜구 집단이 약 4개월 동안 한반도 동해안 남부 해역을 누비며 침구 활동을 벌였다.³⁹⁾ 이 왜구 집단이 바로, 앞서 제2장 제3절에서 언급되었던 나가온 왜구 집단이었다. 그 규모는 조선초 왜구 활동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것이었다. 그래서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는 이 왜구를 “규모가 큰 점에서 보아도 그 후 조선초 왜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 성격적으로는 고려 말 왜구의 계보를 잇는 것”⁴⁰⁾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다.

이 왜구 집단을 이끈 5명의 최고위 우두머리에 관해 『태조실록』은 이들을 “상만호”와 “부만호”로 기록하고 있다(위 <사료1>). 앞서 제2장 제3절에서 본 나가온이 바로 이 ‘부만호’에 해당한다.⁴¹⁾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이 ‘상만호’는 1398년 말에 새로 대마도주가 되는 소사다시게로,⁴²⁾ ‘부만호’(나가온)는 1420년 전후 무렵 대마도주에 비견되는 위상⁴³⁾을 갖게 되는 소다 사에몬타로(早田左衛門大郎)로,⁴⁴⁾ 각기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이 시기 대규모 왜구 집단은 대마도 소씨 종가(宗家) 측이 이끈 집단이었던 셈이다.

1396년 나가온 왜구 집단 침구 당시 대마도주는, 소씨 방계인 니이 나카무라 소씨(仁位中村宗氏) 출신의 소 요리시게⁴⁵⁾였다. 니이 소씨 역시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 재개 방안에 관해서 소씨 종가와 입장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⁴⁶⁾ 대마도 지배층은 이 1396년 하반기 대규

39) 『태조실록』 태조 5년 8월 9일 갑오; 8월 18일 계묘; 8월 23일 무신; 8월 26일 신해; 10월 23일 정미; 10월 27일 신해; 11월 2일 병진; 11월 5일 기미; 11월 9일 계해; 11월 13일 정묘; 11월 17일 신미; 12월 9일 계사, 송종호, 앞의 논문, 2022, 255~256쪽 등 참조.

40) 田村洋幸, 「倭寇時代における倭寇について」, 앞의 책, 1967, 65쪽.

41) 田村洋幸, 「倭寇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 앞의 책, 1967, 105쪽 (初出: 「鮮初倭寇の系譜について」 『朝鮮學報』 23, 1962); 송종호, 앞의 논문, 2022, 288쪽; 조혜란, 「태조5(1396)년에 침구한 왜구 두목 상만호의 정체에 관한 고찰」 『韓日關係史研究』 88, 2025, 11쪽 등 참조. 한편 하륜(河崙)의 「증이부사시서(贈李府使詩序)」에서는 나가온을 「第二者」로 불렀다(『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윤성익, 「하륜(河崙)의 「이 부사에게 준 시의 서문(贈李府使詩序)」-「나가온 왜구 집단」에 대한 오해와 정정-」 『韓日關係史研究』 80, 2023, 82쪽).

42) 조혜란, 앞의 논문, 2025, 3~31쪽 참조. 또한 ‘상만호’는 『세종실록』 이에 졸기(『세종실록』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에 나타나는 나가온 왜구 집단의 최고위자 비구로고(非舊老古)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이근우(2015) 역시 비구로고가 소 사다시게 또는 소 요리시게라고 본 바 있다(이근우, 「『海東諸國紀』의 지리정보와 李藝」 『韓日關係史研究』 51, 2015, 54쪽). 정영현(2025)은 이 논제에 관련된 학설들을 검토하면서 이근우의 견해 중 소 요리시게 설을 부정하면서도, 소 사다시게 설에 대한 공감 여부에 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정영현, 「13·14세기 對馬의 재지세력과 왜구」 『역사와 경계』 133, 2025, 33쪽 참조).

43) 田村洋幸, 앞의 책, 1967, 227~238쪽; 韓文鍾, 앞의 논문, 1995, 152쪽;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早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226쪽 등 참조.

44) 田村洋幸, 앞의 책, 1967, 224, 226쪽; 佐伯弘次, 『對馬と海峡の中世史』, 山川出版社, 2008, 61쪽; 松尾弘毅, 앞의 논문, 2009, 290쪽;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010, 39쪽; 정영현, 앞의 논문, 2018, 222쪽 등 참조. 한편 위 소다 사에몬타로 설에 대하여 한문종(1995, 2000 등)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윤성익(2023)은 반대하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韓文鍾, 앞의 논문, 1995, 151~156쪽; 한문종,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對朝鮮通交」 『韓日關係史研究』 12, 2000, 66~87쪽; 윤성익, 앞의 논문, 2023, 86~87쪽 등 참조).

45) <사료1>에서는 “대마도 수호 이대경”으로 언급되었다.

모 왜구 활동을 시작으로 삼아, 이마가와 료슌이 사라진 이후 대마도 경제를 유지할 방도로서 과거 고려 말과 같은 왜구 활동을 재개하고 지속해 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은 그해 12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을 출진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대마도로서는 불과 7년 전인 1389년 박위의 정벌 당시의 뼈아픈 경험이 생생하였고, 조선의 대마도 본토 정벌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12월 9일 ‘상만호’·‘부만호’가 조선 조정에 다급하게 투항한 데에는 이러한 대마도 지배층의 우려가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⁴⁷⁾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마도는, 조선 조정이 적극적인 정벌 정책을 구사하는 한 고려 말과 같은 대규모 왜구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 이후로는 나가는 왜구 집단에 필적할 만한 대규모 왜구 활동은 상당 기간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대마도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조선과의 통교 관계 수립 방안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3. 통교 관계 수립을 위한 대마도의 노력

가. 조선의 대마도 압박

앞서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했듯이, 1396년 12월 조선 조정에 일시 투항했던 항왜들은 바로 그달 말 무렵 울주지사 이은을 사로잡아 대마도로 도망쳤다. 조선 조정은 이듬해 2월부터 박인귀(朴仁貴)를 세 차례에 걸쳐 대마도로 보내 도주한 항왜 우두머리들의 송환 및 처벌을 촉구하였다.

우선 2월 초 박인귀가 처음으로 대마도에 갔을 때 대마도는 즉각 울주지사 이은을 송환하였다. 3월 25일 그의 대마도 제2차 사행 때에는 귀국길에 왜선 10척이 함께 투항해 왔다. 이어 4월 1일에는 그 전해 12월에 도주했던 항왜 중 첫째 및 둘째 우두머리⁴⁸⁾였던 ‘상만호’와 ‘부만호’(나가는)가 왜선 24척과 함께 다시 항복해 왔다.⁴⁹⁾ 그런데 조선 조정이 재투항한 항왜들을 습격하려 하자, ‘상만호’ 무리는 이를 피하여 다시 대마도로 도주하였다.⁵⁰⁾ 이에 분노한 조선 조정은 5월 6일 박인귀의 대마도 제3차 사행 때 조준 서한을 통해 ‘상만호’에 대한 엄벌을 대마도에 다시 촉구하였다(<사료1>).

대마도주 측은 조선 조정의 요구에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선의 재정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조선과의 통교 재개를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목적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상만호’는 장차 대마도의 차기 도주가 되는 소 사다시게, 또는 그에 준하는 대마도 최고위층 인사⁵¹⁾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벌 조치 요구까지 받아들

46) 정영현(2025)도 소씨 종가 및 방계 모두 왜구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정영현, 앞의 논문, 2025, 21쪽 참조).

47) 이규철, 앞의 논문, 2009, 425~426쪽; 송종호, 앞의 논문, 2022, 267~282쪽 참조.

48) 「贈李府使詩序」에서는 각기 「第一者」, 「第二者」로 지칭했다(『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송종호, 앞의 논문, 2022, 283, 289쪽; 윤성익, 앞의 논문, 2023, 82~83쪽 참조).

49) 『태조실록』 태조 6년 3월 25일 무인; 4월 1일 계미; 5월 6일 정사; 송종호, 앞의 논문, 2022, 288쪽 등 참조.

50) 『태조실록』 태조 6년 4월 6일 무자; 5월 18일 기사; 송종호, 앞의 논문, 2022, 288쪽; 송종호,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0, 2023a, 52~56쪽 등 참조.

51) 위 각주 42번 참조. “상만호”는 소 사다시게라는 견해를 따르지 않더라도, ① ‘상만호’가 ‘부만호’였던 나가는의 상급자였다는 점, ② ‘부만호’ 나가온이 1418년 대마도주로 취임하는 소 사다모리 체제의 핵심 인물

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대마도가 조선 조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아가 통교 관계 수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대마도의 선제적 왜구 통제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도가 시행한 조치는, 대마도 지역 내 왜구 활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을 조선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1398년 전후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 양상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살펴보자. 우선 왜구 활동의 연도별 빈도는 <표2>와 같다.⁵²⁾

<표2>에 보듯이, 조선-대마도 통교 관계가 시작되는 1398년을 기점으로 하여, 1400년까지 3개 연도 동안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이 그 전후 기간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400년(정종2) 5월 17일 좌빈객 이서(李舒)가 “2년 동안 왜구가 조금 잠잠하고 변경이 이제 막 안정”⁵³⁾되었다고 말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한 현상인지, 아니면 대마도 등 왜구 근거지 지역 지배층의 의도적인 통제 조치에 의한 것인지를, 그 시기 왜구 활동 양상(<표3>)을 통해 살펴보자.

<표2> 조선-대마도 통교 수립 전후 무렵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의 연도별 빈도

연도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태조1	태조2	태조3	태조4	태조5	태조6	태조7	정종1	정종2	태종1	태종2	태종3	태종4
빈도	2	12	14	6	14	12	0	4	0	5	5	9	7

<표3> 조선-대마도 통교 수립 전후 무렵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 양상

연도	횟수	월	횟수	침구 일자(실록에 기록된 왜선 수, 침구 지역)	
1395	태조4	6	3월	1	9일(2척, 경상도 견내량)
			4월	1	27일(충청도 창포)
			7월	1	8일(1척, 경상도)
			8월	2	9일(경상도 부성포), 27일(1척, 전라도)
			윤9월	1	3일(강원도 삼척부)
1396	태조5	14	2월	1	13일(1척, 황해도)
			6월	2	15일(전라도), 18일(1척, 경상도 동래)
			7월	1	24일(2척, 전라도 추차도)
			8월	5	9일(120척, 경상도 동래, 기장, 동평성), 18일(통양포), 23일(영해성)
			10월	1	27일(경상도 동래)
		11월	4	2일(경상도 장기), 5일(평해성), 13일(영해), 17일(울진)	
1397	태조6	12	5월	5	14일(황해도 해주), 15일(웅진), 22일(평안도 선주), 27일(용주), 29일(황해도 장연)

인 소다 사에몬타로였다는 점 등에서, ‘상만호’는 대마도주에 견줄 만한 최고위층 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2) 송종호,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9쪽.

53) 『정종실록』 정종 2년 5월 17일 신사. 「二年以來, 倭寇稍息, 邊境甫安 ...」

			6월	4	2일(1척, 전라도), 5일(평안도 용강현), 18일(24척, 안주도), 27일(황해도 장산곶)
			8월	2	5일(황해도 남포), 14일(평안도 용주)
			9월	1	4일(1척, 경기우도)
1398	태조7	0	-	-	-
1399	정종1	4	9월	2	10일(평안도 선주, 박주)
			10월	2	1일(황해도 웅진), 19일(풍주 서촌)
1400	정종2	0	-	-	-
1401	태종1	5	윤3월	2	7일(1척, 경상도 견내량), 11일(경기도 남양부)
			6월	1	5일(4척, 충청도 고만량)
			7월	1	8일(9척, 전라도)
			11월	1	1일(1척, 경상도 고성현)
1402	태종2	5	1월	1	28일(경상도 부산포)
			2월	1	27일(4척, 경기도 남양 선좌도)
			6월	1	3일(전라도 영선)
			10월	1	14일(2척, 충청도 흥덕)
			11월	1	10일(전라도)

<표3>에서 시기 순으로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1396년 7월 무렵까지는 한반도 남부 3면 해안에서 모두 왜구 활동이 보이는데, 대개 왜선 10척 미만의 작은 규모였다. 즉 대마도 등 지역에서 지배층의 관여가 적은 토착민들의 산발적인 침구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396년 8월 왜선 120척 규모의 대규모 왜구 집단이 경상도 동해안 지역을 휩쓸었는데, 이것이 대마도 최상위 지배층이 이끈 나가온 왜구 집단이었다. 이들은 그해 12월 9일 조선 조정에게 급히 투항하였는데, 그 이후 1397년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왜구 활동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 6개월의 기간이 바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재투항 및 조선 조정의 대마도 압박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1397년 5월부터 1400년 말까지의 기간에는 <표2>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왜구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1398년 1월과 4월 대마도의 사자가 조선 조정에게 입조한 일, 1399년(정종1) 7월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 조선 조정에게 서계를 보내온 일 등을 고려하면, 이 시기 왜구 활동의 감소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시기 왜구 활동 지역에 관해서 보면, 그 이전 기간까지 집중되었던 한반도 남부에서의 왜구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 대신 그 지역이 거의 모두 황해도와 평안도로 옮겨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마도와 가장 먼 서해안 북부 지역에서 왜구 기록이 보이는 이유는, 1399년 11월 투항한 등시라로(藤時羅老) 왜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이들이 '원래 명나라 연해 지방을 침략한 후에 조선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이르렀던 것'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⁵⁴⁾ 즉 1398년 대마도가 조선에 처음 입조한 무렵부터 약 3년 동안, 대마도 등 지역을 근거로 한 왜구 세력은 한반도 연안 지역에 대한 침구를 자제하고, 그 대신 한반도 남부 연안을 돌아 중국 동해안 지역으로 가서 침구 활동을 벌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⁵⁾

54) 『정종실록』 정종 1년 11월 8일 갑술.

55) 田中健夫, 앞의 책, 1959, 16~17쪽; 이규철, 앞의 논문, 2009, 432~433쪽; 윤성익, 「明初(洪武~永樂期)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倭寇」 『明清史研究』 35, 2011, 89~90, 104쪽 등 참조.

셋째, 1401년 윤3월부터는 왜구 활동이 소규모 형태나마 한반도 남부 해안 전역에서 거의 동시에 다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까지 대마도 등 왜구 근거지 지역의 지배층이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을 통제해 오다가, 이 시기 무렵 그 통제 조치가 느슨해지거나 중지된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대마도 지역의 경우 1397년 이래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가 (그 이전 도주 소 요리시게에 이어서) 계속 북규슈에서 쇼니씨와 함께 규슈 단다이·오우치씨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① 1401년 9월 시점에서만 보아도 대마도 섬 자체의 통치권이 도주 소 사다시게와 그 아버지 레이칸(靈監)으로 나뉘어 있었고, ② 1401년 겨울에는 니이 나카무라 소씨 측인 소 요시시게(宗賀茂)가 대마도주 측에 대항하여 봉기하였으며, ③ 소 요리시게 타도 직후인 1402년에는 소 고로(宗五郎)·소 구로(宗九郎)가 또 반란을 일으켰다.⁵⁶⁾ 이처럼 당시 대마도는 일종의 '권력의 공동(空洞) 상태'⁵⁷⁾에 있었으며, 이러한 복잡한 난맥상이 한반도에의 왜구 활동 통제 이완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위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396년 7월까지: 대마도 토착민에 의한 한반도 남부에서의 소규모 왜구 활동
- ② 1396년 8월~12월초: 120척 규모의 나가온 왜구 집단(대마도 지배층)의 침구 및 투항
- ③ 1396년 12월~1397년 4월: 조선 조정의 대마도 압박과 왜구 활동 소멸
- ④ 1397년 5월~1400년 말: 한반도로의 왜구 급감 및 중국으로의 침구 지역 이동
- ⑤ 1401년 이후: 대마도 토착민에 의한 한반도 남부에서의 소규모 왜구 활동 재개

조선초 왜구 활동의 전형적인 모습은 위 ①·⑤번 시기와 같이, 대마도 토착민에 의한 소규모 침구였다. 그러나 위 ②~④번 시기에는 나가온 왜구 집단의 침구와 투항, 한반도 왜구 활동의 급감, 중국으로의 침구 지역 이동 등 특이한 현상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모두 대마도 지배층이 개입하여 주도하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위와 같은 점들로 볼 때, 1397년 초부터 1400년 말까지 이어진 한반도에의 왜구 활동 감소 현상은 대마도 지배층의 의도적인 왜구 활동 통제 조치에 근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마도 측의 왜구 통제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에 주목해 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또 하나 찾을 수 있다. 대마도가 조선 조정에 처음 사자를 보내 입조한 것은 1398년 1월 1일로서, 이는 대마도 측의 왜구 통제 조치가 시작된 1397년 초 이후의 일이다. 또한 조선 조정이 대마도 사자에게 무슨 명목이든지 곡물을 지급한 것은 그보다 뒤인 1401년부터였다.⁵⁸⁾ 사건 순서의 흐름으로 볼 때, 대마도는 조선과의 통교 수립과 경제적 이득 확보라는 목적으로, 통교 수립 이전에 선제적으로 왜구 통제 조치를 실시했던 것이다. 조선-대마도 간 통교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살펴볼 때, 기존 통설인 '조선주도설'에 재검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1395년 이마가와 료순의 실각 이후 대마도는, ① 조선 조정과 통교 관계를 수립하는 방안과 ② 고려 말처럼 한반도에서 대규모 왜구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56) 長 節子, 앞의 책, 1987, 100~103쪽;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45~46쪽 등 참조.

57) 荒木和憲, 앞의 책, 2017, 45쪽 등 참조.

58) 『태종실록』 태종 1년 10월 1일 병진: 송중호, 「조선 태종대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과 '태종 7년 통교 체제'의 수립 배경 및 성과」 『韓日關係史研究』 89, 2025, 75쪽 참조.

갖고 있었다. 이 중 대마도는 그 최상위 지배층이 지휘하는 대규모 왜구 활동을 먼저 실행에 옮겼지만, 이는 새로 건국된 조선의 적극적 정벌 정책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대마도로서는 조선과의 통교 관계 수립 외에 다른 방안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왜구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조선 조정이 기꺼이 통교 상대로 받아들여주기 위해서는, 대마도가 먼저 변모된 자세를 보여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대마도 지배층은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실제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능력⁵⁹⁾을 조선 조정에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마도는 조선 조정에 자신들의 왜구 통제 능력을 수년간에 걸쳐 실제로 보여주었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는 1398년 1월 1일 대마도 사자가 처음 조선 조정에 입조한 이래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다.

IV. 맺 음 말

1398년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이라는 논제는 조선시대 조선-일본 관계 연구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후 수백 년간 지속된 양국 관계의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통교 관계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작업은 학술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관하여 기존 통설은 조선초 조정이 왜구 금압을 위하여 일본의 여러 세력을 회유하고 접촉하려 했다는 '조선주도설'의 논리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수립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과 대마도라는 구체적인 양자 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거시적 관점에서만 도출된 것으로서, 그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이 생긴다. 특히 대마도가 당시 처했던 여러 환경, 조선 통교에의 동기·목적 등은 기존 통설의 고찰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14세기 말 대마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외교 등 제반 환경 속에서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에 관한 선행연구의 변화 양상을 검토한 결과, 일본 연구자들은 근래에 올수록 핵심 사료인 1397년 5월 조준 서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그 대신 '조선주도설'에만 치중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는 기존 통설인 '조선주도설'을 비판 없이 답습함으로써 조선-대마도 통교 수립 배경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은 '왜구 금압'이라는 조선 측 동기보다는, 대마도 측의 절박한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395년 이마가와 료순의 실각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변동이 일어난 후, 대마도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책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즉 조선과의 직접 통교를 추진하는 방안과, 고려 말과 같은 대규모 왜구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이었다. 대마도는 먼저 1396년 하반기에 대규모 왜구 활동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조선의 적극적 정벌 정책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대마도로서는 당면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확보와 조선으로부터의 정벌 위협 제거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과의 통교 관계 수립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조선과의 통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대마도 지배층이 1397년부터 1400년까지 한

59) 시기가 다르지만, 『세종실록』 세종 21년 3월 15일 계해; 田村洋幸, 「峽岐・松浦地方の対鮮貿易」, 앞의 책, 1967, 317~318쪽 등도 참고하시오.

반도에의 왜구 활동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그 시기 전후 한반도에의 왜구 활동 전개 양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또한 이러한 대마도의 왜구 통제 조치가 조선 조정과의 통교 수립 및 곡물 지급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즉 기존 통설인 ‘조선주도설’이 조선-대마도 간 통교 수립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론으로부터 기존 통설과 같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서일본 각 세력이 당면했던 정치·경제·외교 각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할 때, 그 시기 조선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 수립이라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대마도가 당시 당면했던 구체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결과였다.

향후로는 대마도 이외에 일본 막부, 규슈 단다이, 오우치씨, 이키, 히젠(肥前) 등 각 지역 세력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각 세력이 처한 고유한 정치·경제적 환경과 조선과의 관계 수립 과정을 면밀하게 밝히는 작업이 쌓여간다면, 조선 전기 대일 관계의 전모를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사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세종실록』)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연구서·개설서>

荒木和憲, 『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荒木和憲,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

長 節子, 『中世日朝関係と対馬』, 吉川弘文館, 1987.

長 節子, 『中世国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2002.

川添昭二,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佐伯弘次, 『対馬と海峡の中世史』, 山川出版社, 2008.

佐伯弘次, 『조선 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2010.

幣原 坦, 『日韓關係よりの對州研究』, 廣島高等師範學校地理歴史學會, 1913.

菅沼貞風, 『大日本商業史』, 東邦協會, 1892.

須田牧子, 『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関 周一,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高木眞太郎, 『應永外寇の前後—中世の日鮮交渉—』, 八木書店, 1942.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

田中健夫, 『中世対外関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75.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中村栄孝, 『日鮮関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村井章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연구논문>

- 羅鐘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010.
- 손승철, 「중근세 한일관계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2, 2005.
- 孫弘烈,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역사와 담론』 6, 1978.
- 송종호,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송종호,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1396년(태조 5년)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8, 2022.
- 송종호,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0, 2023a.
- 송종호, 「고려 말-조선초 대마도와의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82, 2023b.
- 송종호,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藤時羅老) 왜구 집단의 투항과 오에이(庇永)의 난—왜구 투항에 관한 '조선 조정의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韓日關係史研究』 84, 2024.
- 송종호, 「조선 태종대 대마도에 대한 곡물 지급과 '태종 7년 통교 체제'의 수립 배경 및 성과」 『韓日關係史研究』 89, 2025.
- 申基碩, 「韓日通交와 對馬島」 『國際政治論叢』 26(1), 1986.
- 윤성익, 「明初(洪武~永樂期)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倭寇」 『明清史研究』 35, 2011.
- 윤성익, 「하륜(河崙)의 「이 부사에게 준 시의 서문(贈李府使詩序)」—'나가온 왜구 집단'에 대한 오해와 정정—」 『韓日關係史研究』 80, 2023.
- 윤승희, 「15세기 대마도 물품 수여에 담긴 조선의 의도」 『한국학논총』 63, 2025.
- 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2009.
- 이근우, 「『海東諸國紀』의 지리정보와 李藝」 『韓日關係史研究』 51, 2015.
- 이령, 「고려 우왕 원(1375) 나흥유의 일본 사행과 미즈시마의 변(水島の變)—규슈탐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왜구 대응」 『일본역사연구』 52, 2020.
-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2008.
- 이영, 「동 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6, 2010 (재계재; 『항국사관과 고려 말 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이영, 「우왕 원년(1375) 나흥유의 일본 사행 당시의 규슈 정세와 규슈탐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왜구 대응의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60, 2020.
- 李鉉淙, 「朝鮮初期 向化倭人考」 『歷史教育』 4, 1959.
-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埴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 정영현, 「13·14세기 對馬의 재지세력과 왜구」 『역사와 경계』 133, 2025.
- 조혜란, 「태조5(1396)년에 침구한 왜구 두목 상만호의 정체에 관한 고찰」 『韓日關係史研究』 88, 2025.
- 陳鍾根, 「朝鮮朝初期의 對日關係—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石堂論叢』 15, 1989.
- 河宇鳳, 「일본과의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탐구

- 당, 1995.
- 韓文鍾, 「朝鮮前期 對馬島の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995.
- 韓文鍾, 「朝鮮前期 對日 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한문종,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對朝鮮通交」 『韓日關係史研究』 12, 2000.
- 秋山謙蔵, 「室町初期に於ける倭寇の跳梁と應永外寇事情」 『史學雜誌』 42(9), 1931.
- 荒木和憲, 「中世日朝通交貿易の基本構造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51, 2013.
- 長 節子, 「對馬島宗氏領国支配の發展と朝鮮關係諸權益」 『朝鮮學報』 39・40, 1966.
- 長 正統, 「武家政權と朝鮮王朝」, 井上秀雄・上田正昭 編, 『日本と朝鮮の二千年1: 神話時代~近世』, 太平出版社, 1969.
- 木村 拓, 「朝鮮王朝の二つの對馬認識: 15世紀後半を中心として」, 森平雅彦など編, 『日韓の交流と共生: 多様性の過去・現在・未来』, 九州大学出版会, 2022.
- 佐伯弘次・松尾弘毅・荒木和憲, 「14~16世紀の三島地域と朝鮮」, 森川哲雄・佐伯弘次 編, 『内陸圏・海域圏交流ネットワークとイスラム』, 權歌書房, 2006.
- 幣原 坦, 「日韓交通の概要」, 日本歴史地理學會 編, 『日本海上史論』, 三省堂, 1911.
- 瀨野馬熊, 「大内義弘と朝鮮との關係に就いて」 『史學雜誌』 30(1), 1919.
- 高橋公明, 「外交儀禮よりみた室町時代の日鮮關係」 『史學雜誌』 91(8), 1982.
- 田中義成, 「倭寇と李成桂」 『歴史地理』 朝鮮號, 1910.
- 中村榮孝, 「鮮初に於ける日本貿易に就いて」 『東亞經濟研究』 15(3), 1931.
- 本田美穂, 「室町時代における少弐氏の動向—貞頼・滿貞期—」 『九州史學』 91, 1988.
-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전북사학』 35, 2009.
- 松尾大輝, 「南北朝期宗氏による對馬支配と少弐氏」 『古文書研究』 92, 2021.
- 三浦周行, 「應永の外寇」 『日本史の研究』, 岩波書店, 1922 (初出: 『史林』 1(1), 1916).
- 村井章介, 「東アジア諸国と日本の相互認識—一五~一六世紀の繪地圖を中心に—」 『日本中世の異文化接觸』, 東京大学出版会, 2013 (무라이 쇼스케, 「한중 그림지도에 그려진 일본열도 주변」, 요시다 미쓰오 편, 김임숙 역, 『일 한 중의 교류: 사람·물건·문화』, 인문사, 2013).
- 森 克己, 「中世末・近世初頭における對馬宗氏の朝鮮貿易」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1, 1951.
- 渡邊世祐, 「足利季世に於ける朝鮮との交通」 『歴史地理』 朝鮮號, 1910.

【토론문】

「태조 7년(1398)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수립배경」에 대한 토론문

윤성익(경희대학교)

송종호 선생님께서는 조선 태조 때의 왜구 투항과 조선-대마도의 통교 문제에 대한 여러 연구물을 발표해 오셨습니다.⁶⁰⁾ 오늘의 발표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조선·대마도의 통교 관계 수립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구의 연장선이자 송종호 선생님의 또 다른 주요 테마인 ‘태조의 기미책’ 혹은 ‘회유책’에 대한 비판 문제와도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대마도와 조선의 통교 수립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나 과거의 연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꼼꼼한 분석과 비판 작업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송종호 선생님의 연구들에 대해 토론자나 질문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도 논지 전개상 기본으로 깔려 있는 ‘왜구에 대한 기본 문제 - 파견 주체·목적·성격 등-’, ‘대마도 종씨의 領國 지배 및 제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의 토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떤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한 논리 전개와 결론 도출은 상당히 다른 양상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인식 외에도 <사료>의 해석·이용, 송종호 선생님의 설명(추론)이나 논지 전개에도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다른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복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는 송종호 선생님도 지적하듯이 대마도와 九州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매우 복잡했던 때이므로 ‘대마도의 통교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심도 깊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의견 차이와는 다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발표도 이전 연구들처럼 우선 많은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하신 뒤 이를 바탕으로 송종호 선생님의 새로운 시각이나 논지를 전개하셨습니다. 많은 연구서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정리하여 문제점을 비판하시는 내용을 보면 항상 대단하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도 많은 서적과 논문이 인용되고 있는데, 제 노력으로는 인용하신 서적들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서적·논문을 살펴봤는데,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문이 길어

60) 송종호,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396년(태조 5년)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8, 2022;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80, 2023; 「고려말-조선초 대마도와의 통교 공백기 (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82, 2023; 「조선초 왜구 투항과 태조의 기미책(羈縻策)」, 『한일관계사연구』 86, 2024.

지지만, 확실함을 위해 이에 대해 제가 살펴본 내용들과 발표문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신뢰성과 관계된 문제라서 이것은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통설」

“조선과 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수립 동기에 관하여, 지금까지 통설은... 조선 조정이 건국 직후부터 왜구를 금압하고자 먼저 일본 측에게 통교를 청했고... 대마도 소씨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이하 ‘조선주도설’)... 시기적 흐름으로 보면... 일본 막부에 파견하였고, 이어... 그 후에 대마도와 접촉한 것으로 서술한다. 이어서 통설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 조정이 과도한 ‘회유책’을 실시하여 그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이를 바로잡고자 이루어진 1443년(세종25) 계해약조 체결을 계기로 조선-일본 관계에서 대마도의 중심적 위상이 자리 잡었다고 한다.”

1) 주2)의 인용서 문제

· 森 克己, 「中世末・近世初頭における対馬宗氏の朝鮮貿易」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1, 1951, 1쪽

“왜구 방어에 적극정책을 취해, 안으로는 수군영을 연해 요충의 땅에 두어... 밖으로는 일본의 足利將軍, 九州探題 이하 중국 九州의 諸大名과의 수호를 왕성히 하여 왜구의 진압을 구하였다. 혹은 또한 왜구의 수괴를 회유하여 귀순을 권하고, 관직을 주어 우대했다. 이것을 수직이라고 한다. 특히 대마가 왜구의 근거지이며 또한 그 지리적 위치가 지근의 거리에 있어서 일선교통상의 요충에 해당하는 것에 착안해 도주 종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해 수교를 권하고 왜구를 진압 시킴과 함께 종씨로써 일선교통·무역의 일을 관리시켰다.”

· 河宇鳳, 「일본과의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탐구당, 1995, 375쪽.

“태조는 즉위 초 실정막부의 족리의만에게 사신을 보내 왜구 금지를 요청하고 왜구에게 영향력을 가진 서국지방의 호족들에 대해서도 왜구 진압을 요구하였다. 막부와 서국지역의 호족들은 왜구 진압에 노력하고 피로인의 송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4년 九州探題 今川了俊의 보고에 의하면 옛날 왜구의 10중 8~9가 감소하였으며, 피로인의 절반이 쇠환되었다고 하였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으나 외교적 교섭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 韓文鍾, 「朝鮮前期 對馬島の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995, 130쪽.

“조선에서는 실정막부의 장군을 비롯하여.... 요청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대마도의 통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이유는 왜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荒木和憲,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 4쪽.

→ 어떤 내용이 위에 해당하는 서술인지 모르겠음. 특히 후반부의 ‘통설’에 대한 내용은 없음.

2) 계해약조 체결의 이유로 든 ‘경제적 부담’은 세종 1년 대마도 정벌 이후의 대외인정책에 대한 결과. 현재 서술에서는 정벌 전의 ‘회유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계해약조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3) '통설'에 대한 설명에 이렇게 많은 인용서들이 필요한지 의문 : '통설'을 서술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서적을 2~3개 정도 들어도 충분하지 않은가?

2. 「조선주도설」과 「일본주도설」이라는 이분법적인 설명에의 의문

1) 손승철의 경우는 논문의 표현처럼 “실정시대의 조·일간의 통교는 전적으로 일본쪽에서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주도설」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1392년 조선에서는 전국 직후 막부장군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막부는 족리장군의 명위가 아니라 승려인 절해중진의 명의로 조선국왕에게 답서를 보내왔다... 막부장군이 조선과의 통교를 적극 원하고 있지만... 따라서 이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실정막부도 조선과의 통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조선의 금구왜교 ⇄ 장군의 답서 및 통교 의지 ⇐ ‘통교’ 및 ‘통교 관계’를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2) 「일본주도설」 인용서의 문제

· 佐伯弘次, 「일본의 입장에서 본 동아시아 세계의 변용」, 『조선 전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경인문화사, 2010, 9쪽

“조선의 왜구회유책으로 다수의 일본인이 조선과 통교하고 무역에 나섰다.”

· 발표문 주4) : “(이규철은) 일본주도설 위주로 서술하면서도, 조선 역시 일본 측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규철,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2009, 424쪽

“한편 일본 세력들은 조선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태조 2년 일기도에서 200여 명의 포로를 돌려보낸 일이나 다음 해에 일본회례사 김거원이 569명의 포로를 데리고 돌아온 일 등은 당시 일본 측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 준다.”

3) 「일본주도설」에 대한 저자의 입장과 발표문에서의 중요성

· “필자 역시 여러 사료를 근거로 일본주도설을 따르지만, 그 상세한 논증은 차후 기회로 미룬다.”

→ 「일본주도설」은 필자의 논지 전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도 「조선주도설」의 시각에 의한 한계성 등을 종종 지적한다. 따라서 이 논증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5)를 본 편으로 옮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다고 여겨진다.

예) 1장 2절 : “요컨대 선행연구 중 ㉠1368년설과 ㉡1399년설에 따른 서술 방식은... 조선 주도설의 거시적 관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오히려 조선주도설에 충실한 서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조선주도설과 일본주도설은 모두 조선-일본 관계라는 거시적 논점에 대한 견해일 뿐, 조선-대마도 관계라는 구체적 논점에 관한 견해는 아니다.”

· 발표자의 의도 : 조선-대마도의 통교 관계 규명이 목표 → 미시적·구체적 관점의 분석을 하겠다.

⇒ 그렇다면, 조선-대마도 통교 관계 수립에 대한 부분(선행 연구)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조선-일본과의 통교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담긴 선행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취급하는가?

· 발표문에 인용되는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이 「조선과 일본의 통교」에 대해 서술한 것들.

· “조선-대마도 관계라는 구체적인 논점” 대한 발표이므로 선행 연구의 분석과 비판은 대마도와 조선의 통교 수립 문제를 과거에 어떻게 다루어왔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5) 발표자는 어느 쪽이 주도했는가? 라는 점을 고려해 통교의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선 주도’ ‘대마도 주도’의 여부에 따라 ‘동기 해명’은 전혀 다른 방향과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 조선주도 : 통설(?)에 따르면 왜구 금압 조처 → 굳이 새로운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

· ‘동기’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왜 종래의 통설-조선 주도가 타당하지 않은 지를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6) 결론의 일부 : “사건 순서의 흐름으로 볼 때, 대마도는 조선과의 통교 수립과 경제적 이득 확보라는 목적으로, 통교 수립 이전에 선제적으로 왜구 통제 조치를 실시했던 것이다. 조선-대마도 간 통교라는 구체적인 현상을 살펴볼 때, 기존 통설인 ‘조선주도설’에 재검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대마도의 경우는 그렇다고 해도 막부를 비롯한 다른 세력(사람)들과의 통교도 모두 같은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나?

3.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의 통교 관계 수립 시기”에 대한 선행 연구 비판

1) ㉠ 1368년설(고려) ㉡ 1397~1398년설 ㉢ 1399년설로 구분 → 발표자의 구분법으로 생각됨

· 선행 연구들을 3가지 설로 구분하는 기준에 의문 : 왜 고려를 포함하는가?

· “일찍이 고려 조정과 대마도 간에는 12세기 후반 무렵부터 진봉(進奉) 관계가 성립해 있었다. 이 통교 관계는 1274년(원종15)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으로 중단되었다가, 1368년(공민왕 17) 다시 이어진다.” → 1274년 이전의 ‘통교 관계’란 무엇인가?

2) 인용서의 문제

①1399년 설

- 윤승희, 「15세기 대마도 물품 수여에 담긴 조선의 의도」 『한국학논총』 63, 2025, 254쪽
 “조선과 대마도의 통교는 정종대부터 시작하였다.”
 → ‘통교 문제 수립’을 다루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배경 설명의 서술.

② 1397~1398년 통교수립설

· “다카기 신타로 및 다무라 히로유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기를 **조준 서한이 있었던 1397년 5월로 확정적으로 지목하였다.**”

-高木眞太郎(1942), 56쪽

“울주의 지사를 잡아서 대마로 도망쳐 돌아와 버렸다. 이에 조선에서는 박인귀 이하 5인의 사자를 보내어 유서를 도주 宗賴茂에게 보내... 대마의 기록에 「지금의 조선과는 요리시계공부터 통교가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선과의 공의 통교는 이 무렵부터 시작된 것 같아서 조선의 史書에도 그 이전에는 대마와 통교했던 기사는 실려있지 않다.”

→ 다카기는 2월(박인귀 이하 5인 파견)과 5월(조선의 유서)의 일을 오해(혹은 두 사건을 하나로 이해) ⇒ ‘5월’로 확정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님.

· 荒木和憲(2006) : “**1398년 소 사다시계가 도주가 되었고, 그 이후 통교가 본격화**”

-荒木和憲, 『対馬宗氏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17, 43쪽

「眞茂의 가독상속」: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1398년 12월, 요리시계의 후계자인 사다시계가 대마도 안에서 처음으로 문서를 발급하고 다음 해인 99년 7월에는 「일본국대마도총관」으로 칭하고 조선과 통교하여 가독상속을 통지하고 있다. → 발표자의 구분으로는 ㉠이 되어야 함.

· 나종우(1992) :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의 영주 종씨와는 고려말부터 가깝게 통교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러다가 태조 6년(1397)에 이르러야 대마도에서 자식을 인질로 보내오며 통교를 요구하므로 이 때에 허락하니 여기에서부터 정식적인 통교는 태조 6년(1397)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다.”

→ ㉠도 언급

· 한문종(1995) : “처음으로 조건과 통교하였던 것은 태조 6년(1397) 5월 경이다. 대마도가 조선과 통교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136쪽) “그 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교기록은 정종 원년... 물론 그 이전인 고려말에 대마도주가 파견한 사신이 來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즉, 고려 공민왕 17년(1368)에... 이는 대마도주가 고려와 통교 관계를 맺은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주인 종경(종경무)에게 쌀 일천석을 사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고려 조정과 대마도주간의 통교 관계가 비교적 원만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종 원년까지 30여년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던 태조 6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마도주와의 통교는 단절되었다.”

→ ㉠도 언급

· 長 節子는 다른 논문이지만 ㉠ ㉡에 포함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연구자들이 ㉠ ㉡ ㉢라는 설을 의식하며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음. 특히 문맥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서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가지고 세 가지 다른 설들이 대립 혹은 병립해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사료에 대해서

1) <사료1> 조준의 서한 : 여기서 다루는 사건 및 ‘상만호’, ‘부만호’는 태조 6년(1397) 4월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 기록.

· 발표자는 종종 이를 1396년 12월의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 기록인 것처럼 서술 혹은 취급.

· 「贈李府使詩序」의 첫 번째 두목=상만호, 두 번째 두목-나가온=부만호 라는 주장 내지는 추정.

· 상만호가 소 사다시계(宗貞茂)라는 주장(조혜란)은 이에 줄기의 1396년 12월 이후 사건에 등장하는 「非舊老古」를 <사료1>의 상만호와 동일인이라는 것에서 출발. 마찬가지로 <사료1>의 인물을 「나가온 집단 투항」 사건과 연결한 것인데,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항의 주도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

2) “조선 건국 후 1394년(태조3), 1395년(태조4), 1396년(태조5) 등 거의 해마다 실제로 정벌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였다.”

· 1394년(태조3) 10월 11일: (今川了俊에게 보낸 書)“여러 번 왜구를 사로잡고 주사(舟師)를 보내 잔당을 쳐서 잡자고 하므로, 조정의 공론이 장차 허락하려던 차에 마침 좌하의 사언을 보고 중지했으니”

· 1395년(태조4) 7월 10일 : (今川了俊이 올린 書)“오늘날은 옛날과 비교하여 도둑들이 10분의 8, 9는 감소 되었으니, 만약에 또 관군(官軍)의 장수들에게 다른 방도를 내게 한다면 통호(通好)하는 길이 끊어질까 염려됩니다.”

→ 위의 내용으로 조선의 정벌 계획이 매년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5. 今川了俊의 실각과 대마도예의 영향에 대한 의문

1) **료순의 영향력 아래 있던 기간 동안, 대마도 지배층은 그의 지시에 따라 왜구 활동을 내부적으로 통제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북규슈 지역에서의 영지 경영 등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 宗氏(澄茂)는 1375년 이후 북조(今川了俊)으로 전환 → 료순과 종씨의 직접 관계가 전개
· 宗氏는 그 이전부터 筑前 등에 상당한 영지를 소유(특히 筑前에서 少弐씨의 代官으로 지행권 등을 행사) 종씨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 료순이 이를 안도. 본래 료순이 ‘새롭게’ 부여해 준 경제적 이득이 아님.

2) 1395년 료순 실각 후 대마도예의 영향(?)

· “1396년 초에 이르러서...이에 따라 대마도는 조선과의 관계에서 상층 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치쿠젠 지역에서 상실하게 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는 것 이외에도 북규슈에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 渋川満頼가 부임함으로써 筑前の 영지를 상실한 것은 아님 → 이후에도 宗氏는 관련 문서를 발급.

· 이마가와 료순이 사라진 이후 대마도 경제를 유지? → 그 이전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태? → 이 시기 전쟁에 ‘막대한 재원’이 사전에 필요한가? → 1396년 11월 경 少弼貞頼가 菊池武朝와 거병했을 때 宗氏가 종군.

· 료순의 부재로 조선의 정벌 위협이 증가? → 1389년(창왕 원) 박위의 정벌은 료순의 비호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

6. 대마도의 결정 - 왜구 활동 재개 이유에 대한 의문

1) 대규모 왜구 활동 재개의 이유 :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

· 그 직전 시기의 대규모 왜구 활동이 경제적 이득이 되었는가? : 고려 말기의 대첩들(1380년 전후 시기)

· 今川了俊 아래서는 왜구 활동을 자제 → 대마도에서(대마도인이) 언제 활동한 왜구들이 대마도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왔었는가?

2) 조선의 정벌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다는 설명과의 모순

· 왜구 활동은 조선의 침공 위협을 증가시킴 → 이것을 무시하고(혹은 뻔히 알고도) 왜구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

· 발표자가 제기한 두 방안에 대한 설명에서 **“료순의 부재가 대마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준 사건”**인 1396년 12월 김사형 정벌군의 출병은 (발표자의 주장이라면) 대마도에서 파견한 왜구 활동 때문. → 료순의 부재와도 관계없는 사건

3) 관련 인용서의 문제

· **“12월 9일 ‘상만호’· ‘부만호’가 조선 조정에 다급하게 투항한 데에는 이러한 대마도 지배층의 우려가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주47) 이규철, 앞의 논문, 2009, 425~426쪽

“정벌은 나림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벌 이후 다양한 왜구 세력들이 조선에 항복하는 모습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조선의 정벌군이 출병하던 태조 5년 12월에 있었던 왜구 세력의 항복 기록들을 정벌의 결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왜구의 항복 기록이 이 시기에 갑자기 등장한다는 점에서 정벌군의 출병 정보를 입수한 일부 왜구들이 먼저 조선에 항복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 이규철은 실제 정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정책 결정에서 ‘대마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1) 도주인가? : 요리시계(宗頼茂)? 요리시계의 문서 발급이 확인되는 것은 1398년 4월까지. 1398년 12월 사다시계(貞茂)가 대마도에서 처음으로 문서 발급. 1399년 사다시계가 조선과 통교. → 1398년 대마도내 정변 내지 九州 戰域에서 요리시계가 전사했을 가능성이 있음.

2) 도주 1인이 정책 결정을 했다고는 할 수 없음 →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대마도 및 宗씨의 지배 관계를 고려해야)

3) 왜구 집단을 이끈 것은 소씨 종가의 사다시계(貞茂)이거나 그에 준하는 위치의

인물?

· 「상만호」가 조선을 향한 확실한 시기는 1397년 4월 → (아마도) 종씨의 주요 인물이 九州에서 전쟁에 돌입했던 때 조선에 투항시도?

· 나가온이 소다 사에몬타로(早田左衛門大郎)라고 하더라도 그가 실권을 잡기 약 20년 전의 상급자가 차기 도주급의 인물이라는 추정도 비약이 심하지 않은가?

· **“나이 소씨 역시 한반도로의 왜구 활동 재개 방안에 관해서 소씨 종가와 입장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 왜구 활동은 소씨 종가가 추진-실시하고 도주였던 요리시계가 추진하는 형식이었던 것인가?

5. 질문 : 대마도와 왜구의 문제, ‘통교’·‘통교 관계’의 개념과 ‘수립’의 기준.

1) 파견 주체를 ‘대마도의 지배층’으로 확정해 논지를 전개하는 점에는 의문이지만, 왜구의 주제 및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회피하겠습니다.

2) 대마도 이외 지역의 왜구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 <자료1> 대마도와 이키를 언급. 왜구에 잡혀간 피로인들은 이키에서도 송환됨. 김사형 정벌군의 목적지도 대마도와 이키. 이키는 宗氏의 통제 밖에 위치 → 왜구 활동의 변화를 대마도 상황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왜구와 기쿠치(菊池)씨나 쇼니씨와의 관계는? 특히 「경신년 왜구」⁶¹⁾의 파견 주체를 남조(南朝)=기쿠치씨로 보거나 그 이전 시기는 역시 남조 측의 쇼니씨⁶²⁾로 보기도 하는데, 대마도의 宗氏가 단독으로 왜구를 총괄해서 파견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3) ‘통교’나 ‘통교 관계’ 혹은 ‘통교 관계의 수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通交 : 국가(國家) 또는 개인(個人)이 서로 사이 좋게 지냄.(『표준국어대사전』)

· “필자는 ⑩1397~1398년설에 공감한다.”, “제3장에서는 1397~1398년 무렵 조선-대마도 간 통교 관계가 수립된 배경 및 과정에 관하여,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 3장 3절 「통교 관계 수립을 위한 대마도의 노력」 : 통교 관계가 아직 수립 안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짐. “1398년 1월 1일 대마도 사자가 처음 조선 조정에 입조”한 것이 조선-대마도 통교 관계가 수립,

→ 97년 조선과 대마도간의 교섭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397년 ‘대마도 수호’가 보낸 책와 답신인 5월의 <자료1>

⇒ 이은 등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 파견한 박인귀(1397년 1~2월)

· 사신의 파견이나 왕래

· 「조선주도설」· 「일본(대마도)주도설」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통교 관계’의

61) 이영, 「고려 말 왜구와 남조-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2, 2008 등.

62) 이영, 「경인년(1350)~병신년(1356)의 왜구와 규슈 정세-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尙)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개념 설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2발표

명청교체기 서계(書契)의 변천과 조선의 대일
교섭 양상

발표 : 박지원(한국학대학원 석사)

토론 :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명칭교체기 서계(書契)의 변천과 조선의 대일 교섭 양상

박지원(한국학대학원 석사)

목 차

1. 서론
- 2.1 서계 용어 검토
- 2.2 명칭교체기 서계의 자행 고저 변천 양상
- 2.3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의 대응과 인식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외교문서는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현안이나 입장을 문서로 작성하여 상대국에 전달하거나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⁶³⁾ 외교문서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사표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발급 또한 정치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문서의 형식·어휘·구성 방식은 단순한 서식 요소를 넘어 권위·위계·교섭 의지 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문서에 사용된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는 의도적으로 선택·배치되어 외교 메시지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 달성을 목표로 한다.

서계는 조선과 일본이 교린 관계라는 이념 아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된 실무 외교 문서이다. 서계는 조선의 정치적 입장을 일본에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외교 관계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장치였으며, 양국의 교린 관계를 구현하는 수단이었다. 조선은 전례에 따라 서계를 작성하면서도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조·일간에 교환된 서계는 형식적 관례와 유연한 조율을 통해 국가 간 안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서계는 조선의 전통적 서간문 용어와 형식을 충실히 계승한 서간문식 외교문서였으므로 상대국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문서인 동시에 서간문의 禮式을 갖춘 외교문서로 기

63) 김용구, 『외교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원, 2002, 41쪽.

능하였다. 따라서 서계는 정밀한 작성이 요구되었으며, 용어 선택과 배치의 미세한 차이 또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명칭교체기라는 특수한 국제 정황 속 외교 질서가 재편되면서 이 시기에 발급된 서계에는 통교가 재개된 이후 작성된 서계와는 다른 字行 高低의 배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헌 기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량의 실물 문서를 통해 실제 문면의 배치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보완될 필요가 있다.

서계에 대한 연구는 한·일 양국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일 관계사 분야를 중심으로 축적되었다. 기존 연구는 연구 대상과 방법에 따라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서계 관련 기록 문헌이나 단일 문서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⁶⁴⁾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다량의 실물 문서를 대상으로 한 고문서학적 연구이다.⁶⁵⁾ 전자는 서계를 조선과 일본 간 외교 관계를 매개하는 외교문서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일 외교문서의 성격과 기능을 규명한 기초적 성과가 마련되었다. 후자는 서계의 서식 특징과 용어, 문면 구조의 반복적 패턴 등 서식의 미시적인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서계를 둘러싼 조선 실무진의 판단과 그에 따른 조선 행위 주체의 대응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계 개찬 요구와 그에 따른 변천 과정, 그리고 조선의 교섭 전략과 대일 인식에 대한 검토 역시, 현존하는 다량의 실물 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비로소 가능하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명칭교체기에 발급된 서계 실물 문서를 중심으로 서계의 용어와 字行 高低의 변천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위계질서가 재조정되는 과정과 조선의 대일 교섭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격동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이 정치적 의도를 문서 형식으로 구현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명칭교체기를 1616년부터 1686년으로 설정하고,⁶⁶⁾ 이 시기에 발급된 서계 1,746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⁶⁷⁾ 2장에서는 해당 시기의 서계 용어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서계 자행 고저 배치에 주목하여 변천 양상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개찬 교섭 과

64) 정성일, 「國書와 書契로 본 조선후기(1600~1870) 대일외교」, 『명칭사연구』, 52, 2019;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이훈, 「조선후기 違式書契를 통해서 본 朝日交渉의 특징—조선측 書契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이훈, 「조선후기 대일외교문서(對日外交文書)-통교재개 이후 서계식(書契式)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1993; 장순순, 「조선후기 일본의 書契違式 실태와 조선의 대응—『邊例集要』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1』,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65) 박지원, 『조선시대 외교문서 書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6.

66) 본 연구는 후금의 성립(1616년)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고, 청의 지배가 안정되는 17세기 후반(1686년)까지를 명칭교체기로 설정하였다.

67)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 서계 1차 수집분 9,442점과 2차 수집분 10점을 기초 자료로 삼았으며, 1611년부터 1720년 사이에 발급된 서계 가운데 사본(13점), 별록만 남아있는 문건(178점), 서한(2점),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은 서계(15점)를 제외한 3,161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 교체기라는 시기적 범위를 고려하여 1616년부터 1686년 사이에 발급된 실물문서로 한정하였다.

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書契違式臚錄』을 중심으로 서계의 형식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일 외교 교섭과 인식을 분석한다.

2.1 서계 용어 검토

서계는 양국 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한 예의와 외교 수사의 기능이 서간문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격식에 걸맞은 어휘와 표현 체계를 따랐으며, 특히 사용된 용어나 관용구는 일정한 전례를 바탕으로 반복되어 정착되었다.

조선시대 서간문은 間字·改行·擡頭 등의 서식 요소를 통해 존경과 예의를 문면에 구현하였다. 서계 역시 이러한 예법에 따라 상대방·자신·제3자의 위계를 구분하였다. 또한, 어휘의 성격에 따라 極行·中行·平行에 배치함으로써 문면상의 위계 질서를 명확히 하였다.⁶⁸⁾ 극항·중항·평항은 신분의 尊卑와 上下의 차례를 규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특정 어휘를 어느 항에 배치하느냐는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였다.⁶⁹⁾ 이는 양국의 상호 인식과 정치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계에 사용된 주요 용어들을 그 의미와 기능에 따라 일곱 가지 범주로 구분하면 ①편지, ②별품, ③使者, ④土宜, ⑤명나라, ⑥조선, ⑦일본 관련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表 2-1> 서계에 사용된 용어

편지	翰	來翰, 辱翰, 華翰, 惠翰, 委翰, 伴翰, 手翰, 崑翰, 遠翰, 法翰, 寵翰, 情翰, 淸翰
	牘	惠牘, 回牘
	械	芳械, 禪械, 華緘, 來械, 伴械, 惠械, 崇械, 封械, 珍械
	札	惠札, 委札, 覆札, 信札, 覆札, 禪札, 一札
	函	星函, 芝函, 惠函, 書函, 揭函, 琅函
	訊	書訊, 華訊, 芳訊, 械訊, 良訊
	音	好音, 遠音, 惠音, 慧音, 嘉音, 翰音
	帖	惠帖, 來帖, 委帖, 華帖
	書	惠書, 委書, 崑書
	기타	遠信, 簡問, 械問, 華箋, 音耗, 盛示
사자	价	崑价, 貴价, 來价, 盛价, 信价, 歸价, 賀价
	使	橋使, 貴使, 崑使, 槎使
	差/槎	貴差, 專差, 星槎, 使槎, 槎使
	伴	崑伴, 伴來
	기타	行旆, 征旆, 返旆, 旌旆, 木道
토의	腆贖, 委贖, 盛贖, 嘉贖, 遠贖, 惠贖, 厚贖, 珍贖, 心贖, 佳贖, 進上, 厚餉, 風宜, 珍品, 佳餉, 惠饋	

68) <交隣文字式>에는 一行·二行·平行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書契違式臚錄』에서는 極行·中行·平行이 확인된다. 또한 선행연구(이훈, 「조선후기 違式書契를 통해서 본 朝日交渉의 특질—조선측 書契를 중심으로—」)에서는 極行·次行·平行이 사용되는 등 의미는 동일하나 사료에 따라 용어가 상이하다. 본고는 『書契違式臚錄』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므로, 해당 사료 용례를 따라 極行·中行·平行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69) 『書契違式臚錄』 8월 초9일, 029b쪽. 文書中極行平行, 區別尊卑, 定次上下之分.

별폭	別楮, 別箋, 別錄, 左幅	
명나라	天朝, 大明國	
조선	朝廷, 本國, 我國, 本邦	
일본	에도막부	貴國, 東武, 貴邦, 貴大君, 新貴大君, 執事
	대마도	一州, 貴州, 貴島, 先太守, 太守, 貴鎮, 貴境

서간, 대마도 사자, 토의, 별폭을 지칭하는 용어에 상대방을 높이는 수식어를 결합해 용어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서한의 경우, 翰·牘·楮·札·函·訊·音·帖·書 등의 용어에 辱·華·惠·委·倂·手·耑·遠·法·寵·情·清·芳·禪·伴·崇·星·芝·琅·良·好·慧·嘉·耑·盛를 수식하였고, 사자의 경우, 价·使·差·槎·倂·旆 등의 용어에 耑·貴·來·盛·信·歸·賀를 수식하였으며, 토의의 경우, 貺·品·餉·饋·宜 용어에 腆·委·盛·嘉·遠·惠·厚·珍·心·佳를 수식하였다.

서계의 용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위계와 질서를 반영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였다. 용어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에 따라 字行의 高低가 결정되었으며, 양국 간에는 이에 관한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⁷⁰⁾

『서계위식등록』 1639년 4월 22일 조 기사에 따르면, 差倭 平成連은 ‘來价’, 또는 ‘來使’ 두 글자를 서계의 첫 항에 적어 상호 공경의 뜻을 드러내는 관례가 오래되었으나 근자에 보내온 회답 서계를 살펴본 결과, 이른바 ‘來价’ 등의 글자를 행을 바꾸지 않고 연이어 기재하여 보냈으니, 이는 舊例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한 공경(相敬)에도 흠결이 된다고 항의한 사례가 확인이 된다.⁷¹⁾ 이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가 서계 문면의 어느 위치에 배치되는가가 곧 상대에 대한 예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마도 측이 민감하게 반응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한편, 용어의 선택 또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1643년 대마도로 보낼 서계를 동래 부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계 말미에 ‘사신편에 물건을 보낸다’ 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동래부사는 이 표현이 信使가 직접 물품을 휴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일 서계 내용 대로 된다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곧 용어 수정을 제시하고 ‘使臣’ 두 글자를 ‘館司’로 고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관사는 곧 ‘留館頭倭’을 지칭하는 것임을 부연하였다.⁷²⁾ 이는 조선 측이 서계에 작성하는 단어 하나도 대마도에 불

70) 『書契違式謄錄』, 권1, 1644년 甲申八月初九日, 029b쪽, 當初約條時, 文書中極行平行, 區別尊卑, 定次上下之分, 今日之出言, 未知島主之如何, 此不過徒知其自尊, 不知事體之輕重, 豈不寒心哉; 甲申九月二十八日, 036b쪽, 卑職等答曰, 兩國文書間, 字行高低, 自有定式是去乙.

71) 『書契違式謄錄』 권1, 1639년 己卯四月二十二日004a, 東萊府使狀 啓內, 卽接訓導李長生等手本內, 差倭平成連言內, 特送使歲遣第一船, 萬松院送使等處, 禮曹回答書契中, 或有來价, 或有來使二字乙, 例書於行頭上, 以示相敬之意, 其來久矣, 近來第二船送使以下回答書契, 則所謂來价二字乙斬或低昂, 連行書填, 大概一般島主處, 書[004b]辭中措語之, 或有所低昂, 未知其由, 今後乙良, 一樣書式, 以示相敬之意, 陳達於東萊令監前, 轉報 朝廷, 亦說道事, 手本是白置有亦, 遠人所懇, 不得不達是白在果, 接待之禮, 固有所降殺而書契之規, 似不至大段, 着令該曹, 商量措揮事, 回據曹粘目內, 差倭言內, 回答書契中, 或有來价, 或有來使二字, 例書於行頭之上, 以示相敬之意, 其來已久, 近來則回答書契, 所謂來价等字, 連行書填, 有所低昂, 未知其由云, 來价等字, 連行書填, 非但有違舊例, 亦欠相敬, 凡書契書送時, 來[005a]价, 來使等字, 特出行頭書送, 不是大段, 有關於體面, 而亦有前例, 渠等所言如此, 今後乙良, 特出書填, 以爲遠人所懇事, 令承文院, 照例舉行, 何如, 崇德四年四月二十二日同副承旨臣朴守弘次知啓 依允.

72) 『書契違式謄錄』, 1643년 癸未三月十一日020b, 書契末端, 措語有曰付送于使臣之便云云爲白有去乎, 此語實是信使親自領去之意, 若於使臣入往後, 依書契內辭意, 令使親自領納社堂, 則其爲難處之端, 誠非細慮不喻(…)書契中, 使臣二字, 則改以館司二字, 似或無妨爲白齊, 館司云云者, 乃留館頭倭之通稱也, 以鑄物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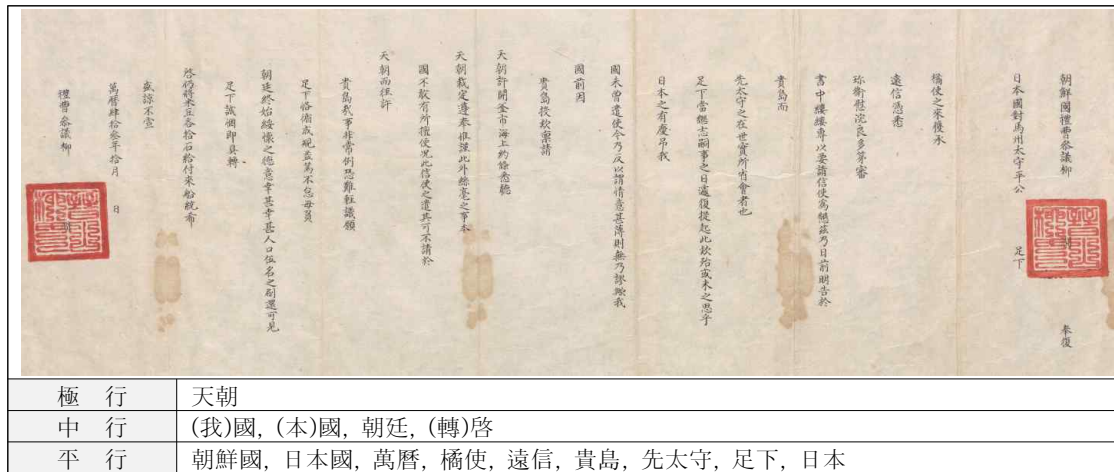
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이처럼 서계는 정밀한 작성이 요구되었으며, 용어 선택과 배치의 미세한 차이 또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조선은 대일 외교 기조에 따라 서간문식 격식을 준수하면서 외교적 수사와 정무적 메시지를 서계를 통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명청교체기에 접어들면서 서계의 例格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2.2 명청교체기 書契의 字行의 高低 변천 양상

서계는 사용된 어휘의 위계를 반영하여 글자의 배치 방식이 極行·中行·平行으로 구분되었다. 발신자·수신자·본문·연월일 등이 모두 평항에 일괄적으로 배열되었으며 연월일은 명나라의 연호로 표기되었다.

1614년(광해군 7) 예조참의 柳澗 명의로 발급된 서계에는 극항에 중국, 중항에 조선 국왕과 왕실, 평항에는 일본과 대마도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圖 2-1> 1614년 예조참의 柳澗 서계⁷³⁾

평항에는 발신자인 ‘朝鮮國禮曹參議 柳澗’, 수신자인 ‘日本國對馬州太守平公 足下’, 그리고 연호인 ‘萬曆’이 나란히 배열되었으며, 본문에서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橘使’, ‘遠信’, ‘貴島’, ‘先太守’, ‘足下’, ‘日本’ 등의 용어가 개행되어 평항에 위치하였다.⁷⁴⁾ 그보다 한 칸 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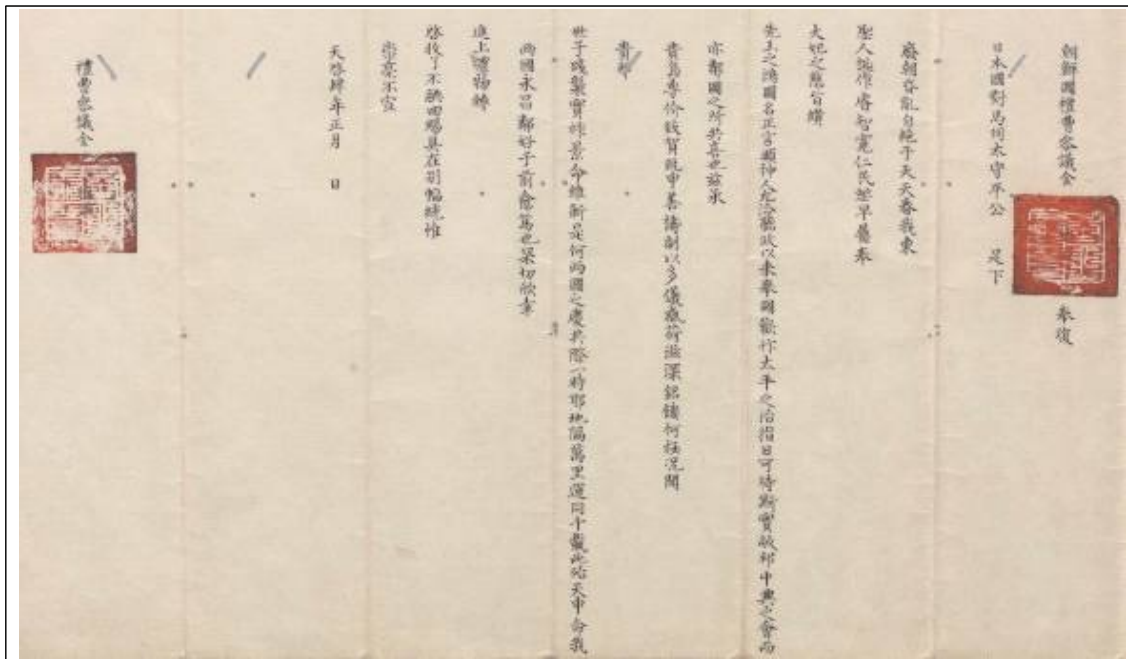
付館司先送之意, 措辭改書, 似爲便當爲白乎去, 妄料陳達爲白乎旅.

7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 번호 AJP048_01_00K0008.

74) 조선은 대마도와 에도막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호칭을 달리 표현하였으며, 에도막부에 대해서는 ‘東武’·‘貴邦’·‘貴國’ 등의 용어를 모두 평항에 배치한 사례가 실물문서에서 확인된다. AJP048_01_00K0452, AJ P048_01_00K0107, AJP048_01_00K0349, AJP048_01_00K0351, AJP048_01_00K0604.

조선을 지칭하는 ‘(我)國’, ‘(本)國’, ‘朝廷’, ‘(轉)啓’ 등이 중항에 배치되었고, 가장 상단인 극항에는 명나라를 나타내는 ‘天朝’가 쓰였다.

이러한 서식 구성은 임진왜란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명나라가 외교 위계의 정점에 있고, 조선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나라는 외교 질서의 최상위에, 조선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위치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당시 조선은 국제 관계의 위상을 문서 형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極行	聖人, 大妃, 先王, 世子, 進上, 啓
平行	朝鮮國, 日本國, 天啓, 廢朝, 貴島, 貴邦, 兩國

<圖 2-2> 1626년 예조참의 金德誠 서계⁷⁵⁾

1624년(인조 2)에 예조참의 金德誠 명의로 발급된 서계는 앞선 1614년의 서계와 형식상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서계의 문자 배치는 앞서 살펴본 1614년의 서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발신자·수신자·연월일, 일본을 가리키는 ‘貴邦’, 대마도를 지칭하는 ‘貴島’, 그리고 ‘兩國’이라는 표현은 모두 평항에 배열되어 전례에 따라 서계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조선 왕실 구성원을 가리키는 ‘聖人[인조]’, ‘大妃’, ‘先王’, ‘世子’와 같은 용어나, ‘進上’, ‘啓’ 등 조정 관련 용어는 극항에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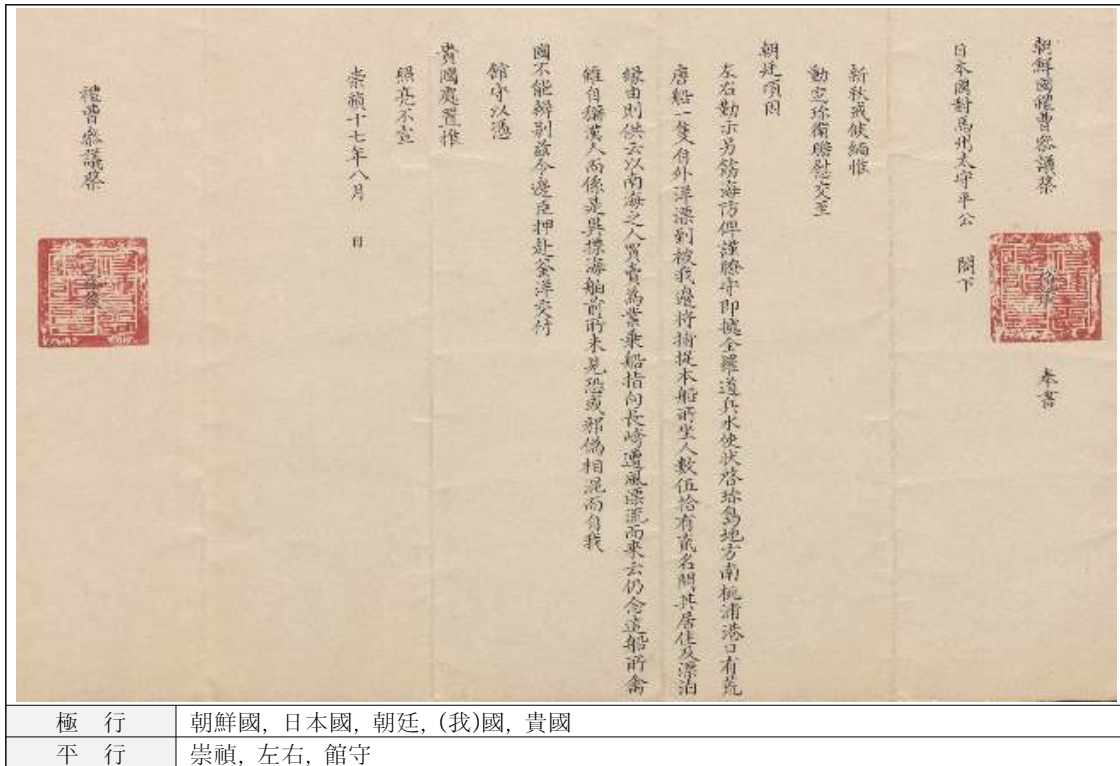
특기할 만한 점은 ‘廢朝’가 서두의 평항에 위치한 것인데, 이는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조정이나 왕실을 상징하는 표현보다 한 칸 낮은 평항에 기재하였

75) AJP048_01_00K0107.

다. 서계의 문면 배치가 단순한 서식상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당대 정치 질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은 광해군 정권의 부당성과 인조 정권의 정통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서계는 외교문서로서의 실용적 기능을 넘어, 발신자와 수신자의 위격, 정치 메시지, 문면의 격식에 따라 시각적 질서와 상징성을 분명하게 구현한 문서였다.

한편, 조선과 명나라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력이 크게 소모되는 동안, 여진족의 누르차치는 이를 틈타 세력을 형성하고 후금을 건국하였다. 명나라는 대군을 조선에 파병하면서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하였고, 이로 인해 만주의 여진족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결국 명·청 교체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전란은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정세를 크게 뒤흔든 사건이었다.⁷⁶⁾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는 서계 문면 배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정묘호란 발발 이전에 발급된 서계와 이후의 서계는 문서 형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極行	朝鮮國, 日本國, 朝廷, (我)國, 貴國
平行	崇禎, 左右, 館守

<圖 2-3> 1644년 예조참의 蔡裕後 서계⁷⁷⁾

1644년(인조 22)에 발급된 예조참의 蔡裕後 서계⁷⁸⁾에 형식 면에서 여러 변화가 보인다. 서두·본문·연월일 등이 평행에 작성된 것과 달리 ‘朝鮮國’과 ‘日本國’은 본문보다 한 항 위인

76) 김종원 외, 「한국사 29, 조선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7쪽.

77) AJP048_01_00K0624.

78) AJP048_01_00K0624.

극항에 배치되었다. 또한 ‘日本國’이 극항에 위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貴國’, ‘朝廷’, ‘(我)國’ 역시 모두 극항에 배치되었다.

이 시기 대마도는 조선 측 서계의 字行 高低 문제를 외교 의례 문제로 제기하며 반복적으로 개찬을 요구하였다.⁷⁹⁾ 대마도 측은 ‘日本’의 ‘日’자가 평항에 기재한 것을 문제 제기하며 극항에 써 줄 것을 요구하자 조선의 최일선 실무자인 譯官은 양국 문서 간 字行의 高低는 본래부터 정해진 격식이 있으니, 전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비변사 역시 충분히 잘 타일리아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정은 대마도의 반복된 문제 제기를 이례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면서도 해당 요구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조정을 허용하였다.⁸⁰⁾

이후 1644년을 기점으로 대마도에 보내는 서계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극항에, 본문과 연월일은 평항에 작성하는 형식이 점차 정착되어 1645년 이후에 발급된 서계에도 일괄적으로 이 형식이 적용되어 정형화된 서식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청나라가 새롭게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조선은 反淸 정서를 한층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호 사용 문제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⁸¹⁾ 조선 내부에서 서계 작성 시 명나라 연호를 계속 사용할지의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이 이어졌다. 비변사는 서계에 명나라 연호를 쓰지 말고 다만 연월만을 기재하되, 별도로 역관을 보내서 숭정 연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正朔을 정했으나 아직 반포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연월만 적은 것이라 설명하면 사리에도 맞고 대마도 역시 문제 삼을 근거가 없을 것이라며 대체 방안을 제시하였다.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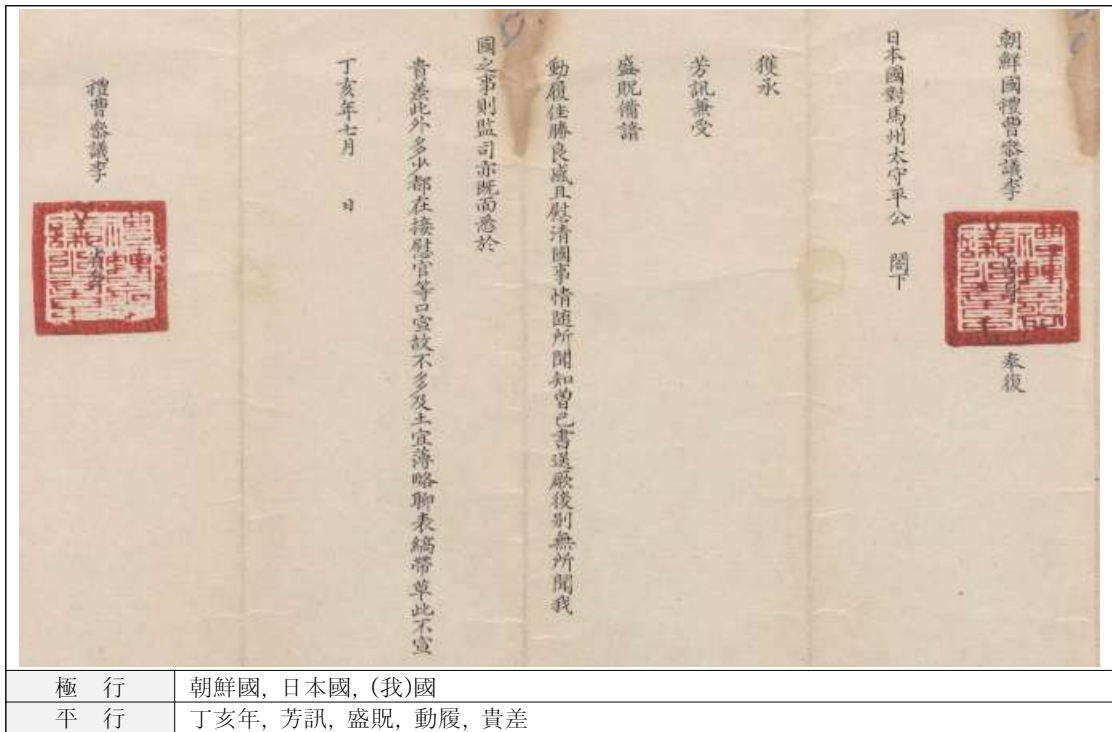
이러한 논의 이후에 작성된 서계에는 명의 연호를 생략하고, 干支만을 적는 형식이 나타난다. 이는 조선이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명 연호 사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간지 기재는 조선이 외교 갈등을 피하고 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연호 사용을 유보한 조선의 외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7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圭 『12885-v.1-2』, 『書契違式謄錄』 권1, 044a쪽, 1644년 甲申十二月二十四日, 近來倭情, 大異於前日, 前後字行, 每違恒式, 督令追改, 曾非一再. (본 인용문의 표점은 필자가 하였으며, 이하 동일함.)

80) 『書契違式謄錄』 권1, 1644년 甲申七月十六日 26a쪽-28b쪽, 倭平成正言曰, 但貴國之國字, 貴朝之朝字, 皆以極行書填, 日本之日字, 他國之國字, 書諸平行, 紙品亦甚不好, 有同手下人處致書者, 然大君以下見之, 則必生大事, 有難周旋, 且以答書遲延致疑, 則亦難其所答, 不得已謄書, 六月二十八日入送江戶, 本書則八月望間, 島主親自持納云云, 馳報其謄書時, 國字朝字日本之日字, 朝鮮國之朝字, 一行書送, 此意急急馳啓, 今月二十日內, 改撰以給云云爲去乙(…)備邊司啓辭內, 洪喜男手本, 國朝等字高下格例, 乃是禮部修答之辭, 自前如是爲之, 非創於今日而到今執以爲言, 尤爲可駭, 使之十分開諭宜當, 元手本竝入之意敢 啓傳曰依啓國字改書之請, 渠之所言, 不爲無據, 日本等字, 一體高書以給, 似或無妨也.

81)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강화 조건을 논의하던 당시, 조선은 기존의 명나라 연호인 ‘崇禎’을 폐기하고 청나라의 ‘崇德’ 연호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란 이후 수개월 동안 중앙과 지방 관아 모두에서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청은 조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호 사용을 강제했으나, 조선의 중신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결국 청의 연호 사용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개인문서나 제향 제사에서는 여전히 명의 연호가 사용되었고, 명이 멸망한 이후에도 마지막 연호가 지속적으로 쓰였다. 『한국사 29, 조선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296쪽.

82) 『書契違式謄錄』 권1, 1645년 乙酉正月初五日, 47a쪽, 今者遽以奉朔文書, 自我先示於彼, 則恐不免凌逼執言之端, 此極可虞, 未知善處之策, 僉議以爲今番文書, 勿書年號, 只書歲月, 別遣譯官, 開諭釜館, 曰崇禎年號, 今不得用, 新改正朔, 未有頒布之舉, 故如是只書歲月云, 則事理順便, 彼亦似無致詰之端.



<圖 2-4> 1647년 예조참의 李省身 서계⁸³⁾

1647년 예조참의 李省身 명의로 발급된 서계에는 평항에 간지인 丁亥年을 기재하고, 대마도 관련 용어를 지칭하는 ‘芳訊’, ‘盛貺’, ‘動履’, ‘貴差’ 을 개항하여 평항에 배열하였다. 반면, ‘朝鮮國’, ‘日本國’, ‘我國’은 한 칸 위인 극항에 배치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나라를 지칭하는 ‘淸國’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개항하지 않고, 평항 아래에 連書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서 구성 방식은 조선이 청을 명과 동등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조선이 여전히 송명 외교 질서를 견지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이듬해인 1648년에 발급된 예조참의 李省身 명의 서계⁸⁴⁾에서도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인식이 문서 형식에 반영된 양상이 확인된다. 이 서계에서는 ‘朝鮮國’, ‘日本國’, ‘大明國’을 모두 극항에 나란히 배치하였다. 조선이 명을 여전히 동아시아의 중심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1614년 예조참의 柳澗 명의로 발급된 서계에서 명나라를 ‘天朝’로 지칭하며 가장 높은 위치인 극항에 두고, 조선을 중항에 배치한 양상과는 대조적이다. 해당 서계에서는 여전히 대명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연월일은 명나라 연호가 아닌 간지를 기재하였고, ‘朝鮮國’, ‘日本國’과 나란히 배치하였다. 이는 조선이 명나라를 더 이상 국제적 상위 질서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둔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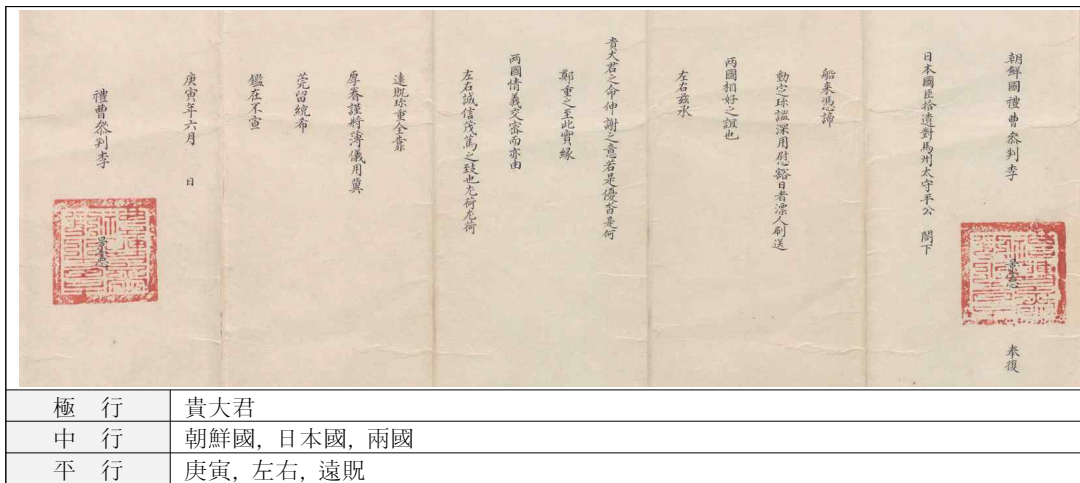
83) AJP048_01_00K0689

84) AJP048_01_00K0702

전환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 대마도는 조선 측 서계에 막부 쇼군인 ‘大君’ 앞에 ‘貴’를 붙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貴大君’을 극항에 배치해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1646년에는 대마도가 조선의 회답 서계에서 ‘貴國’으로만 표기하고 ‘貴大君’이라 적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대해 조선 측은 일본에서 임금 노릇하는 자가 누구인지 반문하며, ‘貴國’은 곧 ‘大君’을, ‘貴島’는 ‘對馬島主’를 지칭하는 바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의 반복되는 요구가 이어지자 조선은 더 이상 논리적인 설득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대마도의 요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⁸⁵⁾ 이는 서계 문면 배치 조정이 조선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대마도의 지속적인 요구가 관철된 결과였으며, 조선-대마도-막부 간 위계 질서 조정이 문면 구성에 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1649년에 발급된 예조참의 申冕 서계⁸⁶⁾와 관련된 과정이 『書契違式謄錄』에 자세히 나타난다. 대마도주는 ‘大君’ 글자 위에 ‘貴’ 글자를 붙여서 써 줄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으나 조선이 ‘大君’만을 적어서 회답 서계를 보내자 서계를 받은 차왜가 대마도주가 ‘貴’ 자를 써줄 것을 신신당부한 사실을 말하며 자신들은 대마도주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다시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이미 발급된 서계가 있었음에도 ‘貴大君’이라 고쳐 적은 새로운 서계를 다시 발급해 주었다.⁸⁷⁾ 이는 대마도의 요청과 조정의 과정이 서계 문면의 실제 구성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圖 2-5> 1650년 예조참관 李景憲 서계⁸⁸⁾

85) 『書契違式謄錄』, 권1, 1646년 丙戌五月三十, 065b쪽-066a쪽. 臣更令譯官等, 嚴辭峻斥, 且爲開諭曰你國所主者誰, 既稱貴國, 則非謂大君乎, 凡書契中措辭貴島云者, 謂島主也, 貴國云者, 謂大君也, 你等不解文字, 每每請改, 朝廷體面尊嚴, 你等冒瀆, 非止一再, 何敢如是, 更勿發口云, 則平成通無辭以受爲白有置.

86) AJP048_01_00K0724.

87) 『書契違式謄錄』, 권1, 1649년 己丑六月十四日, 083a쪽-083b쪽, 小的等曰雖無貴字, 若非大君誠信之語, 實爲慰慙爲去等, 何必書填然後有關乎, 十分開諭爲乎矣, 差倭曰, 俺非不知貴字之不關, 而島主必欲加貴字於大君之上, 申申言之, 俺不可違越島主之命, 故如是再懇, 貴字乙, 不可不書填改撰下送, 是如爲乎等以, (….) 頃日漂風人解送事回答書契, 已爲撰出以送爲白有如何乎, 差倭言內, 大君之上, 欲加貴字云者, 此是平交賓主之間, 亦爲行用之字, 依其所懇, 添入改書以給, 何如. 右副承旨臣朴長遠次知, 啓依允.

위 서계는 1650년 예조참판 李景憲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貴大君’은 극항에, ‘朝鮮國’, ‘日本國’, ‘兩國’은 중항에, ‘左右’ ‘遠貺’은 평항에 배치되었다. 해당 서계와 관련하여 같은 문헌에 자세한 기록이 실려있다.

대마도 측은 조선이 작성한 서계 가운데 ‘的知貴國人物’, ‘今茲大君伸謝, 若是優奮’ 등의 표현과, ‘左右送禮, 亦出常規, 又有遠貺珍重, 全靠厚春’과 같은 문장을 문제 삼아 해당 표현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대마도는 “漂人刷送, 兩國相好之誼也. 左右茲承貴大君之命, 伸謝之意, 若是其優奮, 是何鄭重之至. 此實緣兩國情意之交密, 而亦由左右誠信茂篤之致, 尤荷尤荷”라는 자신들이 제시한 문장으로 고치고 아울러 ‘大君’ 앞에 ‘貴’를 덧붙여 표기할 것을 함께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역관은 대마도 사자가 귀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임을 보고하며 장기 체류의 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는 어려운 사안이 아니니 제시한 문장을 일절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수정하여 속히 대마도로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馳啓하였다. 이에 조정은 승문원에 해당 서계의 개찬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⁸⁹⁾ 대마도는 조선 측이 작성한 서계 문장에 적극 개입하여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문장 전반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大君’ 앞에 ‘貴’를 첨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작성된 실물 서계에서는 ‘貴大君’이 극항에 기재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조선이 ‘貴大君’의 극항 배치에 상응하여 ‘王殿下’ 역시 극항에 기재한 서계가 확인된다.⁹⁰⁾ 대마도가 ‘貴大君’ 세 글자를 기존 극항보다 한 글자 더 높여 써줄 것을 요구하자 비변사에서는 이에 대해 ‘귀대군’ 세 글자를 높이기를 원한다면 ‘我殿下’ 세 글자도 같은 항에 함께 써야 하며 이 이후의 서계 중에 만일 반드시 ‘대군’이란 글자를 써야 할 경우가 생기면 역시 ‘殿下’ 글자를 꼭 쓰는 것으로 恒式을 삼아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⁹¹⁾ 조선은 ‘貴大君’과 마찬가지로 ‘王殿下’를 ‘朝鮮國’, ‘日本國’, ‘兩國’, ‘貴國’ 보다 한 칸 위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恒式과 자국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88) AJP048_01_00K0757.

89) 『書契違式謄錄』, 권1, 1650년 庚寅七月十一日, 092b쪽-094b쪽, 此書契中, 今茲大君伸謝, 若是優奮等語, 有若大君直送使价, 修謝者然, 且有左右送禮, 亦出常規, 又有遠貺珍重, 全靠厚春云云, 似是重疊, 亦未知其意, 回答書契, 懇勸修撰, 從速下送, 則急急回棹, 入納大君之意, 當初茶禮宴享時, 再三懇陳, 後屈指計日而答書措語, 如是未盡, 決不可持納江戶是如云云爲去乙(…) 漂人刷送兩國相好之誼也. 左右茲承貴大君之命, 伸謝之意, 若是其優奮, 是何鄭重之至. 此實緣兩國情意之交密而亦由左右誠信, 茂篤之致, 尤荷尤荷云云(…) 左右茲承貴大君之命, 伸謝之意, 若是優奮, 是何鄭重之至, 此實緣兩國情意交密, 而亦由左右誠信茂篤之致, 尤荷尤荷云云等語, 懇勸改撰而其以下, 則依此書契爲之爲良結是如云云爲白臥乎所, 似非大段難從之請是白置, 不爲加減而一依渠之所願文字, 亦未知如何如爲白乎喻緣由并以馳啓事.

90) 해당 내용은 <서계 2878>에 보인다. 1711년 예조참의 吳命峻 명의로 발급된 서계에는 막부가 舊號를 회복하여 書式을 바꾸는 과정은 誠信의 도리에 어긋나지만 王殿下께서 특별히 관대함을 베푸셨으니 貴州는 本朝의 德意를 새기어 더욱 隣好에 힘쓰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계 문면에는 숙종을 가리키는 ‘王殿下’는 극항에, 조선 조정과 막부를 가리키는 용어인 ‘朝廷’, ‘本朝’, ‘東武’는 중항에 배치되었으며 대마도와 대마도주를 가리키는 용어인 ‘貴州’, ‘左右’는 평항에 위치하였다.

91) 『仁祖實錄』 47권, 인조 24년 4월 14일, 東萊府使黃原馳啓曰 倭人請於書契中, 貴大君三字, 又高一字於極行之上, 且願得武經七書直解一帙. 請令朝廷議處. 上下其議, 備局回啓曰, 彼必欲以貴大君三字, 加書一層, 則當以我殿下三字, 並書於一行. 此後往來書契中, 如有必用大君字, 則亦必用殿下字, 以爲恒式, 似合權宜. 上從之.

이상으로 1616년 이후에 발급된 서계를 살펴보면, 극항에는 중국을 지칭하는 ‘天朝’, 중항에는 조선을 지칭하는 ‘本國’의 ‘國’ 자를 한 자 높여 기재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 조정과 왕실을 의미하는 ‘朝廷’, ‘聖人’, ‘大妃’, ‘先王’, ‘世子’ 등의 표현 역시 중항에 배치되었다.

반면, 평항에는 주로 대마도 및 막부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위치하였다. 발신자·수신자·연월일은 평항에 기재됨과 동시에 일본 막부를 뜻하는 ‘東武’, ‘貴國’, ‘貴邦’, 대마도를 나타내는 ‘貴島’, ‘貴境’, 대마도주를 의미하는 ‘足下’, ‘左右’, ‘先太守’, 대마도 사자를 가리키는 ‘來价’, ‘橋使’, ‘令嵩’, ‘回便’ 등도 모두 평항에 배열되었다.

한편, 평항보다 한 글자 낮은 위치에는 ‘禮曹參判’, ‘禮曹參議’, ‘禮曹佐郎’, ‘東萊府使’, ‘釜山僉使’ 등이 기재되었으며, 본문에서 ‘兩譯’을 언급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 자 낮추어 표기하였다.⁹²⁾

<表 2-1> 1616년-1643년 사이에 발급된 서계 極行·中行·平行별 주요 용어

極行	天朝
中行	(本)國, (所)獻, (轉)啓, 朝廷, 聖人, 大妃, 先王, 世子, 進上, 啓, 寡君
平行	朝鮮國, 日本國, 年月日, 東武, 廢朝, 執事, 足下, 左右, 先太守, 賢太守, 貴島, 貴邦, 貴國, 兩國, 貴境, 貴州, 國中, 貴价, 來价, 橋使, 遠信, 惠音, 體履, 芳槭, 體況, 眷意, 茂膺, 行施, 盛教, 回便, 隣恤, 令嵩

그러나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한 시기를 기점으로 극항·중항·평항에 배치되는 용어들이 점차 변화가 나타난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마도 및 대마도주를 지칭하는 용어, 그리고 연월일은 여전히 평항에 위치하였으나, 막부와 쇼군을 가리키는 용어인 ‘東武’, ‘貴邦’, ‘貴國’이 이 시기부터 중항에 배치되어 조선 관련 용어들과 나란히 등장하게 된다.⁹³⁾ 이후 시기가 흐르면서, 쇼군을 지칭하는 표현은 점차 극항으로 격상되면서 이와 함께 다른 용어들의 문면 배열에도 변동이 생기기 시작한다.

<表 2-2> 1644년-1686년 極行·中行·平行별 주요 용어

極行	(我)主上, 聖上, 新王, 貴大君, 貴新大君, 新大君
中行	朝鮮國, 日本國, 大明國, 朝鮮, (我)國, 本國, 兩國, 弊邦, 東都, 貴京, (轉)啓, 啓納, 朝廷, 先朝, 東武, 貴國, 貴邦, 特施, 大猷院, 大權現廟 (蒙)恩, (事)上, 江城, 眷遇, 殊榮, 封進, 茂對, 玄宮, 令緒, 舊緒, 儲嗣, 貴儲君
平行	干支, 日本, 芳訊, 盛賜, 動履, 左右, 來价, 槎便, 專价, 遠賜, 來使, 惠書, 芝函, 好音, 起居, 芳訊, 貴州, 華翰, 惠賜, 興居, 盛价, 太守, 貴价, 華緘, 一州, 世爵, 前緒, 腆賜, 世掌, 家聲, 戟纛, 玆賜, 先志, 先拾遺, 嘉賜, 委札, 貴境, 專使, 館守, 行施, 惠牘, 信札, 返施, 貴國臣民

변천 양상을 살펴보면, 평항에는 대마도 및 대마도주 관련 용어가 위치하였고, 기존에 극

92) 해당 내용은 <서계 349>에서 확인된다.

93) 『書契違式謄錄』, 권1, 1644년 甲申十二月二十四日, 043b쪽, 僉使又曰此書契中, 既書於貴國本邦等字極行, 則台聽二字, 亦當一樣書之可也是去乙, 如是書於國之上事, 甚無理邊. (….) 前後書契謄錄, 相考爲白乎矣, 我國書契段, 朝鮮朝廷則書於極行, 日本東武則書於中行爲白乎, 前日耶蘇宗門請捕回答書契時, 平義成, 托以謄送江戸, 再三強懇, 本書契則平行而他書契則日本東武乙, 竝與朝鮮朝廷而中行改送爲白有在果.

항에 배치되던 ‘朝鮮國’, ‘日本國’은 ‘貴大君’이 극항으로 상승 배치되면서 중항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조선은 ‘貴大君’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主上’, ‘聖上’을 극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격식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문면 배열의 변화는 모두 대마도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表 2-3> 명칭교체기 極行·中行·平行별 주요 용어와 변천 양상

平行 → 平行	太守, 左右, 執事, 貴州, 一州, 貴境, 世爵, 前緒, 世掌, 家聲, 先志, 先捨遺, 館守, 貴國臣民
平行 → 中行	朝鮮國, 日本國, (我)國, 兩國, 本國, (轉)啓, 啓納, 東武, 貴國, 特施, 貴邦, 大猷院, 大權現廟 (蒙)恩, (事)上, 江城, 眷遇, 殊榮, 東都, 貴京, 東武, 茂對, 令緒, 儲嗣, 貴儲君
中行 → 極行	主上, 新王, 聖上, 貴大君, 新大君

서계 용어는 문면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시간의 흐름과 외교 정세의 변화에 따라 특정 용어의 문면 배치는 점차 조정되었다. 특히 어떤 용어가 평항에 위치하는지, 혹은 중항이나 극항에 배치되는지는 당대의 조일간의 외교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단순한 형식상의 조정이 아니라 당시 조일 관계의 재편과 정치적 위계 변동이 문면 구성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644년을 전후하여 자행의 높낮이 배치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양상은 『書契違式謄錄』에 기록된 사례의 증감에서도 확인된다. 1637년부터 기록이 시작되는 『書契違式謄錄』은 해당 연도에는 3건, 이듬해인 1638년에는 2건, 1640년에 2건에 그쳤으나, 1642년에는 5건으로 증가하고 1643년에도 동일하게 5건이 기록되었다. 이어 1644년에는 그 수가 11건으로 급증하며, 이후 1645년(15건), 1646년(8건)을 지나 점차 다시 기록 건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기록 건수의 증가는 서계를 둘러싼 문체 제기와 교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대의 정치·외교적 긴장 고조가 심화된 시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書契違式謄錄』에 수록된 사례를 대상으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1642년부터 1646년까지의 6년간 총 44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 시기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대일 외교 실무진의 교섭과 인식, 그리고 대마도의 요구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외교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3 개찬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의 대응과 인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계의 자행 높낮이는 1644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보이며 모두 대마도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은 전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마도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마도는 기존 외교문서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서계는 문면을 통해 위계와 질서를 드러내는 외교문서였으므로

서계의 문구나 형식에 대한 개찬 요구는 곧 조선의 정치외교와 국제질서에 대한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었다.

1644년, 조선 역관은 서계의 字行의 高低 문제와 관련하여 “근래 倭情이 지난날과 크게 달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恒式을 때면 어기니 독촉하여 개찬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⁹⁴⁾라고 우려하였다. 이는 조선이 기존에 유지되어 온 외교 규식과 규범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대마도에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조선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대마도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용하거나 거절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국가의 체면에 큰 손상이 없고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대마도의 요구를 받아들여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차왜가 왜관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조선의 재정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된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였다.⁹⁵⁾

다만, 조선은 대마도의 과도한 개찬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대마도가 한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계의 한 글자에 집착하여 문제를 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마도를 상대로 설득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의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掩耳偷鈴)”라 하며 난처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⁹⁶⁾

1642년(인조 20) 3월 16일, 대마도는 조선의 회답서계에 사용된 글자 가운데 交好의 ‘交’와 ‘左右以爲如何’, ‘奉復’의 ‘復’, ‘衆官回承別示’ 등을 문제 삼아 交好의 ‘交’를 ‘修’로 고치고, ‘左右以爲如何’ 등의 문구는 ‘幸諒示’ 세 글자를 첨서해주며, 別書의 ‘奉復’ 두 글자와 ‘衆官回承別示’ 등의 글자는 대마도주가 예조에 서계를 보낸 것이 마치 强請하는 것 같은 뜻이 어투에 드러나니 이 서계는 결단코 대군에게 들여보낼 수 없으므로 ‘復’을 ‘書’로 고치고 ‘衆官回承別示’ 등의 여섯 글자는 ‘獲承抵衆官處別示’로 써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역관은 문제 제기한 글자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해당 글자에는 아무런 문제 없음을 강조하고, 서계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갈 것을 강경히 주장하였다.⁹⁷⁾ 그러나 書僧이 종일토록 물러서지 않자, 역관은 그 태도를 평하면서, ‘恕首座⁹⁸⁾는 비록 書僧이라고는 하나 文字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흠을 잡고 트집을 잡으며 글자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대마도가 조선 서계의 ‘隣’와 ‘睦’ 글자를 문제 삼아 개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동래부사가 해당 글자가 이전부터 서계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표현임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역관이 오히려 동래부사를 설득하며, 일본이 문자에 익숙하지 못하여 대마도의 文書僧이 ‘隣’을 ‘隣里’의 ‘隣’이라고 생각하고, ‘睦’ 또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94) 『書契違式謄錄』, 권1, 1644년 12월 14일, 044a쪽, 近來倭情, 大異於前日, 前後字行, 每違恒式, 督令追改, 曾非一再.

95) 『書契違式謄錄』, 권2, 1656년 丙申三月二十九, 006a쪽, 久留館中, 空費日供糧饌爲白臥乎所, 誠極悶慮, (…) 依其言, 令承文院, 更爲撰送, 以除久留虛空之弊, 何如.

96) 『書契違式謄錄』, 권1, 1642년 壬午五月二十日, 011b쪽, 近年以來, 大小之事, 初發恐嚇, 期於必得百般肆惡, 竟至成願而回答書契, 至欲以自我特給樣書給, 此所謂掩耳偷鈴者也.

97) 『書契違式謄錄』, 권1, 1642년 壬午三月十六日, 007a쪽-008a쪽,

98) 『典客司日記』에는 ‘徐首座’로 되어 있다. (典客司日記, 仁祖 20年, 三月十六日)

설명하였다. 이어서 “대마도 승려도 이러한데 에도의 승려인들 어찌 이것을 알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개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⁹⁹⁾ 이는 대마도와 에도의 외교문서를 담당한 불가 승려들이 유교 경서를 원용한 한문에 충분히 숙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양측 외교문서 담당자 간의 경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해 능력의 간극이 충돌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조선은 대마도가 서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서의 중개자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보았다. 1644년 9월 23일, 관수가 조선 측 서계 字行의 높낮이가 매우 부당하다며 극항에 기재된 ‘朝鮮國’의 ‘朝’와, ‘日本國’의 ‘日’ 그리고, ‘朝廷’의 ‘朝’, ‘我國’의 ‘國’, ‘貴國’의 ‘貴’를 모두 대마도와 동일하게 평항에 써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역관은 해당 글자를 극항에 쓰는 것은 國體를 높이는 예법이며 신하 된 도리로 마땅한 것이니 이는 대마도가 따질 사안이 아니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거절하였다. 이후 동래부사는 역관을 시켜 대마도의 진의를 알아보게 하였는데 이는 단지 대마도를 가리키는 용어인 ‘貴州’ 두 글자를 평항에 써서 에도로 보내게 된다면 誇張할 때에 위상을 높이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¹⁰⁰⁾ 이처럼 조선은 대마도의 개찬 요구를 위계와 질서를 개입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대마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99) 『書契違式謄錄』, 丙戌三月十五日057b, 改撰書契入給而前來私書不必回答, 東萊府使黃辰狀 啓, 乙酉條副特送正官等, 依例進[058a]上肅拜後, 初次宴設行爲白齊, 節到付禮曹關內節, 該漂倭入送書契, 改撰以送, 隣字自前通行之意, 明白開諭事, 到付爲白有去乙, 同書契卽爲入給爲白在果, 當初請改時, 臣與之往復爭辨, 非止一再, 渠等答以日本之不習文字, 大人所知, 島中文書僧, 以隣字爲隣里之隣, 睦字亦不知其意, 此僧如此, 江戶之僧, 亦安知爲此語也, 懇乞改撰爲白去乙, 一邊開諭一邊啓聞爲白有在乎, 今此書契, 令譯官等, 一一解釋, 則渠等稱謝爲白齊, 前來島中私書, 非島主之書, 不必回答是白乎等以禮曹下送本府及釜山所答草稿不爲成給爲白臥乎事.

100) 『書契違式謄錄』, 권1, 1644년 甲申九月二十四日, 032b쪽-035b쪽, (….)卽當就館, 則與館守一處, 聚會而言曰, 今此書契, 告于東萊釜山兩令監前, 速當改書以給, 亦云云爲白去乙, 小的等, 答曰古無前規, 故前使之來, 亦不許改, 又何必至此煩瀆耶, 雖島主躬親來到, 竟不得志, 況此長老一片私書乎. 邊臣私書相通, 自有 國法, 長老私抵之書乙, 東萊令監, 安敢發言於 朝廷之嚴乎, 且書契之相通, 非但自有流來定式, 今此回答, 卽禮曹所送之書, 則 國朝兩字, 書於極行, 自是敬國之禮, 乃臣子之理所當然, 而非爾等之所可爭詰也, 明矣. 若使爾等書大君, 則不書於極行乎, 爾等不知臣子之禮當然, 而遽爾請改, 其何無理之[033b]甚耶, 雖啓達朝廷, 而流來定式乙, 萬無到今改給之理, 持此書契, 不如早歸之爲愈云, (….) 以爲例爲白乎跡, 日本國書諸平行爲白良置, 朝鮮之三字乙, 亦與日本國而列書於平行, 則又無彼輕自重之端是白去乙, 自兩國書契相通之後, 積年流來, 已定恒式之字乙, 到今請改, 極爲無據, 況於李亨男答問之時節叱分, 請改之說, 尤涉苟且, 事理如此爲白乎等以, (….) 書契字行高低, 自有流來定式, 決不可變通之意, 曾於洪喜男, 下來時, 面諭丁寧是白去乙, 今又以一如渠等任意書送江戶之謄本, 改書亦委來督嚇爲白乎跡, (….) 觀此書契, 又如是字行低昂事, 甚不當, 朝鮮國之朝[035b]字, 日本國之日字 朝廷之朝字, 我國之國字, 貴國之貴字, 并爲平行書給亦云云爲去乙, 卑職答曰 朝鮮國, 日本國, 我國, 貴國等字一樣極行書填, 別無彼此損傷之端, 而字行高低, 則自前定式是去乙, 今番耳, 亦如是爭詰, 未知其由弊不喻, 公所言事, 極無理是如, 開諭則館守及正官等曰設或常時往復書契乙良, 依前字行高低書填爲乎喻良置, 此書契及今番差倭還持來書契則, 島主親自傳納大君前矣, 今此二道書契乙良節叱分罷格, 一依所陳之言, 平行書給之意, 告于東萊令監前, 轉達 朝廷, 亦多般言說爲去乙, 卑職答曰不小兩國問文書節叱分, 罷格之說, 尤極無據爲沙餘 朝廷既已不許之事, 今難更改, 東萊令監, 萬[036a]無啓 違之理是如, 峻責則館守等, 多發怨色而無數恐嚇爲跡, 同書契終始 不受爲乎等以, 不得已, 代官倭處, 姑爲接置爲有在乎, 大概狡倭所爲, 極爲叵測, 同書契乙, 更良開諭, 入給計料爲在果, 終始牢拒, 不受則何以處之爲乎喻, 參商行下教是乎跡, 他餘事段, 迫于手本是白置有亦, 使李亨男, 密探其意, 則曾前書契, 島主之必欲請改者, 非但以國字朝字之極行爲嫌而書契中, 貴州二字乙, 書之於平行, 到江戶, 誇張之際, 有妨於自尊, 欲以國字朝字及日本等字, 并欲等書於平行是白在如中, (….) 慶尙監司林壇狀啓內, 卽接東萊府使, 馳報李亨男齋來書契, 又以字行高低, 相持不受是如爲白有臥乎所, 倭人情態, 近來每事如此, 極爲可怪, 問答曲折, 詳在於沈之溟, 馳啓中, 令該曹, 斯速停當分付, 俾無久留, 難便之弊事, 據曹 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前後所爭字行, 皆非可從之事, 竝令洪喜男, 開諭付送之意, 行移何如, 同副承旨李之恒次知 啓依允.

이해할 수 있다.

대마도는 정치적 의도를 서계에 반영하기 위해 조선에 보내는 서계에도 격식과 어긋난 형식을 기재하여 발송하기도 하였다. 서계의 발신자 명칭에 ‘日本國對馬州太守平義成’ 대신 ‘臣從四位下侍從’ 등의 일곱 글자를 덧붙여 ‘日本國臣從四位下侍從對馬州太守平義成’ 라고 표기하자 이를 본 조선은 해당 서계가 비록 常規에는 어긋나지만, 이는 저들의 과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선은 자국에 실질적인 해가 없다고 보아 회답서계에서도 대마도가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¹⁰¹⁾

이와 같이 대마도는 중개자의 입지를 이용하여 서계를 활용하여 이중적인 외교 연출을 하였는데 특히 막부 쇼군 관련하여 더욱 두드러졌다. 대마도는 조선이 발급한 서계를 쇼군에게도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선이 발급한 서계의 글자와 표현을 문제 삼아 개찬을 요구하였다. 대마도는 조선 측 서계에 ‘大君’ 앞에 ‘貴’를 붙이고 이를 극항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¹⁰²⁾ 대마도 역시 조선에 보내는 서계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군’ 관련된 용어를 극항에 기재하여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서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차왜가 지참한 서계에는 ‘台聽’ 두 글자가 기존의 극항보다 높은 위치에 기재되었는데 조선 측이 그 의미를 묻자 차왜는 이를 ‘大君의 말’이라 설명하였다. 조선 측은 해당 표현이 ‘貴國’, ‘本邦’과 동일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극항에 배치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차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조선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서계를 대마도로 다시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하였다. 조선은 이후 동일한 방식의 작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한 뒤, 해당 서계를 수령하였다.¹⁰³⁾

그러나 조선의 유연한 대응은 때로는 대마도의 의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대마도는 서계의 개찬을 요구하면서 이를 일회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사안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번에만 요구한 대로 써준다면 양국 사이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회유함과 동시에, 만약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해 끝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후회막급’일 것이라 덧붙이기

101) 『書契違式謄錄』, 권1, 1645년 乙酉五月二十九日, 052b쪽, -053a쪽, 謝差齋來書契以日本國臣從四位下侍從對馬州太守書送依渠所書仍令填送曹啓曰, 自前倭書契中, 以日本對馬州太守平義成, 書送矣, 今此謝使齋來書契, 則以日本國臣從四位下侍從對馬州太守平義成書送, 卽今修答, 依渠所書書填, 則有違常規, 依前規去, 其臣從四位下侍從七字下送之後, 彼如有相爭, 趁未事▶完, 則館穀誠爲有弊, 且七字書填之意, 雖未能的知而似是職銜中, 兼帶之例, 渠之誇顯在, 我似無利害, 依渠所書, 仍令填送, 似或無妨, 而事係新規惶恐啓傳曰依啓. 관련 내용은 서계 AJPO48_01_00K0642, AJP048_01_00K0643에서 확인된다.

102) 『書契違式謄錄』 권1, 1646년 丙戌四月十四日, 059b쪽, (...) 至於貴大君三字, 欲加層書填者, 實是無前之事, 令東萊府使, 更加明白論辨, 期於動聽入送爲白乎矣; 丙戌四月二十四日, 060b-061a, 正官等皆曰今此書契中, 辭意與前書契一樣券不喻, 前書契中, 貴大君[061a]書填矣, (...) 貴大君三字加一層事, 朝廷決不准許, 俺等東萊令監前, 今不可陳達, 東萊令監, 雖爲聞知, 亦不敢啓聞.

103) 『書契違式謄錄』, 권1, 1644년 甲申十二月二十四日, 043a쪽-043b쪽, 禮曹了書契中, 台聽二字乙, 書諸極行之極行爲有去乙, 僉使送言曰所謂台聽云者, 何如是書於極行之極行乎云, 則差倭答曰台聽, 乃是爲大君之言, 故有此書之是如云云爲去乙, 僉使又曰此書契中, 既書於貴國本邦等字極行, 則台聽二字, 亦當一樣書之可也是去乙, 如是書於國之上事, 甚無理邊, 臣不可擅捧上送是如, 牢拒則差倭曰俺則只爲謝書傳納而已, 不知下字是非, 而若或牢拒不捧, 則還爲齋持入歸之外, 更無可爲之事是在果, 其於島主, 無顏莫甚, 是如縷縷懇說爲臥乎所.

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실무진은 ‘후회막급’이라는 표현이 곧 협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크게 놀라움과 불쾌감을 표출하였고, 이를 단순한 외교 교섭이 아니라 협박적 성격의 압박으로 인식하였다.¹⁰⁴⁾

나아가 대마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수위를 더욱 높이는 양상을 보였다.¹⁰⁵⁾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동래부사는 대마도주의 회답 서계를 수령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대마도 측이 동일한 방식으로 요구를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비변사가 역관들에게 줄곧 엄하게 준책하라고 하기만 하고 서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국 대마도측의 공갈과 협박이 점차 심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서계를 고쳐주도록 허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체의 손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된다는 내용을 조정에 치계하기도 하였다.¹⁰⁶⁾ 동래부사의 보고는 대마도의 요구가 이미 공갈과 협박의 성격을 띠며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현장 실무진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정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현장 실무진과는 다소 다른 대응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1644년 이후로 대마도는 서계의 서식과 문면에 강도 높게 개입하며 조선 측에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압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선은 대마도의 서계 개찬 요구를 성리학 경서를 원용하여 작성된 文字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104) 『書契違式謄錄』 권1, 1644년 甲申八月初九日, O30a쪽-O31a쪽, 差倭言曰今番畚, 平行書給, 兩國終無始事可乎. 更不稟定中間防塞, 使島主陷於不察之地, 無事中有事可乎. 其間利害, 詳細馳啓處置(…) 館守等言曰如是防塞, 朝廷分付耶, 知事之操縱, 至於此極耶. 以此些少之事, 終始難處, 則後悔莫及, 莫如今日善處之爲愈. 答云, 所謂後悔莫及之說, 乃是恐嚇, 尤極可駭是如. 峻責開諭, 則館守言曰, 知事則一向牢拒, 決難聽從爲答, 平差則違島主命令, 亦難齎持入往爲言, 其間處置, 事甚難處, 不得已報知島主, 一從回答處之可也云云爲跡.

105) 『書契違式謄錄』 권1, 1644년 甲申九月二十八日, O36b쪽-O37a쪽, 東萊府使沈之溟狀 啓, 卽接別遣譯官李亨男, 訓導張偉敏等手本內, 差倭平成光及館守平成論等, 送書招致爲去乙, 卑職等卽爲就館, 則館守言曰, 島主入往江戶, 日期在邇而平成光還持來回答書契, 從速改撰以給爲良沙, 可及於島主未發船入江戶前是去乙, 差倭出來已久, 東萊釜山不爲接見, 於心所見, 小無向島主相厚之道, 而況於旦長老差人, 如是薄待乎. 館守之任, 無他, 一則禁諸館中, 一則彼此事情, 曲陳於左右之任. 故俺今此書契, 不可不改撰之由, 縷縷陳說爲乎矣, 視同楚越, 如是攔阻, 似是兩國誠信之道, 幾盡之秋也是如. 恐嚇之言, 無所不至爲齊, 差倭平成光又曰, 既爲入送島中書契, 還爲持來, 其意有在, 俺多有面陳之事, 而出來已久, 頓無相接之色, 此不過小看長老[O37b]而拒絕不受之意是在果, 今此書契, 不爲改撰以給, 則俺雖死於館中, 萬無歸島之理是如云云爲跡, 同回答書契乙, 出給爲去乙卑職等答曰兩國文書間, 字行高低, 自有定式是去乙, 公等以無理之事, 如是恐嚇, 事極無據券不喻, 朝廷既已不受之事, 今雖千言萬言, 小無更改是沙餘良, 不小書契, 豈有私自持去之理乎. 從速齎持入歸, 亦措辭開諭, 則差倭平成光, 本以傑驚之倭, 以此無用, 書契萬無還持入歸之理是如, 無數恐嚇而書契不有尊敬之色, 所見極爲叵測, 其爲無狀, 難盡一一爲齊, 卑職齎來漂流人入送書契段置, 亦以字行高低爲執言, 不受緣由, 并以手本爲臥乎所, 手本是白置, 有亦倭人情狀, 近來叵測, 不知事理之當否, 而唯以[O38a]得遂已欲爲先務, 問答之間, 言辭不遜券不喻, 至於書契, 亦不敬待是如爲白臥乎所, 極爲痛惡, 平成光爲人, 以倭中至狡至猾之人, 與館守特送等, 一樣符同, 或曰直陳於本府府使爲跡, 或曰此非兩國和好之道是如, 萬端恐嚇, 無所不至, 同書契改不改間, 請令該曹急速定奪分付事, 據曹 啓目粘連 啓下是白有亦譯官洪喜男, 既已下去, 待其詰問開諭, 更爲處分宜當, 差倭則已爲接待事分付, 特送正官, 以並爲限內行禮速爲入送之意行移何如, 同副承旨臣李之恒次知 啓 依允.

106) 『書契違式謄錄』 권1, 1643년 癸未十二月二十七日, O23a쪽, 島主書契回發嚴辭撰送事參以臣之妄見, 如此猥濫, 書契每次循例不捧而已, 若不據例嚴辭回答, 則必無悔悟懲改之端, 以事體不當之意, 各別嚴辭回答, 以塞此路, 似或得宜爲白乎去, 冒濫陳達者, 非但欲其洞塞此路, 渠若終始請得回報迫責不已, 則事極難處爲白去乎, 亦以爲慮如是, 竝 稟爲白有如乎, 備局覆 啓時, 此一款, 全不舉論, 只以峻斥不捧之意回下行會爲白有去乙, 令譯官等一向峻斥不捧爲白如▶◀有乎, 及其恐嚇迫責之端, 節節加層然後, 始乃許其回答, 渠等知其不得已勉捧之意, 國體所損, 到此益甚迫悔莫及爲白齊.

것으로 보았으며, 에도 막부와 조선을 각각 상대로 자신의 외교적 위상을 드러내고 정치적 입장을 다지기 위한 이중적 정치 연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였다. 조선은 국가의 실질적 손상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안의 경중과 실리적 판단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며 격식을 조정하며 유연한 대응을 취하였다. 최일선 실무진과 조정 간의 대응의 차이는 있었으나 교섭 상황에 따라 허용과 거절을 병행하며 대일 외교 전략을 구사하였다. 서계를 둘러싼 조선의 대일 교섭은 전략적인 정치외교에 따른 결과였다.

3. 결론

본 논문은 명청교체기에 발급된 서계 실물 문서를 대상으로 서계의 용어 및 자행 고저 배치 변천 양상을 분석하고, 관련 문헌 기록을 통해 조선의 교섭 양상과 인식을 고찰하였다.

서계는 서간문식 격식을 기반으로 발·수신자의 위계에 따라 용어와 자행이 엄격하게 규정된 외교문서였다. 조선은 자행의 높낮이를 통해 국제 관계의 위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문면에 반영함으로써 위계질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외교 질서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명청교체기에 접어들면서 대마도는 서계 문면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조일간 외교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고, 조선과 에도를 상대로 한 이중 외교 연출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은 대일 외교 기조와 서계 격식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국가의 실질적 손상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마도의 요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섭하였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세 속 서계의 例格과 현실적 대응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대일 교섭이 재조정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용어 선택과 자행 고저의 변화로 나타난 서계 문면에는 기존 질서와는 다른 위계 의식과 긴장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644년 명 멸망 이후로 대마도의 서계 개찬 요구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와 조선이 대마도의 외교 행위를 ‘恐嚇’, 즉 공갈과 협박으로 인식한 사례는 단순히 대마도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기존 조일 간의 외교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 유지되어온 규범이 대마도를 상대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만, 조선은 대마도의 서계 개찬 요구를 ‘글자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한 배경은 대마도의 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된 전략적인 외교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역관들이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雨森芳洲의 대마번 초빙 배경과 역할을 함께 살펴본다면 양국의 서계를 둘러싼 외교 상호 인식과 교섭 양상을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참고문헌

原典

『書契違式臚錄』

『仁祖實錄』

전자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https://library.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저서

김종원 외, 「한국사 29, 조선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이 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논문

박대현, 『한문서찰의 격식과 용어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박지원, 『조선시대 외교문서 書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6.

이 훈, 「조선후기 違式書契를 통해서 본 朝日交渉의 특질—조선측 書契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_____, 「조선후기 대일외교문서(對日外交文書)-통교재개 이후 서계식(書契式)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1993.

장순순, 「조선후기 일본의 書契違式 실태와 조선의 대응—『邊例集要』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정성일, 「國書와 書契로 본 조선후기(1600~1870) 대일외교」, 『명청사연구』, 52, 2019.

【토론문】

「명칭교체기 서계(書契)의 변천과 조선의 대일 교섭 양상」에 대한 토론문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1) 논평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약칭) 외교문서인 書契를 가지고 본격적인 논문을 쓴 바는 없으나 2000년대 국편 중가문서 정리의 一端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토론을 맡게 되었고 몇몇 연구자들만이 접할 수 있는 書契를 자주 접하면서 업무를 해 온 이력 때문에 토론을 응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토론자로서 약점은 미리 양해를 얻고자 한다. 앞서 석사논문의 단계에서 토론자가 읽고 논평지를 준 일이 있고 앞으로 書契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그것에 담겨있는 문서적인 의미를 밝혀내고 나아가 한일관계사의 부면을 좀더 밝혀줄 수 있는 연구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심정이다.

(2) 연구사 검토가 미밋하게 이루어져 전체적인 서술이 연구적인 흐름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점을 밝혀냈는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3) ‘명칭교체기’ 라는 용어를 썼고, 석사논문에서는 17세기라고 썼다. 명칭교체기라는 용어가 시대상을 드러내기에 좋아보일지 모르겠으나, 외교문서인 書契에서 명칭교체기의 특성이 드러내야만 수식어의 값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면 명칭교체기라는 시기적 요인을 발표자가 드러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애시당초 17세기 서계로 넓게 잡고 석사논문 단계의 내용을 요약하고 부족한 점은 부표로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짝을 지워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을 좀더 세밀하게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평자는 생각한다.

(4)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을 연상하게 하는 본문 서술이 아쉽다. 이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문서의 형식적인 점을 충분히 정리하여 서술하되 그 형식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 즉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거기서 드러나는 기술로 매듭을 지어야만 독자들이 수긍하는 논증이 되는 것이다. 『書契違式臚錄』을 주로 활용했는데, 한 가지 자료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여타 연대기 자료와 『邊例集要』, 『東萊府接倭狀啓可考事目錄抄冊』, 『分類紀事大綱』과 대조해서 쌍방적인 면을 갖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가문서인 『분류기사대강』에는 조선쪽의 서계 규식이 맞지 않아 쓰시마변에서 개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서계위식등록』의 인용에서 인용 부분 모두가 본문 서술이 아니므로 밑줄을 긋거나 부표에서 전문 번역 후 요약하는 방법을 추후 해 볼 것을 권고한다. 여타 자료 비교→ 연구 논문과의 비교→ 논술

(5) 부정확한 용어, 국편 서계목록집(전5권)의 미대조, 개설서에 가까운 연구 논저의 인용, 논술의 입증 취약, 여타 자료의 대조 아쉬움, 인용 방식 불철저

5-1 부정확한 용어 : 1쪽, 서계는 조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 => 정치적이란 말보다 오히려 외교적 또는 적절한 용어로, 외교문서에서 ‘명확하게’ 라는 말보다 품격있게 넘지시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

5-2 개설서적 연구 논저의 인용=> 7쪽 각주 15) 김종원 외 한국사 29, 1995.

5-3 입증을 거친 논술이 이뤄지지 않은 점=> 11쪽 承文院이 서계를 개찬하는 관서는 아님. 직급 체계를 볼 것, 예조당상 또는 정랑 좌랑 수준에서 서계 개찬을 시행하고 글씨는 승문원에서 써서 발행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할 것임.

5-4. 2쪽 각주 6)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 서계(15점) => 국편 전자사료관에서 제공되지 않으나 마이크로 필름으로 서계는 모두 촬영되었고 열람 가능함.

5-5. AJP048_01... => 이 기호는 발표자가 이용한 국편 전자사료관의 기계적인 부호이고 기존 서계목록집에서 발급자 수급자 연대, 서계 연번을 먼저 표기해야 함. 대신 원문이미지 활용은 전자사료관 기호를 쓰면 됨.

6. 사료의 일부분으로만 끝내서는 안되는 요소

4쪽 差倭 平成連=> 1대 館守 内野權兵衛(田代和生, 1981년 저서 『近世日朝通交貿易史研究』, 創文社, 103쪽)

4쪽 각주 11) 鑄物=> 1643년 통신사 때에 日光에 조성된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당에 조선 문사의 글을 요구하고 鍾(銘)을 보내달라고 한 사항과 관련 있음

15쪽 각주 39) 洪喜男=> 1636·1643·1655년 통신사행의 역관으로 활약하고 이 인물은 발표자가 내세운 명청교체기의 왜학역관으로 활약상이 두드러지며 연구 논문도 있음

∴ 석사논문의 단계는 학계의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위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연구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발표자가 著心하는 마음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

제3발표

『류큐오라이(琉球往來)』 하권의 내용과 성격 — 상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 허지은(서강대학교)

토론 : 이재훈(동의대학교)

【제3발표】

『류큐오라이(琉球往來)』 하권의 내용과 성격 － 상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허지은(서강대학교)*

1. 머리말
2. 『류큐오라이』의 편찬 배경과 하권의 구성
3. 『류큐오라이』 하권의 주요 내용
4. 상권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하권의 성격과 의의
5.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은 일본 정토종(淨土宗) 승려 다이쥬 쇼닌(袋中上人, 1552-1639)이 1603년부터 3년 동안 류큐(琉球)에 머물던 중에 편찬한 『류큐오라이(琉球往來)』 하권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류큐오라이』는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된 편지 형식의 오라이모노(往來物)다. 상권에는 모두 15통의 편지가 실려 있고, 정월·삼짇날·단오의 궁중 의례와 국왕·고위 관료의 직무, 중국 책봉 사에 대한 접대와 절차 등 국가적인 의례와 규범을 주로 다룬다. 반면, 하권에는 모두 13통의 편지가 실려 있고, 공물 징수나 재정 장부 작성, 물자 관리, 산수와 중량 단위, 건축 자재사찰 운영, 약재 등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권은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고, 성격도 다르다. 특히 하권은 당시 류큐 관료들에게 필요했던 행정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류큐오라이』의 저본에 대한 소개부터 다이쥬 쇼닌의 류큐 체류와 저술 활동까지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시마무라 고이치(島村幸一)는 8종의 현존하는 판본의 서지사항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세문고(岩瀬文庫) 소장본을 번각(翻刻)했다. 또한 『류큐오라이』가 데이쿤오라이모노 유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소식문을 모은 데이토쿠문집(貞徳文集)과 같은 형식의 오라이모노를 모델로 삼아 편찬된 것으로 보았다.¹⁰⁷⁾ 노무라 나오미는 법림사(檀王法林寺)에 소장된 다이쥬 쇼닌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다.¹⁰⁸⁾ 허지은은 오라이모노 해제사전

107) 島村幸一, 「琉球往來解題」·「岩瀬文庫本『琉球往來』翻刻」(小峯和明 編, 『古琉球をめぐる文学言説と資料学』, 三弥井書店, 2010).

108) 野村直美, 「檀王法林寺所蔵 袋中上人琉球関係資料調査報告」 『史料編集室紀要』33(沖縄県教育委員会, 2008)

(往来物解題辞典)에 수록된 류큐 관련 오라이모노의 목록을 정리하고, 『류큐오라이』의 집필 배경과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류큐의 실상과 일본에서의 류큐관련 지식·정보가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검토했다.¹⁰⁹⁾ 스즈키 다쓰야(鈴木達也)는 『류큐오라이』를 전형적인 데이쿤오라이모노(庭訓往来物)라고 보고, 특히 하권에 수록된 담배 관련 내용을 근거로 저술 시기를 1608년으로 추정했다.¹¹⁰⁾ 이케미야 마사하루(池宮正治)는 『류큐오라이』의 내용 분석과 함께 당시 류큐 사회에 대해 고찰했다.¹¹¹⁾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류큐오라이』의 판본 계통, 편찬 배경, 담배, 불교, 의례와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한 분석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하권 각각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하권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상권과 비교해 그 특성과 성격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앞서 상권의 번역과 주석 작업을 통해 『류큐오라이』의 문헌적 가치를 고찰한 바 있다.¹¹²⁾ 본 연구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하권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상·하권의 내용을 비교해 『류큐오라이』 전체의 구성과 성격을 좀 더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¹¹³⁾ 상권이 국가 이념과 의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면, 하권은 이런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두 권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류큐오라이』는 마행명의 요청으로 편찬된 오라이모노로, 당시 류큐 무역과 외교를 담당하며 문화와 교육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구메삼십육성(久米三十六姓)의 자제 교육을 위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⁴⁾ 이런 점에서 상권과 하권의 구성 차이는 주제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 국가 이념과 의례,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폭넓게 아우르려 했던 편찬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류큐오라이』는 류큐 관료가 직접 만든 오라이모노가 아니라, 일본 승려 다이쥬 쇼닌이 류큐에 머물던 중에 편찬한 오라이모노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류큐의 제도와 관행을 정리하고 서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곧 자료로서의 한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이쥬는 류큐에 머무는 동안 상녕왕(尚寧王)을 귀의시키고, 나하항의 고관이었던 마행명(馬幸明)과 깊은 친분 관계를 맺었다.¹¹⁵⁾ 이런 인연으로 그는 류큐 왕부의 제도와 운영 방식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권에 수록된 조세 장부, 교역 물자의 단위, 도량형 체계, 건축 및 약재 관련 지식 등도 역시 다이쥬가 현지에서 확인한 제도와 관행을 교육에 맞춰 체계화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하권의 내용은 외

109) 허지은, 「류큐오라이(琉球往来)와 류큐 관련 지식·정보의 유통」, 『전북사학』 61, 2021.

110) 鈴木達也, 「琉球往来考」, 『たばこ史研究』 74, たばこ史研究会, 2000, pp. 3310~3313.

111) 池宮正治, 「袋中『琉球往来』の眞実」(小峯和明 編, 앞의 책, 2010), pp. 23~35.

112) 허지은, 「다이쥬 쇼닌(袋中上人)과 『류큐오라이(琉球往来)』의 문헌적 가치 - 上卷 역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82, 2024.

113) 허지은, 앞의 논문(2024)과 같이 본 논문에서도 『류큐오라이』의 일본교과서대계본(日本教科書大系本, 이하 대계본으로 약칭)을 저본으로 사용하였다. 본문에 인용한 『류큐오라이』 본문의 용어 설명은 <https://kotobank.jp/wor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デジタル大辞泉(小学館), 世界大百科事典(平凡社, 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등을 이용했고, 각주에서 별도로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114) 구메촌(久米村)은 1392년 명나라 홍무제가 류큐에 하사한 삼십육성(三十六姓)이 복건성에서 이주하여 거주하던 곳으로, 이들은 진공사(進貢使), 통역, 선박 제조 등 류큐의 무역과 외교를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구메삼십육성 자제들의 교육은 상천비묘(上天妃廟) 내 소규모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1718년 명륜당(明倫堂) 설립 이전까지 교육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다.(허지은, 앞의 논문(2021), pp. 283~284, 305~306.)

115) 허지은, 앞의 논문(2021), pp. 305~306.

부인의 관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당시 류큐 왕부의 행정 실태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2장에서 『류큐오라이』의 편찬 배경과 하권의 구성에 대해 정리한다. 3장에서는 하권(16~28통)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특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상권과 하권의 내용을 비교해 차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권의 성격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류큐오라이』의 편찬 배경과 하권의 구성

1) 편찬 배경

앞서 설명했듯이 『류큐오라이』는 1603년부터 1606년까지 다이슈 쇼닌이 류큐에서 머무는 동안 마고명의 요청에 따라 편찬한 오라이모노다.¹¹⁶⁾ 오쿠가키(奥書)에 "게이초(慶長) 8년 계묘(癸卯), 대명(大明) 만력 31년 무렵 류큐국에 3년 재류하던 중 나하항 마씨(馬氏) 고명(高明)의 청에 따라 지었다"고 적혀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류큐오라이』의 편찬 시기가 1603년 무렵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오라이모노가 단순한 여행기나 견문록이 아니라,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교재라는 사실이다. 편찬을 요청한 마고명은 류큐의 무역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관료였으며,¹¹⁷⁾ 이러한 사실은 『류큐오라이』가 어떤 교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교재에 실린 지식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오라이모노는 원래 왕래하는 편지의 형식을 빌려 일상적인 어휘와 문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본의 서민용 학습교재이다. 다이슈 쇼닌이 『류큐오라이』를 이런 형식으로 편찬한 것도, 자신이 익숙했던 일본 교재 형식을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류큐의 제도·의례·행정 실무 등 관료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상권 7번 편지에서 발신자가 "메이손(米村)의 천비전(天妃殿)을 학교로 만들어 36성의 수재 등을 늘 탁마시키면 어찌 영롱하게 빛날 때가 없겠습니까"라고 쓴 부분을 보면, 다이슈가 『류큐오라이』를 구메삼십육성 자제들의 교육과 분명하게 연결하여 편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하권의 구성

『류큐오라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모두 28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상권에는 1월부터 6월까지 15통, 하권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13통의 편지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하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류큐오라이』 하권의 내용 구성

번호	제목	날짜	발신	수신	내용	주요 주제
16		음력 7월	安國寺	大安寺	대표적인 선승들과 류큐의 여러 선종	불교

116) 다이슈 쇼닌의 류큐 체재 경위와 마고명과 관계에 대해서는 허지은, 앞의 논문(2024), pp. 215~216 참조.

117) 마고명의 출신에 대해서는 허지은, 앞의 논문(2021), pp. 305~306 참조.

		(夷則) 之奠	西堂 某	御法座下	과 나열, 엔카쿠지(圓覺寺) 등 언급, 진언중에 대한 질의	
17		음력 8월 (南呂) 보름(望)	大安寺僧 都乙	(미상)	16번에 대한 회신. 류큐의 진언중 사찰(고코쿠지(護國寺) 등)에 대한 설명	불교
18	보내주신 물건들에 대해 (饋給 條々)	월일	泊主部	(미상)	망부(亡父)의 기일에 받은 물품에 대한 감사	의례 소통
19		월일 음력 11월 玄鐘(黃鍾)日?	大文ム	(미상)	왜선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 도착 보고	물자 유통
20		즉각(乃刻)	ム	景滿大夫 御返事	주문 물품의 출납 당부, 도미 등 안주(肴)의 염장 관련	물자 유통
21	초하루의 인사로 주신 것에 대해	월일	(미상)	(미상)	초하루 예를 위해 받은 물품에 대한 사례	의례 소통
22		週時	村長	(미상)	제례에 바친 물품의 품목 기록	조세 행정
23	섬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물건 장부 (諸嶋斂物帳)	음력10월 응동(應鐘)일	(미상)	(미상)	미야코선(都彌), 아에마선(彌磨) 등의 척수 및 거둔 물품목록	조세 행정
24		週時 음력 11월 황중(黃鍾)일	(미상)	(미상)	중국인의 이언(諺)에 관한 내용	문화 예술
25	담배에 대하여 (烟草事)	(미상)	漳 州 生	宗波先生 收	담배에 대한 견해	외교·기호
26		월일	沙 彌 生	(미상)	수량 계산법과 각종 단위, 집을 구성하는 물건, 섭생 교훈 등	실무 기술
27	관인 영행에 대해 (官人詠行事)	(미상)	秀 才ム	松氏老爺 大人收	관인의 영행 용어 설명 및 영행 시 음악	문화 예술
28	불명회 ¹¹⁸⁾ 의 물품에 대해 (佛名會料)	음력12월 (窮冬) 일	萬次文	(미상)	불명회 준비 물품과 법회 관련 사항	사찰 행사

* 허지은, 앞의 논문(2021), pp. 291~293 <표 1>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했다.

16번과 17번은 안고쿠지(安國寺)와 다이안지(大安寺)의 승려가 주고 받은 불교 문답 내용으로, 16번에는 고승들의 계보, 역대 국왕의 화상이나 위패를 모셔 놓고 명복을 비는 사찰인 엔카쿠지(圓覺寺)의 가람배치와 사찰 내 직제 서열과 의례 법도, 한시와 연구(聯句)를 짓는 규칙 등이, 17번에는 고승들의 전법 사례와 밀교의 핵심 교의인 십주심(十住心)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18번과 21번은 각각 기일(忌日)과 초하루에 주고받은 편지다. 18번에는 망부의 기일에 받은 차, 대감자, 굴, 석류, 소면, 예주 등의 선물과 수량, 감사 인사가 서술되어 있고, 21번에는 초하루 인사로 받은 저육(豬肉)과 우제(牛蹄)에 감사 인사하는 내용이 짧게 적혀 있다.

19번과 20번은 왜선(倭船)과 도선(嶋舟)을 통한 물자 조달과 관리에 대한 편지이다. 19번에는 박(薄·箔)·금자(金子)·은자(銀子)·철·목면·차·칠(漆)·부채 등의 품목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20번은 다양한 해산물과 조수(鳥獸)의 염장과 건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금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다.

22번과 23번에는 조세 행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서식이 실려 있다. 22번은 제례를 위해 과

118) 불명경을 읽고 죄를 참회하며 모든 악을 막거나 없애줄 것을 비는 법회를 말한다.

역(課役)으로 바친 신주(神酒)·서여(諸預)·이모가라·수우(水芋) 등의 물품 목록이고, 23번은 제도령물장(諸嶋斂物帳)이라는 제목 아래 미야코선(都船) 18척·야에마선(彌間船) 10척·구메선(古米船) 9척·기카이선(鬼界船) 5척·오시마선(大嶋船) 20척의 납품 물목과 취장(取帳)·청취(請取)·반초(返抄) 등 행정 문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4번, 25번, 27번은 관료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에 관한 내용이다. 24번은 당인(唐人)의 이언(諺), 한시·연구(聯句)의 평측(平仄) 등에 대한 설명이고, 25번은 남만국(南蠻國)에서 전래된 담배(烟草)가 빈객 접대나 담소의 도구이며, 각자의 신체적 기질에 따라 피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27번은 요(謠), 구(謳), 가(歌), 연희(演戲)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고관 행차 때 악대·기수·조예(阜隸)·교자 등의 편성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6번에는 수량 단위, 무게 단위, 면적 단위, 가구 목록, 그리고 14가지의 질병 및 21가지의 약재에 관한 내용까지 폭넓게 망라되어 있다.

28번은 음력 12월에 진행되는 불명회(佛名會) 운영 물품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는 종이·등심(灯心)·초·침향(沈香)·말향(抹香)·차·과일·만두 등 공물과 승려를 위한 간식 준비에 대한 지시가 함께 서술되어 있다.

3. 『류큐오라이』 하권의 주요 내용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권(16~28번)은 상권과 달리 의례적인 규범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무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 계보, 교역 물자, 공물 장부, 도량형 체계, 건축이나 의약 등 다양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하권은 단순히 예문만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류큐 관료에게 필요한 전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오라이모노로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16·17번, 19·20번, 22·23번, 그리고 26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권이 다루는 지식의 범위와 그 성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6번은 안고쿠지의 승려가 다이안지 승려에게 보낸 편지다.

16. … a) 저는 이번 가을에 進貢渡船을 타고 入唐하려 합니다. … 천축에서 지나(支那)로 온 사람은 마등(摩騰)¹¹⁹⁾, 법란(法蘭)¹²⁰⁾이 최초이며, 그리고 라습(羅什)¹²¹⁾, 선무외(善無畏)¹²²⁾, 불도징(佛圖澄)¹²³⁾, 보리류지(菩提流支)¹²⁴⁾, 강승개(康僧鎧)¹²⁵⁾ 등이 있습니다. 지나에서 천축으로 간 사람은 법

119) 67년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중국에 불교를 전한 인도의 승려인 가섭마등(迦葉摩騰)으로,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1권을 번역했다.

120) 중국에 처음 불교를 전했다는 중인도(中印度)의 승려 축법란(竺法蘭)으로, 67년 가엽마등(迦葉摩騰)과 함께 중국에 건너와서 낙양(洛陽)의 백마사(白馬寺)에서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번역했다.

121) 중국 오호 십육국 시대 龜茲國 출신의 西域僧인 구마라습(鳩摩羅什)으로, 後秦 시대 장안에 와서 불경을 번역하여 불교 보급에 공헌했다.

122) 인도 출신의 승려(637~735)로, 당 현종 때 장안에 와서 밀교를 전하고 번역 사업에 종사했다. 중국 밀교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123) 4세기 전반, 중국에 불교를 전한 서역승이다.

124) 인도 승려. 508년(永平 1)에 중국 낙양에 와서 永寧寺에서 불경 번역 사업에 종사했다. 地論宗의 개조로, 정토종에서도 추앙받고 있다.

현(法顯)¹²⁶, 현장(玄奘)¹²⁷, 담무심(曇無讖)¹²⁸ 등입니다. 또 일본(日域)에 온 사람은 선무외(善無畏), 달마, 보제불철(菩提佛哲)¹²⁹ 등입니다. 일본(倭)에서 중국(漢)으로 간 사람은 도견(道眼), 순조(俊苒), 사이초(最澄), 구카이(空海), 에이사이(榮西), 도겐(道元), 조겐(重源) 등입니다. 천축에 간 왜인은 오직 신노 법친왕(眞如法親王)¹³⁰, 혹은 미이데라(三井寺)¹³¹ 게이소(慶祚)¹³²입니다. 이들은 수고가 많았지만, 공이 없습니다. …

대저 禪門은 拈花微笑¹³³에서 시작되어 후계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후에 5家 7宗이 흥성하였습니다. 소위 5가 7종은 臨濟, 曹洞, 滙仰, 雲門, 法眼, 揚波¹³⁴, 黃龍입니다. b) 우리 당파는 임제의 정통을 이어받아 좌지우지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지는 200년이 되어 갑니다. …

c) 엔카쿠지(圓覺寺)¹³⁵는 국왕의 御願所로, 가람이 우뚝 서 있고, 7堂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三門에는 마귀를 두렵게 하고 악을 깨뜨려 없애는 (怖魔破惡) 나한을 두었고, 불전에는 敬像得福의 노구담(老瞿曇)을 안치하였습니다. … 山寺의 모임에서 回文¹³⁶, 詠史¹³⁷, 江南曲 等を 지을 때, 기승전결[起承轉合]의 법도에 오류가 없습니다. …

d) 다음으로 天界寺¹³⁸, 덴노지(天王寺)¹³⁹, 겐젠지(建善寺)¹⁴⁰ 등이 있는데, 末寺, 官役, 官僧, 散士, 坊主에 이르기까지 공묘(公廟)의 의례를 엄중하게 거행합니다. …

125) 중앙아시아 출신의 승려로 손권의 귀의를 받아 불교를 전파하고 역경사업에 종사했던 康僧會이다. 다른 판본에는 康溫鑑로도 되어 있다.

126) 최초로 인도를 순례한 중국의 승려로, 399년에 중국을 떠나 402년 인도에 도착하여 중국과 인도 교류의 기반을 닦았다

127) 당나라 승려로, 법상종·구사종(俱舍宗)를 개조(開祖)했다.

128) 曇無讖이다.

129) 불철은 일본에 왔지만, 선무외와 달마가 일본에 온 적은 없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다.

130) 다카오카 친왕(高岳親王), 헤세 천황(平城天皇)의 아들로 출가하여 신노(眞如)라고 칭했다. 861년 당으로 가서, 865년 인도로 갔지만 소식이 끊어졌다.

131) 온조지(圓城寺)로, 천태종(天台宗)의 총본산이다.

132) 헤이안시대 중기의 천태종 승려(955~1020). 三井寺(圓城寺)가 흥융(興隆)하는 바탕을 다졌다. 그러나 게이소는 인도논커녕 중국에도 가지 않았다.

133) 拈華微笑. 선종 公案의 하나로, 以心伝心, 不立文字의 의미이다.

134) 楊岐의 오류로 보인다.

135) 弘治 5年(1492) 창건된 임제종 사원으로, 역대 류큐 국왕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136) 처음부터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문자 내지 음절이 출현하는 순서가 변함이 없고, 언어로서도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문자열을 가리킨다. 언어유희의 일종이다.

137) 역사상의 사건을 소재로 시가를 만드는 것 혹은 그 시가이다.

138) 제1 쇼씨왕조 제6대 국왕 쇼타이쿠가 게이타이 연간(景泰年間, 1450~56)에 창건했다는 임제종 사원이다.

139) 제2 쇼씨왕조의 시조 쇼엔이 세이가 연간(成化年間, 1465~1487)에 창건했다는 임제종 사원으로, 쇼엔이 즉위하기 전의 저택을 개조하여 만들었다. 후에 국왕은 엔카쿠지, 왕비는 덴초지, 미혼의 왕자 등은 덴카이지에 모셔졌다. 국왕의 원복이나 즉위 때에는 이들 3개 사원에 행행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말사에 겐젠지·고토쿠지(広徳寺)·렌게인(蓮華院) 등이 있었다.

140) 경태 연간에 쇼타이쿠에 의해 창건된 사원. 1609년 사쓰마 침공 이후 폐허가 되었지만, 1619년 재건되어 엔카쿠지의 말사가 되었다. 겐젠지가 엔카쿠지 등 3개 사원과 동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통해, 『류큐오라이』가 1619년 엔카쿠지의 말사가 되기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월[夷則] 30일[冀] 안고쿠지(安國寺)¹⁴¹⁾ 사이도(西堂)¹⁴²⁾ 아무개
(某)
다이안지(大安寺)¹⁴³⁾
御法座下

안고쿠지의 승려 ‘사이도(西堂)’은 자신이 금족(禁足) 중이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한다고 하면서, 진공도선을 통한 입당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안고쿠지는 1457년에 류큐의 제 6대 국왕 쇼타이큐(尙泰久, 재위 1454~1460)가 세운 선종 고찰이다. 선종 사원에서 ‘사이도’는 다른 절의 주지를 역임한 승려가 와서 살 때 사용하는 칭호이다. 당시 다이츄 쇼닌은 니지마안(児島菴) 다이츄지(児島菴袋中寺)의 주지로 있다가 명나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류큐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정황상 ‘안고쿠지의 사이도 아무개’는 다이츄 쇼닌으로 생각된다.

a)의 ‘진공선을 타고 입당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바다를 건넌다는 서술은 아니다. 이 말에는 당시 류큐가 명 중심의 조공 책봉 체제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에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입당’은 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진공선’은 그런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차원의 공식 외교 사절선을 말한다.

1368년 명이 건국되고 홍무제는 여러 나라에 사자를 보내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알리고 복속을 촉구했다. 당시 류큐는 주산(中山), 호쿠산(北山), 난산(南山)의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던 산산(三山) 체제였다. 1372년 명은 주산왕(中山王) 샷토(察度, 1321~1395)에게 먼저 사절을 파견하여 조공을 요구했고, 주산왕은 조공무역의 이익과 류큐 내 패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을 받아들였다. 뒤이어 난산은 1380년, 호쿠산도 1383년에 각각 사신을 명에 보내 책봉 질서에 편입되었다. 결국 산산(三山)의 세 나라는 모두 명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명 중심의 조공 책봉 체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1429년 주산에 의해 산산이 통일되면서 각각 명과 유지해 온 외교관계는 통일 정권에 흡수되어 류큐를 대표하는 유일한 외교 주체는 주산왕이 되었다.¹⁴⁴⁾

류큐는 조공 책봉 체제 속에서 국제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조공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외교와 무역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다. 진공 사행은 겉으로는 명에 대한 예를 다하고 공물을 바치던 의례였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의 문물을 교류하고, 문화·기술·정보가 오가는 중요한 통로였다. 따라서 ‘진공선을 타고 입당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사절 왕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츄가 류큐를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류큐를 동아시아 세계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류큐 고관의 자제들 역시 류큐를 동아시아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이츄 쇼닌은 이어 천축(天竺)에서 지나(支那), 다시 왜(倭)와 한(漢)을 오간 승려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류큐의 사찰과 법맥, 특히 임제종(臨濟宗)의 정통 계승을 강조했다. 또한 사찰의 직제, 의례 절차, 시문 작법에 관한 규범까지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141) 안고쿠지는 게이타이 연간에 쇼타이큐가 세운 선종 고찰이다.

142) 안고쿠지 주지는 ‘쇼로(長老)’라고 불렸다. 선종 사원에서 ‘사이도’는 다른 절의 주지를 역임한 승려가 와서 살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143) 명나라 柴山이 1430년(宣德 5) 건립한 것으로, 진언종(密宗) 사원. 『류큐유래기』에는 선종 사원으로 나온다. 어느 시점에 선종 사원에서 진언종 사원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144) 다카라 구라요시 지음, 원정식 옮김, 앞의 책(20028), pp. 57~67.

a)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중국의 불교 전래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긴 하지만, 활동 시기가 뒤섞여 있고, 실제 이동 경로와 맞지 않는 인물도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일본에 왔다고 한 선무외(善無畏)와 달마(達磨), 인도에 갔다고 한 게이소(慶祚)의 경우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가지 않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또한 나라(奈郎)·헤이안(平安) 시기 승려들은 거의 없고, 가마쿠라(鎌倉) 시기 류큐의 불교 입수 등에 영향을 미친 승려들이 중심을 이룬다.¹⁴⁵⁾ 이런 점은 당시 일본에서 유통되던 선종 중심의 불교 전래에 관한 지식이 다이츄 쇼닌을 통해 그대로 류큐에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밑줄 b)에 임제종¹⁴⁶⁾이 류큐에 들어온 지 200년이 되어 간다는 서술이 있다. 다이츄 쇼닌이 류큐에 머물렀던 시기(1603~1606년) 보다 200년 전이라면 대략 1400년대 초가 된다. 불교 자체가 류큐에 처음 전해진 건 『류큐일건장(琉球一件帳)』에 따르면 “분에이(文永) 연간 무렵, 어느 나라의 승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쯤칸(禪鑑)이라는 승려가 배를 타고 나하에 표착하여 우라소에 마기리(浦添間切)에 절을 창건하고 극락사(極樂寺)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13세기 후반(분에이 연간 1264~1275년)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⁷⁾

하지만 류큐에 본격적으로 임제종을 전한 인물은 교토 난젠지(南禪寺)의 승려인 가이인 쇼코(芥隱承琥, ?~1495)다. 그는 1450년에 류큐로 건너가 제1, 2쇼씨 왕조를 거치며 네 명의 왕(쇼타이큐왕, 쇼토쿠왕(尙德王), 쇼엔왕(尙圓王), 쇼신왕(尙真王))을 섬기며 임제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이인 쇼코가 활동한 시기와 다이츄가 류큐에 머문 시기의 차이는 실제로 약 150년으로 다이츄가 말한 200년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한 착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이츄가 류큐에서의 임제종의 정통성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c)의 엔가쿠지(圓覺寺)는 1492년에 쇼신왕이 창건한 임제종 사원으로, 류큐 불교계의 거점이 되는 사원으로 정비되었다.¹⁴⁸⁾ d)의 덴카이지(天界寺) 역시 쇼씨 왕조 제 6대 국왕 쇼다이큐가 게이타이 연간에 창건한 임제종 사찰이다. 이처럼 여러 사찰과 임제종 계승을 강조한 것은 류큐 불교를 동아시아 불교 전통의 연속선상에 놓으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엔가쿠지의 가람배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가이인 쇼코를 비롯한 전·현직 주지의 됴됨이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류큐 선종 교단의 정통성과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더 나아가 산사 모임에서의 시회(詩會)와 공묘(孔廟) 의례에 대한 언급은 종교 활동과 문예 활동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신 후반부에서 기승전결(起承轉合), 육의(六義), 연구(聯句) 등 시문 규범을 언급한 부분 역시 사족층이 갖추어야 할 한문학적 소양을 전제로 한다. 이는 단순히 문학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외교문서 작성과 사행 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이처럼 16번은 조공 사행의 맥락 속에서 불교의 계보, 교단의 정통성, 그리고 문예 활동과 종파 인식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류큐의 불교와 사찰의 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불교 지식은 물론 한문 문예와 외교적 교양까지 함께 강조하

145) 허지은, 앞의 논문(2021), pp. 306~307.

146) 임제종은 중국 당나라 때 임제익현(臨濟義玄)이 창시한 선불교의 한 종파로, 강한 어록과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전통을 계승하며 직관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송나라(960~1279) 때 크게 번영하여 중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었고, 한국과 일본 선불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E%84%EC%A0%9C%EC%A2%85>, 음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8a1815a> (2026.3.12.).)

147) 安國寺 홈페이지 <https://www.taiheizan-ankokuji.com/rekishu.php> (2026.3.12.)

148) 다카라 구라요시 지음, 원정식 옮김, 앞의 책(20028), p. 81.

고 있다는 점에서, 다이츄는 외교 사행과 문서 작성에 참여했던 류큐 사족층이 갖추었어야 했던 문화적 소양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7. … 대저 중국에 들어가(入宋) 법을 전하겠다는(傳法) 뜻은 특히 저의 일처럼 기쁩니다. … 저의 먼 스승 龍猛菩薩은 용궁에서 득도하고, 돌아와 鐵塔을 열었습니다. 이것 또한 배움의 元由입니다. 그 법이 전해지고 전해져 倭의 고보대사(弘法大師)¹⁴⁹에 이르렀습니다. 대사가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어찌 쉽게 이것을 얻었겠습니까? 얻은 바로 十住心¹⁵⁰을 세웠습니다. …

우리들의 근성은 지극이 어리석지만, 뜻하는 바에 용기를 얻어 창해만리의 파도를 넘었습니다. 네고로(根來)¹⁵¹, 고야(高野)¹⁵²의 구름에 들어가 拾薪設食¹⁵³하면서 해를 보냈고, 동사(東寺)¹⁵⁴와 다이고(醍醐)¹⁵⁵의 맛을 탐하여 採菓汲水¹⁵⁶하면서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제존(諸尊)의 의궤(儀軌)를 전하고 양부(兩部)의 대법을 얻었습니다. 호마(護摩)는 번뇌의 집착을 불태워 곧바로 부모의 육신을 깎았고, 관주(灌注)도 법신의 지수(智水)를 퍼서 대일각왕(大日覺王)¹⁵⁷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남부염제(南閻浮提)¹⁵⁸ 楊谷¹⁵⁹인 류큐국에서 하조산(波上山) 고코쿠지(護國寺)¹⁶⁰를 집회소(集會所)로 삼아 각종 불사와 율례 행사, 天供, 御影供¹⁶¹을 게을리하지 않으니, 이는 모두 천장지구와 국왕만세, 인민쾌락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

8월[南呂] 보름 大安寺 僧都乙
安國寺
酬答函丈下

17번의 발신자인 다이안지(大安寺) 승려는 용수보살(龍猛菩薩)에서 고보대사(弘法大師) 구카이(空海, 774 ~ 835)로 이어지는 밀교의 전승 계보를 제시하고, 일본에서 수학한 경험도 구체

149) 구카이(空海 774~835)로, 일본 진언종의 개조이다.

150) 구카이의 대표적 저술로 830년경 성립. 정확하게는 『秘密曼陀羅十住心論』이다.

151) 와카야마현(和歌山縣)에 있는 新義真言宗 사원이다.

152) 와카야마현에 있는 진언종 사원. 곤고부지(金剛峰寺)를 가리킨다.

153) 법화경의 구절로, 땀감을 줌고, 식사를 장만하다는 뜻이다.

154) 교토시에 있는 진언종 사원으로, 教王護國寺라고도 한다.

155) 교토시에 있는 진언종 사원이다.

156) 법화경의 구절로 각주 47)의 拾薪設食와 대구를 이룬다.

157) 대일여래이다.

158) 불교의 세계설(世界說)에서 수미산(須弥山)의 사방에 있다고 하는 남섬부주(南瞻部洲) · 동승신주(東勝身洲) · 서우화주(西牛貨洲) · 북구로주(北俱盧洲)의 하나로, 수미산 남쪽 해상에 있다는 대륙이다. 인간들이 사는 곳이며, 여러 부처가 나타나는 곳은 泗州 가운데 이곳뿐이라고 한다.

159) 태평한 곳이라는 뜻이다.

160) 1368년(貞治 7)에 창건된 진언종 사원으로, 창건 이래 류큐 국왕의 기원사(祈願寺)였다.

161) 고인의 초상을 모시고 공양하는 법회이다. 일반적으로 도지(東寺)나 고야산(高野山)에서 행해지는 구카이의 기일 법회를 말한다.

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네고로(根來, 와카야마현에 있는 신의진언종 사원), 고야(高野, 와카야마현의 곤고부지(金剛峰寺)), 동사(東寺, 교토의 진언종 사원), 다이고(醍醐, 교토의 진언종 사원) 등 일본 진언종의 중심 사찰들을 직접 언급하며 그곳에서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류큐의 밀교가 일본 본토의 법맥을 직접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카이의 십주심(十住心)¹⁶²⁾의 체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적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 진언종의 교리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당시 류큐 승려들이 진언종의 교리 체계를 성실히 배우고, 내부적으로도 공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고코쿠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사를 거행하며, 국왕의 장수와 백성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공(天供), 어영공(御影供) 등 구카이의 기일에 행해지는 의식들도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류큐의 밀교가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평안을 염원하는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남염부제(南閻浮提)라는 불교적 세계관 안에 류큐국을 위치시키는 표현도 류큐를 단순한 변방의 섬이 아니라 불교적 우주 질서 속 한 부분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불교 세계관의 지역적 이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6번과 17번은 각각 선종과 밀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 전통을 편지 형식으로 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류큐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중국의 선종 전통과, 가마쿠라 시대 이후 자리 잡은 일본 밀교의 전통을 함께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19번과 20번은 각각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과 수량, 출납과 관리에 대한 편지로, 류큐가 일본 및 주변 지역과 맺었던 교역 관계와 그 과정에서 유입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그 보존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즉, 하권에 수록된 문서들은 단지 행정 절차에 대한 예시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9번에서는 왜선(倭船)과 도주(嶋舟)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일본에서 들어온 물품을 박(箱) 2천매, 전자(金子, 금자(金子)의 오기로 보임) 20근, 은자 10조, 철 100일, 목면 500단, 상지 5속, 잡지 1동, 차 100근, 철 500배, 부채 1천 약 등으로 그 품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품목의 다양성 보다, 교역에서 사용된 단위가 매우 정확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은자의 단위로 ‘조(鈞)’, 철의 단위로 ‘일(鎰)’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사용되던 중량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류큐의 관료들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사용되는 도량형을 하악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20번은 주문한 물품이 도착했다는 관리의 전달 소식과 함께 공용(公用)에 맞게 출납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안주(肴)로 소라, 전복, 가다랑어, 도미, 농어 등 해산물과 꿩·토끼·사슴·돼지 등 육류가 열거되어 있고, 일부는 소금에 절이고 일부는 말렸다고 나와 있다. ‘지금 소금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곤란합니다’라는 표현은 물품 관리가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 식재료의 확보와 저장도 관료의 실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 20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권은 조세를 걷기 이전에 이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19번이 교역 물자의 규모와 단위

162) 구카이의 대표적 저술로 830년경 성립. 정확하게는 『秘密曼陀羅十住心論』이다.

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20번은 그 물자를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19·20번은 하권의 물류·출납 관련 지식이 실제 운영을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음으로 22번은 촌장의 이름으로 바친 공물 보고서이고, 23번은 류큐의 여러 섬에서 거둬들인 물자를 정리한 「쇼도렌모쯔쇼(諸嶋斂物帳)」이다. 두 문서 모두 내용이 길지 않지만, 하권에 담긴 실무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다.

22. 神酒 10담(擔), 참마(諸蘋, 쇼요) 2견(肩), 토란줄기(芋幹, 이모가라) 3하(荷), 토란(水芋, 미즈이모) 1태(駄)

제례의 課役으로 올려 바칩니다(貢上). 위와 같습니다.

당시(酒時) 촌장(村長)

23. 쇼도렌모쯔쇼

미야코선(都船¹⁶³) 18척 上布, 下布¹⁶⁴, 삼베(麻紵), 배의 검은 밧줄(黑綱)

야에마선(彌間船¹⁶⁵) 10척 純白米, 보리

구메선(古米船) 9척 綿, 조, 수수

기카이선(鬼界船¹⁶⁶) 5척 純精米, 稗, 메밀

오시마선(大嶋船¹⁶⁷) 20척 御殿 新造 재료 山枡, 버섯(茸)¹⁶⁸, 龜米

이와 같이 거두었습니다. 장부(取帳), 수령증(請取), 영수증(返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10월[應鐘] 일

22번은 촌장(村長)이 신주, 참마, 토란줄기, 토란 등을 올리는 형식으로 제례에 쓰이는 공역물을 보고한 내용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각 품목의 수량, 단위가 명확하다는 사실이다. 왕부의 명령이 마을 단위까지 세밀하게 전달되고, 제례가 행정 의무로 제도화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3번의 『쇼도렌모쯔쇼』는 더 상위 기관에서 작성한 장부로, 미야코선, 야에마선, 구메선, 기카이선, 오시마선 등 항로별 선박 수와 적재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이다. 또 마지막에는 실제로 물품이 취합되고 수령된 뒤 영수증까지 3단계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문서는 단순히 물품 목록이 아니라 수취·수령·확인이라는 행정 절차를 기반으로 한 공식 문서로 보인다. 22번이 마을의 보고라면 23번은 도서 단위로 집계하는 정부 차원의 장부인 셈이다.

163) 宮古船이다.

164) 上布와 下布는 무명으로 짠 직물. 근세에 일반화되었다.

165) 야에야마(八重山)를 가리킴. 현재 발음은 야에야마, 야에야마렛토(八重山列島) 방언으로는 '야이마'이다.

166) 가고시마시(鹿兒島市)와 오키나와 본도 사이에 있는 아마미군도(奄美群島)에서 가장 북동부에 위치하는 섬이다.

167)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를 가리키며, 설탕의 산지이다.

168) 수분, 암본에는 菌으로 되어있다.

특히 23번의 물품들은 각 섬의 특산물로 류큐 왕부가 각 도서의 생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공물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¹⁶⁹⁾ 상권에서는 왕권의 상징적 위상이 강조되었다면, 하권에서는 구체적인 물자와 장부로 실질적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22·23번은 마을의 제례 공물 보고부터 국가 차원의 물자 집계로 이어지는 조세 행정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방대한 물자 관리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수량 파악과 단위 체계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했을 것이다.

26. …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거둬들이는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에 있어서 우선 숫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 톨(一粒)부터 한주먹(一撮), 1홉(一合)·1되(一升)·1말(一斗)·1섬(一石) 등, 그 이상은 10배씩 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량(斤兩)은 1리(釐)·1푼(粉)·1돈(匁)·1량(量)이며, 그 이상은 10배씩 합니다. 16량을 1근으로 하고, 24근을 일(鎰)로 하고, 36근을 균(鈞)으로 합니다. 1량은 대략 10전¹⁷⁰⁾입니다. 寸尺은 忽, 絲, 厘, 毫, 分, 寸, 尺, 丈으로 하고 그 이상은 10배씩 합니다. 후에 수는 일, 십, 백, 천, 만, 억, 조, 경, 자(秭), 해(垓), 양(壤), 구(溝), 간(澗), 정(正), 재(載)입니다. 그 이상은 10배씩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혹은 백만을 億으로 하는 등 이론도 있습니다.

학동들의 놀이 책에 있는 大不人, 示不小, 王不直, 駟不馬, 呑不口, 立不一, 阜不白, 分不刃, 丸不點, 針不金 같은 숫자의 경우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원(田園)에 임한다면 기(蹠)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는 3척, 보(步)는 6척, 100보를 1묘(畝)로 하고, 100무를 1부(夫), 3부를 1옥(屋), 3옥을 정(井), 4정을 읍(邑), 4읍을 구(丘), 4구를 전(甸), 4전을 현(縣)으로 하고, 혹은 10정을 1통(通), 10통을 1성(城)으로 하는 등입니다. 관리로 근무하는 사람은¹⁷¹⁾ 여러 방면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기둥(柱), 들보(梁), 마룻대(棟木), 사자 대공(杈首), 도리(桁), 인방(貫木), 홍량(虹梁), 인용(引物), 角木, 長押 등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문틀(鴨居·鳴居), 서까래(桷), 처마(栂), 천장틀(天井緣), 바닥판(敷板), 창호 뼈대(障子骨), 기와(葺瓦), 패각회(蠣灰) 등입니다. 破風¹⁷²⁾에 구멍이 났는데, 벽에 창[牖]을 뚫어 형식만 제 모습대로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구를 보겠습니다. 주발(椀), 소반(盤), 접시(皿), 종지(櫛子), 국자(提子), 따뜻한 물통(湯桶) 등이 있으며, 金銀으로 만든 酒具, 술잔(杯), 큰 술잔(鍾), 술병(瓶), 술상(酒臺), 술사발(酒椀) 등도 한 자리에 갖추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또 문(門)을 만드는 자재는

169) 다카라 구라요시는 류큐의 “신녀와 관인, 일반 농민이 가지고 있는 경지에 대해 미카나이라고 불리는 조세가 있었고, 이것은 곡물 등의현물로 내는 방식 이외에 지역 특산물을 공물의 형태로 헌납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다”고 추정하였다.(다카라 구라요시 지음, 원정식 옮김, 『류큐왕국』, 도서출판 소화, 2008, 159)

170) 발음은 ‘せん’, 錢을 가리킨다.

171) 원문은 奉公立私者. ‘公’에 ‘あがた(縣)’이라고 훈이 달려 있어서, ‘(지방) 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立死’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고나리로 근무함으로써 立身한다는 의미일까?

172) 지붕의 합각머리 부분에 人모양으로 붙인 널빤지인데, 여기서는 ‘거센 바람’의 의미일 수도 있다.

문턱(地覆), 가로지르는 나무(冠木), 문짝(扉), 주춧돌(楚石), 문빚장(關木), 자물쇠(鑰子), 열쇠(鑰) 등입니다. 2층을 올리고, 돌담 4벽을 급속하게 완성했습니다.

나아가 특히 요즘 사람들은 질병에 잘 걸리므로 섭생하는 교훈을 청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맥입니다. 결핵(癆瘵), 복부 적체(積聚), 말라리아(膜瘡病), 급성 위장병(癉亂), 치통(疾齒), 산통·탈장(疝氣), 기침·가래(欬喇), 황달(黃疸), 각기병(脚氣), 중풍(中風), 정신질환(癲狂), 나병(癩病), 열병(傷寒), 감기(傷風) 등을 봅니다. 이와 함께 밖으로는 바람(風), 추위(寒), 더위(暑), 습기(濕)를 당하고, 안으로는 기쁨(喜), 노여움(怒), 근심(憂), 생각(思), 슬픔(悲), 두려움(恐), 놀람(驚)이 있습니다.

약종은 감초, 감초(甘草), 호승(胡枏), 육두구(肉荳蔻), 세신(苦辛), 인삼(人蔘), 천남성(天南草), 천궁(川芎), 백출(白朮), 진사(辰沙), 향부자(香附子), 목향(木香), 유향(乳香), 당귀(當歸), 작약(芍藥), 대황(大黃), 속썩은풀(黃金), 황련(黃蓮), 지황(地黃), 나팔꽃 씨(牽牛), 탕자 껍질(枳殼), 복령(茯苓) 등이 있는데,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빨리 구하려고 합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월일 沙彌生

26번은 연말을 앞두고 거둬들인 물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곡물의 부피, 무게와 길이의 단위, 파자(破字), 거리와 면적의 단위, 토지 구획,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와 가구, 질병의 종류와 원인, 약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교양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과 일상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량형과 수의 체계를 나열한 것이다. 부피의 단위, 무게 단위, 길이 단위, 그뿐만 아니라 큰 수의 단위까지 상세하다. 부피, 무게, 길이는 10배씩 커지는 십진법으로 설명하고, 무게는 16량이 1근, 4근이 일(鎰), 36근이 균(鈞), 1량이 대략 10문메(文=錢)라는 환산법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체계적인 정리는 22·23번에서 확인되는 물자의 수취와 집계를 전제로 할 때, 실제 행정 실무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불인(大不人) 등과 같이 한자의 자획을 풀어서 나누는 파자(破字)를 이용한 숫자 표기법을 함께 언급한 점도 흥미롭다.

<표 2> 파자(破字) 숫자 체계

구분	원래 한자	빼는 부분	숫자	비고
대불인(大不人)	大	人	一 (1)	丁不勾
시불소(示不小)	示	小	二 (2)	
왕부직(王不直)	王	丨	三 (3)	
사불마(駟不馬)	駟	馬	四 (4)	罪不非
오불구(吾不口)	吾	口	五 (5)	
립불일(立不一)	立	一	六 (6)	交不义

조불백(阜不白)	阜	白	七 (7)	
분불인(分不刃)	分	刃	八 (8)	
환부점(丸不點)	丸	丶	九 (9)	馗不首
침불금(針不金)	針	金	十 (10)	

파자는 송나라 때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숫자로 <표 2>와 같이 1부터 10까지 원래 한자에서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대불인(大不人)은 큰 大자에서 사람 人자가 없으면 一이므로 1이고, ‘示不小’는 보일 示에서 아래에 있는 작을 小를 없애면 二, 즉 2가 되는 식이다. ‘학동의 놀이책에 있다’고 했지만, 실은 장부 작성 등 실무 행정에서 활용되는 표기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숫자는 잘 만든 것 같다’한 언급은 그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송나라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파자가 『류큐오라이』에 실렸다는 점은, 류큐가 중개 무역국으로서 중국의 상업 문화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23번이 류큐의 각 섬의 물자와 선박 수를 집계한 장부라면, 26번은 그런 집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계산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각각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 실제 운영과 방법이 서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토지 구획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다. 토지 측량 단위와 행정단위를 나열했는데, 기나 보는 측량의 기본이 되는 최소 보폭 단위이고, 묘와 부(夫)는 경작지 단위이다. 정이나 읍은 공동체나 마을 단위의 토지 구획에 해당하고, 현이나 성은 국가 통치 체계에서 행정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당나라의 두우(杜佑, 735~812)가 중국 최초로 역대 제도과 문물을 기록한 『通典』 1권의 「食貨 一, 田制上」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주 문왕(周文王)이 기(岐)에 있었는데, 지금의 부풍군(扶風郡) 기산현(岐山縣)이다. 그는 토지를 평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로 삼았으며, 토지에 근거함을 근본으로 삼았다. 여기서 ‘토지에 근거한다(地著)’는 것은 땅에 안정하여 정착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마법(司馬法)』을 세워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6척(尺)을 1 보(步)라 하고, 100를 1묘(畝)라 하며, 100묘를 1부(夫)라 한다. 3부를 1옥(屋)이라 하고, 3옥을 1정(井)이라 한다. 10정을 1통(通)이라 하고, 10통을 1성(成)이라 하며, 10성을 1종(終)이라 하고, 10종을 1동(同)이라 한다. 동(同)은 사방 100리(里)이며, 10동을 1봉(封)이라 하고, 10봉을 1기(畿)라 한다. 기는 사방 1,000리이다.”¹⁷³⁾

그리고 『주례(周禮)』 10권, 「地官-大司徒」에 “대사도(大司徒)의 직책은 나라의 토지 지도를 작성하여, 그 지역과 거주를 구획을 분별하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다. 9부(夫)를 1정(井)으로 삼고, 4정(井)을 1읍(邑)으로 삼으며, 4읍을 1구(丘)로 삼고, 4구를 1전(甸)으로 삼으며, 4전을 1현(縣)으로 삼고, 5현을 1속(屬)으로 삼는다.”¹⁷⁴⁾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류큐오라이』의 토지 구획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정전제(井田制) 등 토지 구획 제도에 관한 문헌을 참고해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카라 구라요시는 “17세기 초 류큐에서 밭의 면적은 누키라는 단위로 계산했고, 논은 가리야로 대표되는 면적 개념으

173)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tongdian/1/zh> (검색일: 2026.3.6.)

174) 古文島, https://www.guwendao.net/guwen/bookv_3c30380d1f9c.aspx (검색일: 2026.3.6.)

로 표시하는 등 독자적인 도량형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다”¹⁷⁵⁾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류큐오라이』에 정리되어 있는 토지 구획 체계가 실제로 당시 류큐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중국의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한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집의 뼈대가 되는 자재와 마감재 및 장식재, 가구와 금으로 만든 주구(酒具)를 나열한 점이나 질병의 종류와 원인, 약재 목록도 주목된다. 특히 질병을 일으키는 외부의 네 가지 원인인 바람(風), 추위(寒), 더위(暑), 습기(濕)와 질병을 일으키는 내적인 요인인 기쁨(喜), 노여움(怒), 근심(憂), 생각(思), 슬픔(悲), 두려움(恐), 놀람(驚)을 함께 언급한 것은 건강을 위해 외부 환경과 내면의 감정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자기 수양의 논리와 의학적인 건강 관리 지식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밑줄 친 “관리로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 방면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관리로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하권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료상이 한 분야의 전문가만은 아니었던 것을 보여준다.

결국 26번에서는 도량형, 건축 지식, 의약 상식이 한 편지에 모두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실무 현장에서 관료에게 요구되었던 역량을 알 수 있다. 종교에 대해 다룬 16·17번, 조세와 장부 체계를 정리한 22·23번에 이어, 26번은 국가 운영을 실제로 가능케 했던 지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하권은 단순한 예문집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운영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다방면의 역량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 교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4. 상권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하권의 성격과 의의

『류큐오라이』 상권(1~15통)과 하권(16~28통)은 모두 편지 형식으로 쓰였지만, 안에 담긴 지식의 범주는 분명히 다르다. 상권이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의 질서와 조공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주로 다룬다. 반면, 하권에는 이런 질서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이 담겨 있다. 두 권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권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념과 실제 운영을 함께 보여주는 면이 더 두드러진다.

상권의 1번은 정월 초하루에 행해지는 조배 의식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발신자는 ‘국왕부터 관리, 사대부, 서인까지 모두 단정하게 의관을 갖추고, 오체투지의 예를 행한다’는 표현과 통사(通事)가 구령을 외치면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왕화(王化)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어서 북소리는 사덕팔정(四德八正)의 이로움을, 피리 소리는 오쇠삼열(五衰三熱)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한다고도 설명한다. 이처럼 북소리와 피리 소리를 각각 불교 개념과 연결지은 부분을 보면, 이 의식이 단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상징 체계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권에서 관료가 가져야 할 소양은 바로 이런 상징 질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번의 책봉사에 대해 서술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책봉사가 찾아온 것을 ‘진실로 국가의 큰 행복’으로 규정하고, 정사가 선왕의 묘소인 소겐지(崇元寺)에서 향을 올리고 종이를 태우는 ‘진향소지(進香燒紙)’와 신전에서 황제가 내리는 옥관(玉冠)과 금대(金帶)를 왕이 받는 의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것은 대명 외교가 당시 왕권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핵심 의례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외교는 단순히 절차의 차원이 아니라, 조공 질서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

175) 高良倉吉, 『琉球王国』, 岩波書店, 1993, p. 151.

러내는 상징적인 행위로 기능했다.

이에 비해 하권에서는 서술의 흐름이 달라진다. 23번 '제도령물장'에서는 여러 섬에서 거둬 들인 공물과 선박 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상권이 왕권의 명분을 강조했다면, 하권은 그 명분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을 장부와 목록의 형식으로 드러낸다. 26번에 나오는 수 체계와 중량 단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산수 지식을 나열한 게 아니라, 공물을 집계하고 보고할 때 필요한 기본 사항이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권의 26번에는 '한 알, 한 홉, 한 되... 만, 억, 조, 경, 해, 재'(一粒、一畝、一升、萬、億、兆、京、垓、載)와 같은 수치 단위뿐 아니라, 중량 단위로 '일(鎰), 균(鈞)' 등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산수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23번과 같은 공물 장부를 정확히 계산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기본 능력이었다. 상권이 질서의 상징적 틀을 보여주었다면, 하권은 그 질서를 실제로 운영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권의 11번에서는 책봉사 접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내년 6월에 행인이 도착합니다. 영은당에서 절을 올릴 것이니, 이는 참으로 국가의 큰 행복입니다.

이 부분은 대명 외교가 국가의 정통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상권에서 외교는 국가의 체면과 위신이 걸린 문제였고, 조공 질서 안에서 류큐의 위상을 드러내는 의례적 장치로 작동했다.

하지만 하권의 19번에서는 '왜선이 도착하였습니다. 금박 2천 매, 은 30근, 무명 500단...'과 같이 구체적인 물품과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20번에서도 물품의 출납과 관리가 계석 언급된다. 상권의 대명 외교가 정통성을 세우는 문제였다면, 하권 19·20번에서 다루는 왜선 관련 기록은 실질적인 교역 현장을 보여준다. 금박과 은, 무명 등 실제 품목들은 국가 운영이 구체적인 물자의 유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5번에는 담배의 유입에 대해, '남만국에서 전해진 것이라 하며, 장주 등지에서도 보입니다.'는 표현이 있다. 이 부분을 보면 류큐가 단순히 조공 질서 안에 머무른 존재가 아니라, 일본·중국 연해·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교류의 중심에서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권에서는 이런 다층적 교역 구조 속에서 관료가 갖추어야 할 실무 감각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의례와 종교는 그 성격이 달라진다. 상권에서는 불교 의례가 국가 안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지만, 하권 28번에서는 의례 준비에 필요한 물품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교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행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것이다. 종교는 더 이상 추상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26번의 건축 관련 내용은 단순히 주택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건축 업무를 맡거나 감독하는 관료가 실제로 알아야 했던 기술 용어 목록에 가깝다. 예를 들어, 기둥, 들보, 동목, 홍량 같은 가람이나 관청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이는 단순한 묘사를 넘어, 관료가 건축 업무를 감독할 때 장인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재의 규격이나 수량을 장부상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는 뜻이다. 결국 관료는 건축 관련 업무를 맡거나 감독할 경우, 장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 용어를 반드시 익혀야 했던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의약 지식 또한 유교적 수양의 보조 역할로 보기 어렵다. 진맥의 방식과 함께 나열된 열네 가지 질병과 이십여 가지 약제는 단순히 유교적 수양을 위한 지식이라기보다, 관료가 백성들의 질병을 실제로 돌보고 구제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도구였다. 의학은 하권에서 명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기술의 역역이며, 관료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지식이 된 것이다.

또한 큰 大자에서 人자가 없으면 一이므로 1이고, ‘示不小’는 示에서 아래에 있는 小를 없애면 二, 즉 2가 되는 파자식 표현은 실제로 기억하는 데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친근감 있는 설명은 엄숙한 경학적 서술과 달리, 복잡한 숫자 체계나 한자 개념을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교유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실무 지식을 교양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상권과 하권의 차이를 단순히 의례를 중시하는 부분과 실무에 초점을 둔 내용의 대비로만 볼 수는 없다. 17세기 초 류큐가 처했던 대외적인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류큐는 명나라의 조공국이라는 입지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특히 1609년 사쓰마번의 침공 이후에도 조공국의 체제를 유지해야 했던 현실은, 상징적인 정통성과 실제 운영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환경에서 관료에게 요구된 역량도 두 가지로 나뉘었을 것이다. 하나는 조공 체제를 이해하고 의례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이런 점은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왕권 의례나 책봉사 접대, 궁중 절차 등의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교역과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무 능력도 중요했다. 하권에 나오는 물품 단위, 장부 형식, 공물 수취 과정, 도량형 계산, 건축 및 약재 관련 지식 등은 이런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하권에 있는 다양한 계산 체계와 조세 장부, 교역 물자 목록은 류큐 왕부의 재정이 외부와 교역을 통한 유입되는 부분과 내부로부터의 조세를 받는 흐름이라는 두 개의 축 위에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 속에서 관료는 물자의 수량과 단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장부로 정리하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했다. 결국 하권의 내용 자체가 이런 실무 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권은 단순한 예문집이라기보다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정리해 놓은 자료로 볼 수 있다. 상권이 국가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하권은 그 질서를 실제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부분은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류큐오라이』는 조공 질서의 이념을 이해하는 관료와, 교역과 재정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관료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류큐오라이』는 17세기 초 류큐 사회가 필요로 했던 관료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17세기 초 류큐 관료의 교육을 목적으로 편찬된 『류큐오라이』의 하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상권(1~15통)과 하권(16~28통)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권의 성격과 의의를 규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첫째, 『류큐오라이』의 상권에서는 국왕에 대한 조배 의식, 책봉 외교의 정통성,

궁중 의례의 절차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어 국가 질서의 상징적 기반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다. 반면, 하권에서는 공물 징수나 재정 장부 작성, 물자 관리, 산수와 중량 단위, 건축 자재 등 실제 행정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하권에서는 류큐를 조공 체제의 일원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해상 교류망의 교차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권에서 강조되는 대명 외교의 위상과 함께, 하권에 등장하는 왜선의 물자와 남만에서 유입된 품목, 그리고 미야코·야에야마 등 주변 섬들의 공물 수취 체계는 류큐 관료들이 국제 교역과 지방 행정을 동시에 담당했던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1609년 사쓰마번의 침공 이후에도 조공국이라는 상태를 유지해야 했던 상황은 상징적인 정통성과 실질적인 재정 운영 능력을 모두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념과 실무를 고루 갖춘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류큐오라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셋째, 하권에 실려 있는 산수와 수량 표기, 중량 단위, 건축 자재, 의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목록 등은 모두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했던 기본적인 지식들이다. 이런 내용들을 서간문 형식으로 나열하여,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구성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하권은 상권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권에서 제시한 국가 질서를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권이 조공과 의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상징적 질서를 설명한다면, 하권에서는 그 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교역, 의례, 산수 같은 구체적 기술과 실무 내용이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두 권을 함께 살펴봐야 『류큐오라이』가 어떤 의도로 편찬되었으며,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류큐오라이』는 17세기 초 류큐 왕국이 추구했던 관료의 행정 역량을 잘 보여주는 교재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류큐오라이』가 류큐 교육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계승되고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세 류큐 관료 사회에서의 학습 방식과 변화 양상을 한층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袋中上人絵詞伝』上巻(心光庵旧蔵, 奈良地域関連資料画像データベース)
- 『琉球神道記』
- 『琉球往來』
- 那覇市企画部市史編集室, 『那覇市史 : 資料篇』 제1권 7 家譜資料 三, 1983.
- 中村裕晃, 「袋中上人の研究」, 『佛敎大学研究室報』 13, 1964.
- 琉球政府 編, 『沖繩縣史』 第4卷 各論編3 <敎育>, 琉球政府, 1966
- 筑土鈴寛, 『中世藝文の研究』, 有精堂出版, 1966.
- 石川謙・石川松太郎編, 『日本敎科書大系・往來編』全17卷, 講談社, 1967~77.
- 信ヶ原 雅文, 『袋中上人 <開山袋中上人三百五十年御遠忌記念>』, 檀王法林寺, 1988.
- 浅野 誠, 『沖繩県の敎育史』, 思文閣出版, 1991.
- 石川松太郎監修、小泉吉永編, 『往來物大系』全100卷, 大空社, 1992~94.
- 『古代文学講座 11 - 靈異記・氏文・縁起 - 』, 勉誠社, 1995.
- 鈴木 達也, 「琉球往來考」, 『たばこ史研究』 (74), 2000.
- 石川松太郎 監修・小泉吉永 編著, 『往來物解題辞典』, 大空社, 2001.
- 御代英資, 「沖繩の袋中上人」 『浄土』 69, 2003.
- 原田 禹雄 訳注, 『袋中上人絵詞伝』, 榕樹書林, 2003.
- 渡辺匡一, 「袋中の本箱」 『説話文学研究』 38, 2003.
- 宮里 立士, 「琉球文藝考(3)琉球往來・琉球神道記(上)」 『表現者』 3, 2005.
- 原 克昭, 「袋中の『琉球神道記』と『琉球往來』 - 渡琉僧のまなざし (特集=琉球文学の内と外 - 東アジアの視界) - (琉球・ヤマト往還)」, 『国文学 71』 10, 2006.
- 宮里 立士, 「琉球文藝考(4)琉球往來・琉球神道記(下)」, 『表現者』 4, 2006.
- 原 克昭, 「袋中の『琉球神道記』と『琉球往來』 - 渡琉僧のまなざし (特集=琉球文学の内と外 - 東アジアの視界) - (琉球・ヤマト往還)」 『国文学 71』 10, 至文堂, 2006.
- 野村直美, 「檀王法林寺所蔵 袋中上人琉球関係資料調査報告」, 『史料編集室紀要』 33, 2008.
- 다카라 구라요시 지음, 원정식 옮김, 『류큐왕국』, 도서출판 소화, 2008.
- 池宮正治・小峯和明編, 『古琉球をめぐる文学言説と資料学』, 三弥井書店, 2010.
- 島村幸一, 「『琉球往來』解題」(小峯和明 編, 『古琉球をめぐる文学言説と資料学』, 三弥井書店, 2010.
- 梅木哲人, 『近世琉球國の構造』, 第一書房, 2011.
- 信ヶ原 雅文 外, 『檀王法林寺: 袋中上人 - 琉球と京都の架け橋 - 』, 淡交社, 2011.
- 九州国立博物館, 沖繩県立博物館・美術館 編, 『琉球と袋中上人展 <京都・檀王法林寺開創400年記念>』, 九州国立博物館, 2011.
- 石川登志雄, 「袋中上人と琉球」(信ヶ原雅文 外, 『檀王法林寺 袋中上人 - 琉球と京都の架け橋 - 』, 淡交社, 2011.
- ジョージ・H・カー 著・山口栄鉄 訳, 『沖繩島人の歴史』, 勉誠出版, 2014.
- 교토 사이호지(西方寺) 홈페이지(<https://kyotofukoh.jp/report1164.html>)
- 文化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https://www2.ntj.jac.go.jp>edc19>gosyaku>index9>)
- 島村幸一, 「琉球往來解題」(小峯和明 編, 古琉球をめぐる文学言説と資料学, 三弥井書店, 2010).
- 鈴木達也, 「琉球往來考」, 『たばこ史研究』74, , 2000.
- 허지은, 「류큐오라이(琉球往來)와 류큐 관련 지식·정보의 유통」, 『전북사학』61, 2021.
- 허지은, 「다이쥬 쇼닌(袋中上人)과 『류큐오라이(琉球往來)』의 문헌적 가치 — 上卷 역주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학화』82, 2024.

국문초록

본 논문은 다이슈 쇼닌이 편찬한 『류큐오라이』 하권의 내용 구성과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텍스트가 지닌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류큐오라이』는 일본의 서간 형식 학습서인 오라이모노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류큐의 제도와 행정 실무, 종교, 교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하권(16~28번)은 상권과 달리 격식적인 서간 예문보다는 실제 행정과 사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권 가운데 불교 전통을 다룬 16·17번, 조세와 물자 집계를 다룬 22·23번, 그리고 도량형, 건축, 의약 지식 등이 담긴 26번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16·17번은 선종과 밀교의 전통을 통해 류큐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2·23번에서는 물자의 수취와 집계를 위한 행정 장부의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6번에는 도량형 체계, 토지 구획, 건축 자재, 질병과 약재 등 다양한 실무 지식이 제시되어 있어 당시 관료에게 요구되었던 실질적인 역량의 범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류큐오라이』 하권은 단순한 서간 예문집에 그치지 않는다. 류큐 지배층 자제들이 행정 지식과 실무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일본의 오라이모노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그 안에 류큐의 국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류큐 사회의 현실에 맞는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류큐오라이, 다이슈 쇼닌, 오라이모노, 류큐왕국, 관료 교육

Abstract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wer Volume of Ryūkyū Ōrai: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Upper Volume

Her Ji-Eun

This study examines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volume of Ryūkyū Ōrai (琉球往來), compiled by the Buddhist monk Taichū Shōnin (袋中上人), and explores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Although Ryūkyū Ōrai adopts the structure of oraimono (往來物)—a traditional Japanese epistolary textbook format—its conten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knowledge, including Ryūkyū's institutional systems, administrative practices, religion, and trade. Notably, the second volume (Letters 16-28) differs from the first volume in that it focuses on practical knowledge necessary for administration and social governance rather than on formal or ceremonial correspondence.

This paper analyzes sections 16 and 17, which concern Buddhist traditions; sections 22 and 23, which address taxation and material accounting; and section 26, which contains information on measurement systems, land division, construction practices, medicine, and pharmacology. Sections 16 and 17 demonstrate that Ryukyuan Buddhism was understood within the broader currents of East Asian Buddhism, drawing on both Chan (Zen) and Esoteric lineages. Sections 22 and 23 reveal the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edgers used for collecting and aggregating goods. Section 26 presents diverse practical knowledge—including metrology, land organization, building materials, illnesses, and medicinal substances—illustrating the breadth of competencies expected of Ryukyuan officials.

Taken together, the second volume of Ryūkyū orai is far more than a mere collection of model letters. It clearly functioned as a training text designed to equip members of the Ryukyuan elite with administrative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By adopting the orai-mono format while embedding within it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governing the Ryukyu Kingdom, the text served as an educational resource tailored to the specific realities of Ryukyuan society.

Keywords:

Ryukyu Orai, Taichū Shōnin, Oramono, Ryukyu Kingdom, Bureaucratic Education

【토론문】

「『류큐오라이(琉球往來)』 하권의 내용과 성격 - 상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재훈(동의대학교)

본 발표는 류큐 무역과 외교를 담당하며 문화와 교육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구메삼십육성(久米三十六姓)의 자제 교육을 위해 정토종(淨土宗) 승려 다이쥬 쇼닌(袋中上人)이 1603년부터 66년까지 류큐(琉球)에 머물 당시, 마행명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오라이모노 『류큐오라이』에 관한 연구에 해당합니다. 필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두 권 이상으로 나눌 때에는 분명 어떤 일정한 의도 아래 유기적으로 각권을 연결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에 상, 하권으로 나뉜 류큐오라이의 관계성을 밝힌다는 것은 곧단순히 책의 구성적 특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편찬 의도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연구가 판본, 편찬 배경,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 미처 다루질 못했던 “상권-의례적 규범, 하권-전문 정보의 체계적 정리”라는 관계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이념과 실무가 잘 갖춰진 관료의 양성을 꾀하려 했다는 주장은 본고가 지닌 높은 학술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초심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선에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상권이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의 질서와 조공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주로 다룬다. 반면, 하권에는 이런 질서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이 담겨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셨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식은 어떠했는지? 류큐의 예를 찾기 힘들다면 일본 본토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일본 본토에서 동시대에 편찬된 오라이모노와 비교하여 내용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어떤 특수성을 지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이슈 쇼닌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 내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보같은 추측이긴 하지만“이 내용을 보면 『류큐오라이』의 토지 구획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정전제(井田制) 등 토지 구획 제도에 관한 문헌을 참고해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카라 구라요시는 ‘17세기 초 류큐에서 밭의 면적은 누키라는 단위로 계산했고, 논은 가리야로 대표되는 면적 개념으로 표시하는 등 독자적인 도량형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류큐오라이』에 정리되어 있는 토지 구획 체계가 실제로 당시 류큐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중국의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한 것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중국을 상대할 때에 필요한 것만 모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끝.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6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24회 월례발표회 : 2026년 3월 14일(토)
- 제225회 월례발표회 : 2026년 4월 11일(토)

2. 《한일관계사연구》 91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89집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90집이 2025년 11월 30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91집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92집은 2026년 5월 31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달 전인 2026년 3월 31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회비] •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 일반회원 : 3만원 • 기관회원 : 4만원

•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33-1207166<예금주> 유채연